

보험동향 2011년 가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원) 국내경제 오병국 (연구원) 금융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원)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황진태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원) 이혜은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 (선임연구원) 영 국 이정환 (선임연구원) 일 본 최 원 (선임연구원) 중 국 왕양비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개인 생명보험 보장비율 변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1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시사점 / 20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40

2. 국내경제 / 65

3. 금융경제 / 75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81

2. 생명보험 / 84

3. 손해보험 / 103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29

2. 영국 동향 / 136

3. 일본 동향 / 145

4. 중국 동향 / 152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164

VI. 통계표 / 177

I. 테마진단

◀ 개인 생명보험 보장비율 변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1. 검토배경

생명보험의 사망위험보장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생명보험의 보장기능 변화를 일본, 미국, 영국과의 보장비율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국내 생명보험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생명보험은 개인의 생과 사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시장의 성장은 개인들의 보험수요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보험수요는 개인의 생사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니즈가 존재하고 이를 전가하는 보험료를 지출할 능력이 있을 때에 가능함.
-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 향상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데, 이를 볼 수 있는 것이 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인 보험침투도임.

■ 보험침투도(보험료/GDP)는 국내의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반하는 리스크를 전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를 얼마나 지출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들의 생명보험 수요가 사망 등 위험보장을 위한 것인지 투자나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고에서는 국민들의 사망위험보장수요와 연금 및 저축보험수요가 어떻게 변화여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보험 등 보장성보험¹⁾의 보장금액(face amount)을 GDP로 나눈 비율인 보장비율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국내 개인생명보험의 소비 또는 수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보장비율은 1980년부터 2009년 동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에 대해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보장비율을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의 개인보험 수요추이를 검토하고자 함.

2. 개인 생명보험의 성장 추이

생명보험시장은 2000년까지 저축성을 가미한 상품 중심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여 왔지만 IMF구제 금융위기 이후 소득감소 등 새로운 환경의 조성과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성장력을 대체하여 왔음.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연금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생명보험은 개인들의 생사위험 노출정도의 변화에 따라 성장의 속도나 상품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2010년의 경우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83조 74억 원으로 이중에서 개인생명보험이 67.9%를 차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의 수요 확대에 따라 매년 38.8%의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시장의 포화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1) 국내 생명보험의 정의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표 1〉 생명보험 영역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연도	일반계정		특별계정	생명보험 전체	
	개인보험	단체보험		보험료	성장률(CAGR)
1980	3,617	2,420	-	6,036	-
1990	120,333	40,103	-	160,436	38.8
2000	398,721	67,985	49,832	516,538	12.4
2005	463,699	14,108	136,915	614,722	3.5
2010	563,273	8,204	258,596	830,074	6.2

자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

■ 생명보험 성장을 견인하는 개인보험시장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상품수요가 변화하고 있는데, 1990년 중반까지는 주로 저축성보험이 시장을 주도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금융형 상품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하여 보장성보험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²⁾

- 개인보험시장의 경우 1990년 중반까지 자녀교육 및 목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 노후 설계보험, 새 가정 복지보험 등 고금리 저축성보험이 주력 상품으로 성장하였음.
- 2000년 이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저축성상품 금리부담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존 및 사망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증가한 종신보험, CI보험과 연금보험의 수요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또한 2002년에 도입된 변액보험은 저금리하에서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금융투자형 상품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에는 노후건강 및 장수리스크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퇴직연금의 성장과 다양한 리스크를 통합하는 통합계좌형 보험이 새로운 담보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

2) 안철경(2010). pp. 80~8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하였음.

〈그림 1〉 생명보험 주력상품의 변천 과정



자료: 안철경(2010), p. 86.

■ 개인생명보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환경 변화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품수요도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고령화와 장수리스크 요인에 따라 이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 주도하고 있음.

- 생사혼합보험은 199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사망보험은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여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최근에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표 2〉 개인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보유계약액 연평균 성장률

(단위: %)

구분	수입보험료				연말 보유계약액			
	생사	사망	생존	소계	생사	사망	생존	계
1975~1980	95.5	39.5	27.7	49.5	86.3	92.0	40.5	68.3
1981~1990	28.5	23.0	53.3	38.5	11.5	3.7	41.6	21.1
1991~2000	14.5	47.2	1.0	11.4	17.7	44.8	5.5	21.2
2001~2010	-0.4	9.9	9.1	6.3	10.8	11.2	8.6	10.7

주: 생존보험에는 변액연금보험, 사망보험에는 변액 종신보험, 생사혼합에는 변액 유니버설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을 이용하여 작성함.

-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개인 생명 보험료의 구성비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1970년대의 경우 저축성인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99.5%로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지만, 2000년 이후 사망보험 수요가 점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8.7%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개인생명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

(단위: %)

연도	생존	사망	생사혼합
1970	77.4	0.5	22.1
1980	35.4	4.7	59.9
1990	62.4	1.7	35.9
2000	27.3	31.4	41.3
2010	36.3	38.7	25.0

주: 생존보험에는 변액연금보험, 사망보험에는 변액 종신보험, 생사혼합에는 변액 유니버설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

3. 개인생명보험의 보장비율 분석

국내 생명보험의 사망위험보장 기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됨. 2009년 국내 보장비율은 1.255%로 미국 0.731%, 영국 1.126%보다 높고 일본 1.90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사망위험 보장수요는 국민들의 실제수요만큼으로 제한적인 반면, 노후소득보장 수요는 고령화로 인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가. 보장비율의 의미

■ 가계의 생명보험소비(보험계약량×단가)를 측정하는 변수는 보험침투도 또는 보험밀도, 보장비율이 있으나 보장비율이 개인보험선택도를 세부요인으로 분석하여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보험의 구입이나 소비를 보험밀도(보험료/인구)나 보험침투도(보험료/GDP)로 측정하는 경우 국가 간 상대비교에는 용이하지만, 보험소비가 사망위험 보장을 위한 것인지 저축이나 노후소득 확보 수단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는 보험료가 유량변수(flow variable)이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규모일지라도 보험료 규제가 다른 경우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1인당 보험료를 비교하는 경우에 왜곡된 결과를 보이기 때문임.³⁾

- 보험료는 가격경쟁이 없는 경우 동일한 경제규모일지라도 보험단가인 요율을 높이면 보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구조나 규제제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같이 보험요율 인상에 의해 보험침투도가 상승하는 시장은 비경쟁적인 시장이거나 비효율적인 시장일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비해 보장비율은 저량 변량(stock variable)으로 회계연도 말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험소비가 사망 위험보장과 노후소득이나 저축수단으로 활용하는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표 4〉 보험소비 측정 지수의 비교

구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장비율
산출	보험료/GDP	보험료/인구	사망위험보장금액/GDP
의미	경제규모에 대비한 보험료지출을 상대적으로 비교	소득수준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 간 보험료 지출 비교	경제규모대비 보험회사의 사망보험보장금액 비율을 상대적으로 국제적 비교
특징	유량변수(보험료)	유량변수(보험료)	저량변수(보장금액)

■ 보장비율은 연도 말 국내 총생산액에서 연도 말 사망보험보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개인보험계약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또는 은퇴 이후의 사망위험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 지를 가늠해보는 지표가 됨.

- 보장비율은 생명보험가용도와 사망보장단가, 사망보험선호도, 가계비중 등 4개 요인의 곱으로 분해하여 산출됨⁴⁾.

$$\begin{aligned}
 \text{보장비율} &= \frac{\text{사망보험보장금액}}{GDP} \\
 &= \frac{\text{개인생명보험료}}{\text{가처분소득}} \times \frac{\text{사망보험보장금액}}{\text{사망보험료}} \times \frac{\text{사망보험료}}{\text{개인생명보험료}} \times \frac{\text{가처분소득}}{GDP} \\
 &= \text{생명보험가용도} \times \text{사망보장단가} \times \text{사망보험선호도} \times \text{가계비중} \\
 &= \text{보험침투도} \times \text{사망보장단가} \times \text{사망보험선호도}
 \end{aligned}$$

3) Thorsten Beck and Ian Webb(2003), pp. 5~9.

4) 久保英也(2005), p. 41.

- 또한 보장비율은 보험침투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망보장단가와 사망보험선호도가 동일하다면 침투도가 높을수록 보장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생명보험의 침투도가 동일하다면 사망보험 선호도가 높을수록 보장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Thorsten Beck and Ian Webb(2002)은 1960-1996년 기간 중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63개 국가의 보장비율을 분석한 결과 15세 이하의 인구비중과 학력수준, 인플레이션율이 보장비율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음.
 - 15세 이하의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증가하면 보장비율은 24.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망보험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의 생활비를 확보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하 분석에서 보장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종목 구분과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보장성보험은 각 국가별로 정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된 통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용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장성보험은 일반계정의 사망보험과 특별계정의 변액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보았으며, 다른 보험종목은 저축성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하였음.
 - 특약으로 담보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해당 보험종목에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사망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사용하였음.
 - 미국과 영국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사용했으며 건강보험은 제외하였음.
- 사용한 통계자료는 1980년부터 2009년간이며, 보험통계는 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통계자료를 사용했고, GDP 및 국민가처분소득은 중앙은행 등 국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우리나라의 개인생명보험 보장비율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1990년 0.159%)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생명보험시장의 사망위험 보장기능이 크게 확대되었음.

- 2009년 우리나라의 보장비율은 1.255%로 미국(0.731%), 영국(1.126%)보다는 높고 일본(1.905%)보다는 낮은 수준임.
- 이에 비해 일본은 보장비율이 1995년 2.952%를 정점으로 최근에 올수록 매년 3.1%⁵⁾씩 감소하고 있지만, 비교대상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
 - 이에 대해 久保英也(2005)는 일본 국민들이 보장성보험을 과대하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미국도 보장비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지만 연도별로 완만하게 매년 1.7%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비해 영국은 2000년까지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의 보장비율이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 낮은 것은 독립적인 건강보험제도와 단체보험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⁶⁾

〈표 5〉 보장비율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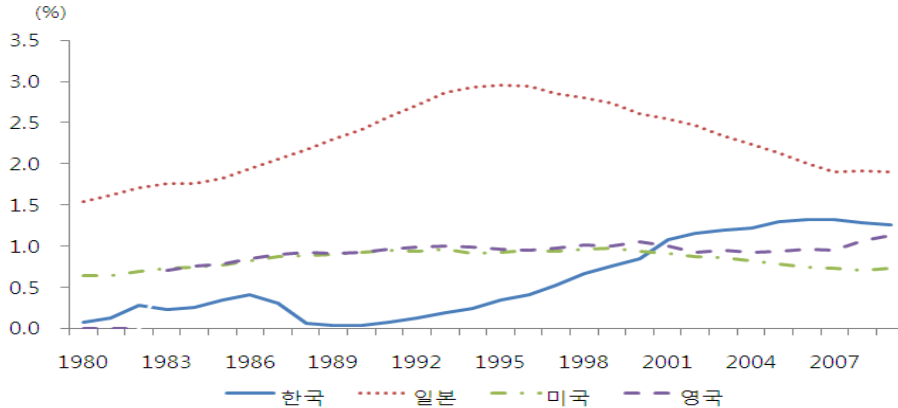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0.083	1.547	0.644	-
1985	0.353	1.820	0.777	0.781
1990	0.045	2.418	0.929	0.932
1995	0.344	2.952	0.929	0.969
2000	0.850	2.603	0.942	1.050
2005	1.298	2.128	0.789	0.945
2006	1.322	2.009	0.751	0.964
2007	1.319	1.902	0.728	0.951
2008	1.291	1.910	0.714	1.067
2009	1.255	1.905	0.731	1.126
CAGR(15)	9.7	-3.1	-1.7	1.1
CAGR(5)	-0.8	-2.7	-1.9	4.5

5) 성장률변화는 2009년 분석치가 1995년 대비하여 연평균 얼마나 증감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누적 연평균성장률(CAGR(15))을 의미함(이하 동일함). 최근 변화를 참고하기 위하여 최근 5년 평균 성장률(CAGR(5))을 추가하였음.

6) 미국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보장성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이며 이중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2009년 기준으로 25.8%이며, 단체보험형태로 수입되는 보험료는 37.8%에 이룸.

〈그림 2〉 보장비율의 국가별 비교



나. 보장비율 요인별 특징

1) 생명보험가용도

■ 보장비율의 첫째항인 생명보험가용도(개인보험료를 국민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⁷⁾는 국민가처분소득 중에서 생명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소득⁸⁾이 증가할수록 생명보험을 가입할 의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음.

-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을 제외한 금액(개인소득-이자 지급 등 비소비지출+이전소득(사회보장금·연금 등))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가용도는 국민들의 소비경향, 저축성향, 사회복지 지출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생명보험가용도는 수요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소득 중에서 생명보험을 구입한 정도를 의미하는 보험지출성향을 표현하는 것임.

7) 久保英也(2005, 5)는 이를 생명보험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음.

8) 국민가처분소득(개인가처분소득)은 “국내총생산-고정자본소모+대외순수취요소소득+대외순경상이전”으로 산출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함(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가용도는 1980년에 1.315%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높은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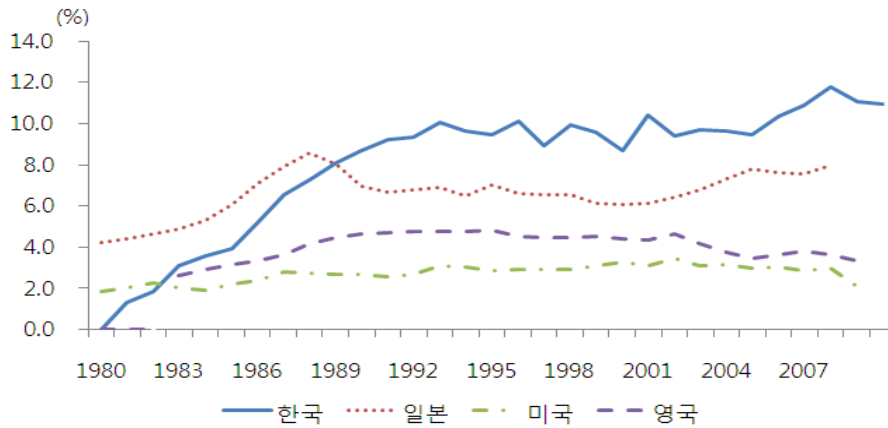
- 2009년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가용도(10.333%)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경우 일본(8.37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미국(2.061%)과 영국(3.316%)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임.
- 즉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단위소득 당 노후소득보장이나 유족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미국과 영국에 비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계약자들이 미국과 영국 국민들에 비해 생명보험을 통한 저축기능이나 보장기능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해석 될 수 있음.
- 생명보험가용도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연평균 0.5%, 1.3%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각각 2.3%, 2.7%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6〉 생명보험가용도 산출 결과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1.315	4.239	1.852	-
1985	5.207	6.072	2.205	3.172
1990	9.214	6.934	2.685	4.621
1995	10.134	7.038	2.856	4.844
2000	10.438	6.094	3.305	4.435
2005	10.379	7.780	3.007	3.432
2006	10.877	7.601	3.036	3.612
2007	11.772	7.531	2.840	3.786
2008	11.058	7.946	2.980	3.628
2009	10.933	8.378	2.061	3.316
CAGR(15)	0.5	1.3	-2.3	-2.7
CAGR(5)	1.3	1.9	-9.0	-0.9

〈그림 3〉 생명보험가용도의 국가별 비교



2) 사망보장단가

■ 사망보장단가(사망보험보장금액/사망보험료)는 개인들이 사망, 질병 등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지출하는 단위 사망보험료 당 보장금액의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공급측면의 가격 및 담보금액 등 상품공급전략과 관련된 변수임.

- 따라서 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계약자가 지출하는 단위 사망보험료 당 사망보험보장금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사망보장단가가 낮으면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망위험보장 부분보다는 저축성 보험료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저축기능 상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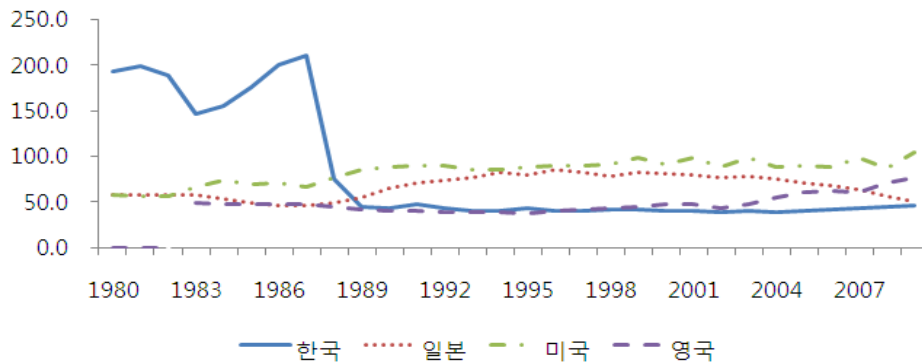
■ 2009년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단가는 45.613이며 증가되고 있지만 일본(51.185), 미국(104.733), 영국(76.3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임.

-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료가 상당부분 포함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사망보장단가가 낮게 나왔다고 보여짐.

〈표 7〉 사망보장단가 추이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192,564	58,258	58,353	-
1985	176,425	49,620	69,691	46,882
1990	42,575	65,600	89,013	40,595
1995	43,477	79,907	87,799	37,497
2000	40,877	81,168	91,483	47,117
2005	40,906	71,030	89,085	61,063
2006	41,592	68,245	88,243	61,585
2007	42,709	63,776	98,878	60,737
2008	44,456	56,501	87,346	71,363
2009	45,613	51,185	104,733	76,345
CAGR(15)	0.3	-3.1	1.3	5.2
CAGR(5)	2.8	-7.9	4.1	5.7

〈그림 4〉 사망보장단가의 국가별 비교



3) 사망보험선호도

■ 사망보험선호도(사망보험료/개인생명보험료)는 가계가 가처분소득내에서 지출하는 개인생명보험료가 어떠한 위험대비 목적인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 지표는 공적 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대책수준과 관련되어 있음.

- 사망보험선호도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위험노출 정도에 따른 사망위험보장과 연금보험 수요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수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사망보험선호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연금보험 구입은 거의 하지 않고 사망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사망보험선호도는 1990년대까지는 고금리의 저축성보험 수요로 인해 10% 내외로 미진하였고, 2000년대 들어 보장성보험의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09년 현재 사망보험선호도는 42.461%로 비교대상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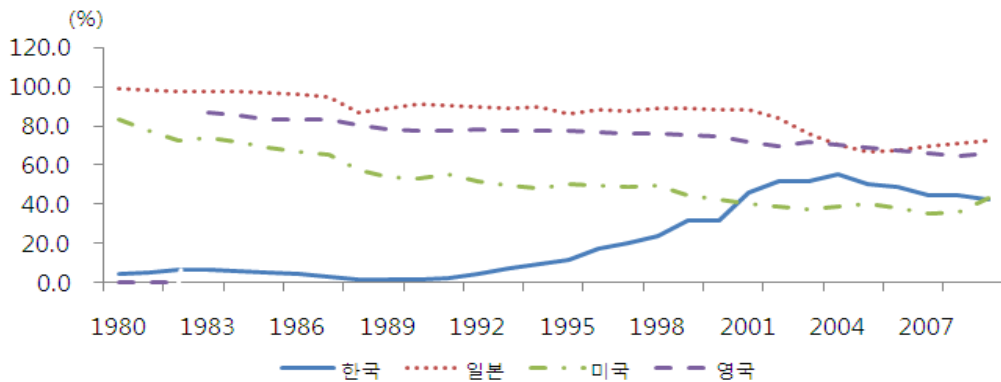
- 사망보험선호도의 국가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9.6%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미국, 영국은 1% 내외로 감소하는 추이임.
 -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노후보장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연도별 보장성보험의 수요 변화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선진국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수록 사망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개인이 내는 보험료의 50% 이상이 연금보험료이고 영국은 35% 이상, 일본과 우리나라는 30% 정도만 연금보험료이므로 국내의 연금보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8〉 사망보험선호도 추이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4,655	99,009	83,021	-
1985	5,558	97,052	69,229	83,076
1990	1,699	91,227	53,020	77,560
1995	11,794	86,227	50,356	77,694
2000	31,449	88,154	42,327	74,679
2005	50,509	66,525	40,121	69,180
2006	48,665	67,201	37,856	67,454
2007	44,717	69,443	34,961	65,943
2008	44,450	71,378	35,972	64,811
2009	42,461	72,654	43,344	65,841
CAGR(15)	9.6	-1.2	-1.1	-1.2
CAGR(5)	-4.2	2.2	2.0	-1.2

〈그림 5〉 사망보험선호도의 국가별 비교



4) 가계비중

■ 가계비중은 GDP에서 국민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경제에서 가계가 얼마나 기여하는 가를 의미하므로 가계의 비중이 높아야 생명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보험상품도 개발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비중은 1980년대에는 70%이었으나 국가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2009년 현재 59.3%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

■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가계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비중의 절대치도 우리나라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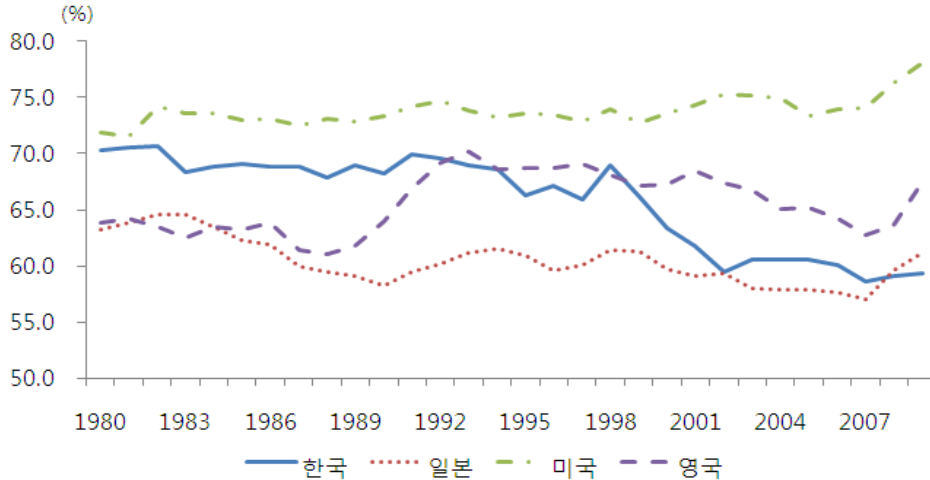
- 따라서 생명보험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계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표 9〉 가계비중의 산출 결과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70.336	63.282	71.830	63.816
1985	69.050	62.228	73.012	63.183
1990	68.240	58.271	73.339	64.026
1995	66.225	60.873	73.597	68.677
2000	63.322	59.685	73.629	67.308
2005	60.529	57.874	73.406	65.193
2006	60.068	57.621	74.004	64.222
2007	58.663	57.028	74.127	62.745
2008	59.098	59.601	76.225	63.608
2009	59.276	61.136	78.156	67.545
CAGR(15)	-0.8	0.0	0.4	-0.1
CAGR(5)	-0.5	1.4	1.6	0.9

〈그림 6〉 가계비중의 국가별 비교



4. 요약 및 시사점

생명보험의 보장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사망위험 보장기능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음.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에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단가를 높인 순수보장성보험으로의 전환과 연금수요에 대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필요함.

■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경우 유족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거나 은퇴 이후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입하게 됨.

○ 보험소비는 공적보장체계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험보장상품의 가입여력이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연금상품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의 생명보험의 보장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은 1%를 넘어서고 있지만, 미국은 19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0.7%에서 0.9%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국내의 보장성보험 소비의 경우 향후 국민가처분소득이 증가될 것이지만 교육비, 주거비, 각종 사회부담금⁹⁾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계저축률이 OECD 평균치 6.8%¹⁰⁾보다 낮은 3.2%(2010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장성보험의 가입 여력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표 10〉 보장비율의 특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보장 비율 (%)	1985	0.353	1.820	0.777	0.781
	1995	0.344	2.952	0.929	0.969
	2009	1.255	1.905	0.731	1.126
	CAGR(15)	9.7	3.1	-1.7	1.1
2009년 구성요소 (CAGR15)	생명보험가용도(%)	10.9(0.5)	8.4(1.9)	2.1(-9.0)	3.3(-0.9)
	사망보장단가	45.6(0.3)	51.2(-7.9)	104.7(4.1)	76.3(5.7)
	사망보험선호도(%)	42.5(9.6)	72.7(-1.2)	43.3(-1.1)	65.8(-1.2)
	가계비중(%)	59.3(-0.8)	61.1(0.0)	78.2(0.4)	67.5(-0.1)
	보험침투도(%)	6.5	7.8	3.5	10.0
	보험밀도(달러)	1,180.6	3,138.7	1,602.6	3,527.6
사회 환경요소	고령사회 도달연도	2018년	1995년	2014년	1975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30.1	20.1	17.2	7.8
	가계의 금융 자산비중(%)	21.4	58.7	64.9	45.2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2.1	33.9	38.7	30.8
	가계저축률(%)	3.2('10)	3.2('10)	6.5('10)	-3.6('08)

자료: 1) 사회환경요소는 윤성훈 외 5인(2011), p 30, 86, 78 참조 바람.

2) 가계저축률은 신원섭 · 이원기(2010), p. 5 참조 바람.

- 국내의 생명보험의 수요는 핵가족화 및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의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9) 사회부담금은 사회보험의 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합으로 구성됨. 사회보험부담률은 4대 사회보험이 도입(1964년 산재보험,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에 따라 1990년 9.4%에서 2008년 16.1%로 크게 증가했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면 1990년 14.5%에서 2008년 23.6%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가계저축률은 2000년대 4%p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신원섭 · 이원기 2010).

10) 신원섭 · 이원기(2010), p. 5.

- 국내 보장성보험시장의 생명보험가용도(10.933%)는 일본(8.378%)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미국과 영국의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개인보험시장의 수요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의 사망보험선호도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소득계층별 또는 위험집단별로 다양한 보장성보험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단가(45.6)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아직 보장성보험 수요가 잠재해 있는 중·저소득 계층이나 고위험자 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순수정기보험의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

신원섭·이원기(2010), 「가계저축률하락과 정책과제」, 「BOK 경제브리프」.

안철경(2010),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보험연구원.

久保英也(2005.5), 「マクロ保障倍率による生命保険市場分析と販賣チャネルの將來展望-市場,チャネルの國際比較から日本へ示唆」, 保険學雜誌 第588号.

生命保險文化センタ(각 연도), 「生命保險ファクトブック」.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각 연도), Life Insurance Fact Book.

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Facts & Figures(http://www.abi.org.uk/Facts_and_Figures/Facts_Figures.aspx).

Swiss Re(2010), World Insurance in 2009, Sigma No2/2010.

Thorsten Beck-Ian Webb(2002), "Determinants of Life Insurance Consumption across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2792,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Insurance Foundation, pp. 5~9.

http://www.esri.cao.go.jp/en/sna/kakuhou/kekka/h21_kaku/23annual_report_e.html

<http://www.bea.gov/iTable/iTable.cfm?ReqID=9&step=1>

<http://www.statistics.gov.uk/STATBASE/tsdownload.asp?vlnk=574>

◆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1. 검토배경 및 목적

일부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1995년부터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6월 현재 총 4개사가 중국에 진출해 있음. 시장진출 효과는 오랜 진출시기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 및 걸림돌 등을 살펴보고,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또는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부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미래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정체에 대비하고, 세계적 규모의 손해보험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 1995년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하여 왔음.

- 그 결과, 2011년 6월 현재 4개 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동부화재), Korean Re, 서울보증보험이 사무소(8개)와 현지법인(3개) 형태로 북경, 상해 및 남경에 진출해 있음.¹⁾
- 진출양태를 보면, 초기에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했다가 일정기간 동안 중국시장을 분석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함.
 -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4개 손해보험회사 중 삼성화재(2005년), 현대해상(2007년) 및 LIG손해보험(2008년)은 현지법인을 중국시장에 설립하고 본격적인 보험사업을 시작하였음.
- 현지법인을 설립한 3개 회사 중에서 삼성화재는 2010년부터, 현대해상은 2008년부터 자동차보험 사업을 시작하였고, LIG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표 1〉 국내손해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현황

회사명	중국영업기구	소재지	진출시기
삼성화재	사무소	북경	1995. 4
	현지법인	상해	2005. 6
LIG손해보험	사무소	북경	1996. 2
	사무소	상해	2003. 9
	현지법인	남경	2008. 6
현대해상	사무소	북경	1997. 8
	사무소	상해	2003. 9
	현지법인	북경	2007. 3
동부화재	사무소	북경	2007. 7

자료: 자본시장연구원(2010), p. 6.

■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간이 오래된 것에 비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본격적인 보험영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중국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이며, 현지법인 설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단계는 초기단계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는 오래되었고 일반보험을 중심으로 소극적이거나 영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향후 전략적 방향을 진단해 볼 시점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중국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영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회사에 필요한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내용은 1)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 성과 평가, 2) 중국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목표시장(목표보험종목), 3) 중국시장에서 손해보험 영업을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 및 4) 중국시장 진출(또는 확대)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으로 구성되었음.

2. 중국시장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성과

1980년 중국 보험시장 개방 이후,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현재 19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중국 손해보험시장에 진출해 있음. 중국시장 진출 외국계 회사의 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시장점유율은 1% 수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국내 손해보험회사 포함)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이처럼 국내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1) 중국인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을 펴지 않았고, 2) 자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영업(일반손해보험 영업)을 해왔기 때문으로 판단됨.

가. 개방화 연혁²⁾

- 중국은 1980년부터 보험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기 시작하였으며, WTO 가입 전인 1992년에는 미국 AIA보험회사가 처음으로 상해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 2001년 WTO 가입 전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보험회사는 29개이며, 이중 중외합자보험회사는 16개, 외국보험회사의 자회사는 13개임.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인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및 현대해상도 이 기간 중에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함.
-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보험시장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었으며, 이후 많은 외국계보험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함.
 - 2009년 말 현재 15개 국가에서 52개 보험회사를 중국에 설립하였으며, 이 중 27개가 생명보험회사이며 19개는 손해보험회사, 6개는 재보험회사임.

2) 박금용·호광병(2010), pp. 5~6.

나.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성과

■ WTO 가입 이후 많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와 경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2010년 시장점유율이 98.9%이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및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1%, 0.1%로 매우 낮은 수준임.

〈표 2〉 중국손해보험산업에서 투자주체별 시장점유율 추이

연도	전체	중국계 회사		외국계 회사		국내 회사	
		수입 보험료	시장 점유율	수입 보험료	시장 점유율	수입 보험료	시장 점유율
2006	1,580.4	1,561.2	98.8%	19.1	1.2%	1.6	0.1%
2007	2,086.5	2,062.3	98.8%	24.2	1.2%	2.6	0.1%
2008	2,446.2	2,417.4	98.8%	28.8	1.2%	3.2	0.1%
2009	2,992.9	2,961.1	98.9%	31.8	1.1%	3.6	0.1%
2010	4,026.9	3,984.1	98.9%	42.8	1.1%	5.2	0.1%

주: 1) 국내 회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가 해당됨.

2) 현대해상은 2007년부터, LIG손보는 2009년부터 영업실적이 통계에 포함됨.

자료: CIRC(<http://www.circ.gov.cn>).

■ 중국 손해보험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26.3%로 성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분석되지만,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중국계 손해보험회사보다 성장의 과실이 적음.

- 연평균 성장률이 중국계 손해보험회사는 26.4%,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22.3%(국내 손해보험회사 실적 포함)로 중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손해보험회사(삼성, 현대 및 LIG)의 경우도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과 성장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이 34.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07년부터 현대가 중국시장에 뛰어든 효과가 반영된 통계적 착시효과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도 다른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표 3〉 중국보험시장 연도별 성장률

구분	전체	중국계 회사	외국계 회사	국내 회사
2007	32.0%	32.1%	26.5%	67.1%
2008	17.2%	17.2%	19.1%	21.6%
2009	22.3%	22.5%	10.1%	13.9%
2010	34.5%	34.5%	34.9%	42.8%
연평균 성장률	26.3%	26.4%	22.3%	34.8%

주: 1) 국내 회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가 해당됨.

2) 현대해상은 2007년부터, LIG손보는 2009년부터 영업실적이 통계에 포함됨.

다. 중국시장 진출 결과 평가

-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시장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절대적 규모(보험료) 측면에서 중국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측면임.
 -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약 1%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움.
- 국내 손해보험회사도 다른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 수준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어 성공적으로 중국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0.1%인 상태로 수년간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손해보험시장 진출단계는 초기 단계이며 중국시장 진출성 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을 유지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성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중국에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이유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 영업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의 영업활동³⁾이 소극적이기 때문임.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중국인을 직접 상대하는 가계성 물건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중국에 진출한 자국민 또는 자국 제조회사의 물건을 주로 인수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도 다른 외국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영업(Market Seeker)과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축적을 위해 소극적인 영업을 수행중임.

3. 중국 손해보험시장 진출 강화 필요성

현재 국내 손해보험시장이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중국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음. 그렇지만 급격한 인구고령화, 인구감소(2018년 이후) 및 잠재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 성장성’, ‘문화친숙성’, ‘시장개방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손해보험시장에서 향후 국내 손해보험시장 정체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평균 성장률이 10% 초과하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시장진출 필요성이 크지 않음.

- 현재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장기보험의 성장(FY2010에 21.0%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연 10% 이상씩 성장하였음.

3) 중국 해방일보(보험연구원(2011. 6. 7), p. 22)에 따르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내실위주 경영, 책임보험 판매 불허제도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표 4〉 손해보험산업의 연도별 성장률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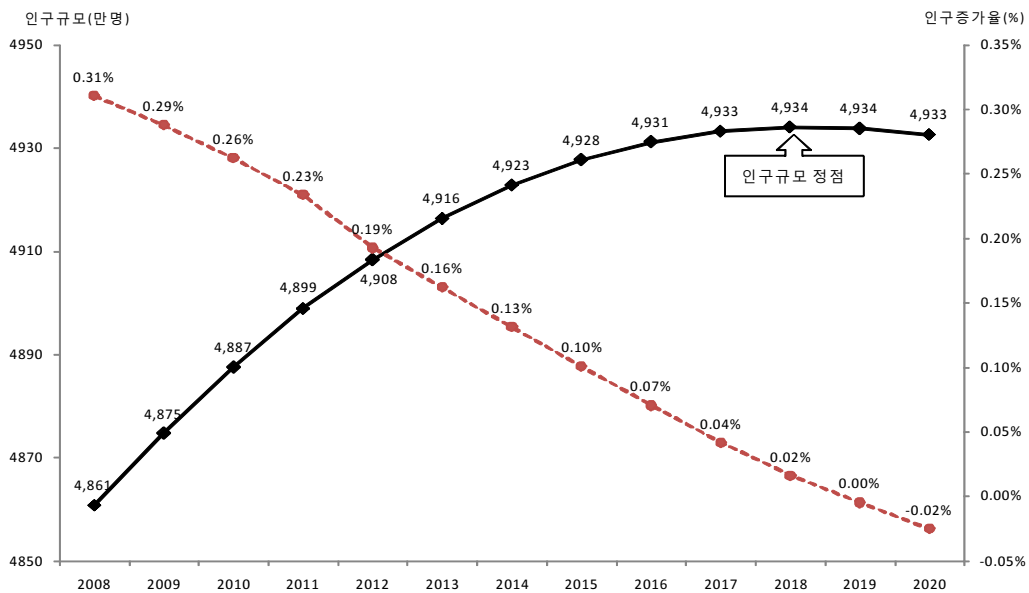
구분	FY2008		FY2009		FY2010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장기보험	188,829	15.5	232,988	23.4	281,813	21.0
전체	374,954	10.3	438,323	16.9	522,445	19.2

자료: 보험연구원(2011), p. 7.

■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시장을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는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급격한 인구고령화, 인구감소(2018년 이후) 및 잠재 경제성장률 둔화 등 향후에는 손해보험산업 성장요인들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
- 즉, 가까운 미래에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 둔화 및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정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성장률 정체 등이 예상됨.

〈그림 1〉 국민 총인구추계 추이

자료: 통계청(<http://www.kostat.go.kr>).

■ 따라서 이러한 미래 환경에 대비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검토하거나,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인 시장확대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해외시장 진출 대상 국가는 ‘시장 성장성’, ‘문화적 친숙성’ 및 ‘시장개방 정도’ 등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측면에서 중국시장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판단됨.

○ 첫째, ‘시장 성장성’ 측면에서 중국 손해보험 시장은 연평균 26% 이상의 높은 성장세에 있고, 보험밀도와 침투도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성장속도는 빠른 수준임.

- 2010년 현재 주요 보험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시장규모(세계 1위 인구수)는 매우 크지만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5〉 주요국의 보험밀도 및 침투도 비교(손해보험)

국가	보험밀도(달러)	보험침투도(%)
미국	2,127.2	4.5
영국	1,060.2	2.9
일본	917.4	2.1
한국	885.1	4.2
중국	52.9	1.3

주: 1) 보험밀도(Density)는 1인당 평균수입보험료로 보험산업의 (양적)성장정도를 나타냄.

2) 보험침투도(Penetration)는 보험료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보험산업의 발전정도를 나타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11」, pp. 38~39.

- 중국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중국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성장률 증가 속도가 감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진출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표 6〉 중국 손해보험산업의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변화 추이

연도	보험밀도(달러)	보험침투도(%)
2006	19.4	1.0
2007	25.5	1.1
2008	33.7	1.0
2009	40.0	1.1
2010	52.9	1.3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 연호.

- 둘째, ‘문화적 친숙성’ 측면에서 중국은 우리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고 역사적으로 계속적 교류를 한 경험이 있으며, 두 나라는 동일한 한자문화권(또는 유교문화권)에 속함.
 - 이러한 점을 볼 때 중국과 우리나라는 기타 해외시장(미국, 유럽 국가 및 기타 아세안 국가 등)과 비교하여 문화적 친숙성이 높은 편으로 판단됨.
- 셋째, ‘시장개방 정도’ 측면에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단계임.
 - 즉, 2001년 WTO 가입 이후 손해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외국보험회사의 손해보험시장 진입장벽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태임.

4. 중국시장 진출확대의 장애요인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의무담보(책임보험)에 대한 인수제한과 같은 법적 장벽이 존재하며,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중국인의 낮은 인지도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상품의 낮은 경쟁력 등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동차보험 상품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보험종목이며, 중국소비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보험의 기업체 물건처럼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없는 보험이므로 향후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중국 손해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가.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 부족⁴⁾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 중 일부 대형사만 중국시장에 조기에 진출하여 일부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만 기타 회사의 경우는 경험축적 측면에서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 중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및 동부화재 등 4개의 대형 손해보험회사만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이들 4개 회사 중 삼성화재 및 현대해상 등 두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시장 진출⁵⁾을 통해 중국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법적장벽 존재(영업규제 포함)

- 중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가 큰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외국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인수 제한과 지점개설 제한 등의 장애요인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임.
 - 외국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보험(책임보험)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규정이 자동차보험을 하려는 외국손해보험회사에게 심각한 장벽⁶⁾이 되고 있음.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책임보험을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와 업무협정을 맺어 판매할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의 비효율성 및 보상처리 시 의견불일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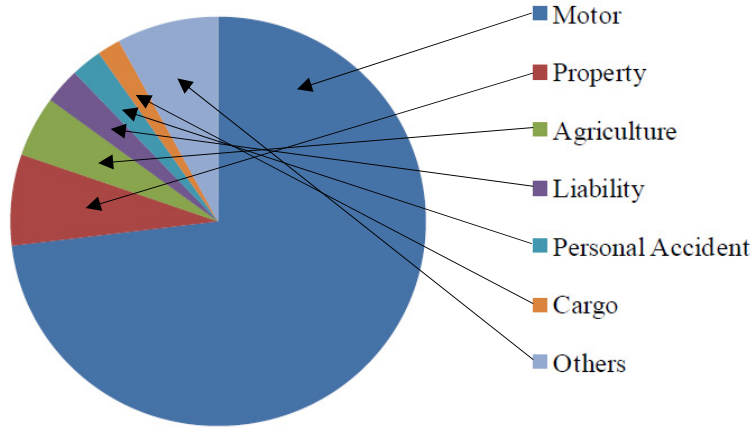
* 중국에서 자동차보험시장의 규모는 전체 손해보험시장 규모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4)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중국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함.

5) 현대해상은 2008년에, 삼성화재는 2010년에 중국에서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하였음.

6)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여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보험증권과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임의담보증권을 고객에게 각각 발급하는 형태로 자동차보험 영업을 함.

〈그림 2〉 2009년 손해보험종목별 시장규모



자료: MindPower Solution(2011), p. 10.

- 중국은 지역적 범위가 매우 넓은 시장이므로 각 지역에 보험업무(영업 또는 보상)를 하는 지점(또는 출장소)을 많이 개설하여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지점개설이 용이하지 않고, 지점개설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각 지역별로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므로, 규모가 작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 지방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본능력의 부족과, 지점개설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법적 요건⁷⁾은 외국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 각 지방(즉 省)에서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중국 전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총 자본금 규모가 5억 RMB(약 1천억 원)에 달하는 등, 법적 자본금 규모는 크기가 작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함.⁸⁾

7) 중국의 「보험업법」 제81조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지점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접수 후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개설여부 결정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8) 자본금 기준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차별적 진입규제로 보기는 어려움.

다.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 보험산업은 인지(사람과 종이)산업인데 중국은 숙련된 인적자원 공급이 손해보험 시장 성장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숙련된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 중국 손해보험 시장 진출이 어려움.

○ PriceWaterHouseCoopers(2010)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보험회사에게 ‘현재 회사 운영 시 3대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그 중 하나가 숙련된 언더라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음.

라. 국내보험회사의 낮은 인지도⁹⁾

■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인식 정도는 경쟁회사(중국계 회사 및 외국계 회사)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보험회사는 중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인지도 및 규모가 큰 외국계 보험회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보험회사는 인지도 측면에서 경쟁회사들보다 경쟁열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중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로는 국내의 삼성화재 및 현대해상 이외에 Chartis(AIG), 미쓰이 스미토모, Tokio Marine & Nichido Fire(동경해상), Liberty Mutual, Allianz, Zurich, Royal & Sun Alliance, Sompo Japan, Chubb 등이며, 이들 외국계 회사들은 세계 손해보험시장에서 Top 10 에 포함¹⁰⁾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시장 진출경험이 풍부한 회사들임.

- 자산규모를 중국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 보험회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 보험회사들의 규모가 매우 작아서 인지도 등의 경쟁력이 매우 낮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9) 이미지는 회사의 안정성, 명성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보험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소비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10)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0 Insurance Fact Book, 2011, p. 4)에 따르면, 수익규모에서 Allianz, Tokio Marine, Zurich 등은 세계 10위에 드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남.

〈표 7〉 중국진출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 규모 비교(2007년)

(단위: 백만 달러, 명)

구분	회사명	수익	자산	임직원 수
외국계 회사	Allianz	140,618	1,551,465	181,207
	AIG	110,064	1,060,505	116,000
	Zurich Financial Service	56,163	89,344	58,220
국내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10,523	22,321	5,440
	현대해상	5,325	9,139	2,870

자료: Fortune Global 50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다만 국내 손해보험회사들 중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그룹의 후광효과를 일부 얻을 수 있어 인지도 측면에서는 다른 국내 손해보험회사보다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국내보험회사의 상품경쟁력 부족

■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¹¹⁾ 중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험이 풍부하여 중국과 경쟁우위에 설수 있는 상품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판단됨.

- 장기보험은 우리나라에 특화된 상품이며, 자동차보험은 1990년대 이후 자동차보험가격자유화 실시 이후 손해보험회사 간 치열한 가격경쟁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였으므로 경쟁력이 있는 보험종목이라고 판단됨.¹²⁾

-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효율산출 및 상품개발, 언더라이팅(통계모형 시스템 구축), 보상서비스 제공 그리고 판매채널(온라인, 오프라인, 각종 유형의 대리점 활용) 운영 등 자동차보험 사업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

11) 본 연구의 논리전개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였음.

12) 현재 중국 자동차보험 산업에서는 효율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고, 3대 약관 및 효율(중국 대형 3사의 약관과 효율)이 제공됨. 중국에서 영업하려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이들 3가지 약관과 효율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판매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로 인한 가격산출 능력은 향후 중국 자동차보험 효율자유화가 실시될 때 도움이 되며, 현재는 도움이 되지 않음.

- 반면에 기타 일반보험의 경우 재보험구득 요율을 사용하는 등 요율산출 측면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만큼 손해보험회사들 간 경쟁이 심하지는 않음.
- 따라서 일반보험 상품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성 물건(특히 우리나라 제도업체 대상)에서 위험통제(Risk Handling)능력¹³⁾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규모가 큰 물건의 경우 재보험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등 일반보험 상품에서 위험통제 능력을 키우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중국의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은 자기 관계사(제조업체 또는 계열사)의 물건을 인수(국내 손해보험회사도 동일함)하고 있고, 중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은 중국계 제조업체의 물건을 인수하고 있는 등 일반손해보험시장의 경쟁환경이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중국 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상태임.

〈표 8〉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요율산출 및 보험운영능력

보험종목	요율산출 능력	상품개발 능력	언더라이팅 능력	판매채널 운영능력	시장접근 용이성
장기보험	중간	높음	높음	높음	쉬움
자동차보험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쉬움
기타 일반손해보험	낮음	중간	낮음	낮음	어려움

- 주: 1) 장기보험에서 “요율산출 능력”측면을 “중간”으로 평가한 이유는 새로운 위험률 산출에서 보험개발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2) 기타 일반손해보험에서 “시장접근 용이성” 측면을 “어려움”으로 판단한 이유는 중국 일반손해보험 물건 중 기업성 물건의 비중이 높고, 기업성 물건은 관계사에게 물건을 몰아주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임.
- 3) 타 일반 손해보험에서 “요율산출 능력” 및 “언더라이팅 능력” 측면을 낮게 평가한 이유는 요율산출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위험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언더라이팅의 경우에는 언더라이팅 전문가에 의한 요율 및 인수여부 결정보다는 재보험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임.

13) 위험통제능력(Risk Handling Ability)은 가입시키고자 하는 물건의 시장조사 등을 통해 언더라이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임.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운영 능력, 시장규모 및 시장접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중국시장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됨.

- 배상책임보험을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이 중국 손해보험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자동차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중에서 약 70% 정도¹⁴⁾가 임의담보이므로 임의담보만을 인수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반손해보험 상품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장기보험 시장은 중국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

5. 전략적 시사점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진출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경험축적과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대형 손해보험회사는 중국시장(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험이 불충분한 대형사 및 중소형사는 중국 시장에 대한 경험축적 기간을 갖고 합작법인(Joint Venture) 형태의 진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완화하는데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되,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이 쌓일 때까지 중국에 진출한 국내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일반손해보험 상품 영업을 하면서 긍정적 Brand(회사 이미지 포함)이미지 구축 및 중국시장 경험 축적이 필요함.

14) 중국 보험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자동차보험 보험료 중에서 임의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라는 것을 파악함.

- 자동차보험시장은 중국 손해보험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전략의 목표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되어야 하며,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함.
 - 중국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계 보험사들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¹⁵⁾
 - 특히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받는 Aetna사는 대만에서, Manulife사는 홍콩에서 보험영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중국 보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일부회사를 제외하고 많은 회사들이 대기업집단 소속이므로, 기타 계열사의 중국시장 진출에서 중국시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해외 지점 설치를 통한 소극적인 일반손해보험 영업)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축적이 충분한 회사는 중국 현지인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회사는 우선 중국시장 경험축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국에서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자동차대수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성¹⁶⁾이 매우 큼.
- 따라서 중국시장 경험이 있는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험 및 노하우(Know-How)를 살려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회사는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함.

■ 국내 중소형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사무소 형태로도 중국에 진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중국 내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Market Seeker)을 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준비(조직체계 구축 및 회사 이미지 제고전략 구축)가 필요함.

15) 이석호(2005), p. 52.

1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매년 약 26.3%씩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가 자동차 보험시장임.

- 국내 제조업체들이 중국시장에 많이 진출하였으므로,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회사의 장기 진입전략을 구축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금¹⁷⁾이 필요하므로 자본금 조달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업지역을 한정해야 하므로 어느 지역까지 영업을 할 것인지(영업지역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이미지는 중국 진출 해외 경쟁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인지도 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소비자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정보 축적, 한류 등을 이용한 중국소비자에 대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이미지 포지셔닝, 중국소비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이벤트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그룹 관계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의 후광효과를 광고 등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시장 진출방식 결정 시 평가기준¹⁸⁾들을 살펴보면, 중국시장 진출방식은 대형사의 경우 직접투자방식(Foreign Direct Investment)¹⁹⁾이, 해외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형사의 경우는 합작투자방식(Joint Venture)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²⁰⁾

-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중국의 진입장벽, 국내 보험시장의 규모 등은 합자투자에 적합하고, 기타 요소들은 직접투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17) 중국에서 자동차보험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은 1개성당 2억 RMB(약 400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전국단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5억 RMB(약 1,000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함.

18) Ikedhi and Sivakumar(2009), pp. 274~292.

19)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방식 중 직접투자방식(Foreign Direct Investment)은 해외에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포괄적 의미의 해외직접투자 용어와 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20) 합자투자방식이라도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는 배상책임담보의 경우에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와 업무협정을 맺어 판매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인지 여부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결정됨.

- 이러한 요소를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규모 등과 연계하여 최종 투자방식을 판단해 보면,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한 대형 손해보험회사는 직접투자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소형사 등 충분한 자원이 없는 회사는 합자 투자방식²¹⁾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 9〉 투자방식 평가

기준	평가	진출방식
시장잠재력 ²²⁾	낮은 보험밀도 및 침투도, 높은 성장률	직접투자
경쟁구조 ²³⁾	국내보다 덜 치열(높은 HHI ²⁴⁾)	직접투자
진입장벽	자동차 책임보험에 진입장벽 존재	합자투자
정치적 안정	공산당의 통치 확고	직접투자
문화적 이질성	약간의 문화적 이질성	직접/합자 투자
경제적 인프라	중국 정부의 경제변수 통제력 존재	직접투자
국내 보험시장 규모	적은 시장규모, 자본집적능력 낮음	합자투자

■ 중국시장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장벽 제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또는 지원)이 필요함.

- 중국에서 지점(또는 출장소, Branch)설립 장벽,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장벽 등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는데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21) 합작투자 방식은 회사의 통제(control)측면에서, 합작회사와 갈등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22) Harrigan(1983)에 따르면 회사들은 성장잠재력이 낮은 시장에서는 직접투자방식을 선호하지 않음.
 23) Root(1994)에 따르면 경쟁이 덜 치열한 시장(즉 과점시장)인 곳에는 직접투자 방식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됨.
 24) 중국과 한국(자동차보험)의 HHI비교

중국	한국(자동차보험)
0.1935	0.1454

주: 중국은 2010년 기준이며, 한국은 FY2009년 기준임.

자료: 1) CIRC(<http://www.circ.gov.cn>)

2) 기승도, 황진태(2011), p. 38.

- 중국 정부가 장기보험(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손해보험)²⁵⁾을 허용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동일한 외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노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5) 장기보험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개발, 판매된 보험상품이므로 중국에서 장기보험이 허용된다면 국내 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참 고 문 헌〉

곽금융 · 호광병(2010),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현황 및 정책방향」, 중국금융시장포커스, 자본시장 연구원.

기승도 · 황진태(2011),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연구」,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2011. 6), 「외자계 보험회사 점유율 하락과 원인」, KiRi Weekly.

_____ (2011. 7),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CEO Report.

이석호(2005), 「국내 보험사의 중국진출 전망과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2010, 5), 「중국 보험업 동향 및 외국계 보험회사 중국진출 현황」,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Harrigan, Kathryn R(1983), "Managing International Risk",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Ikechi Ekeledo , K. Sivakumar(2009), "Foreign Market Entry Mode Choice of Service Firms : A Contingency Perspective",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6(4).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1), Insurance Fact Book.

MindPower Solution(2011), China Insurance Market Outlook to 2015.

PricewaterhouseCoopers(2010), "Foreign insurance companies in China".

Root, Franklin R(1994). Entry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Markets, Lexington, MA : D.C. Heath.

Swiss Re, "World Insurance", Sigma, 각 연호.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통계청(<http://www.kostat.go.kr/>)

CIRC(<http://www.circ.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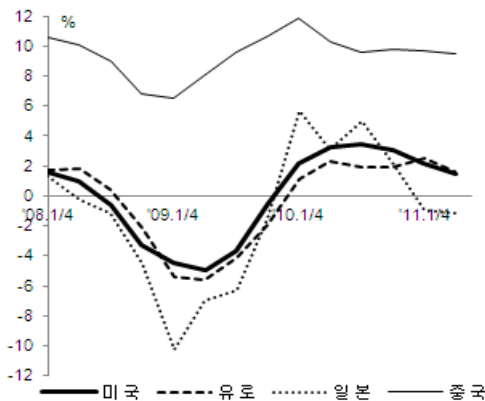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1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일본지진에 따른 생산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로 경기 둔화세가 확대됨.

- 2/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보다 경기가 둔화됨.
 - 선진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확대, 재정긴축, 자연재해 등 경기하방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됨.
 - 신흥국 경제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면서 전분기보다 경기가 둔화됨.
 - 경기선행지수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에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유로지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경기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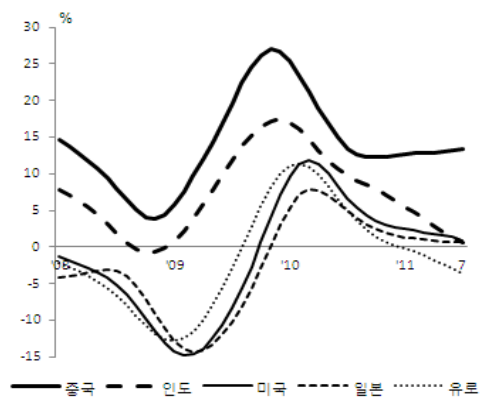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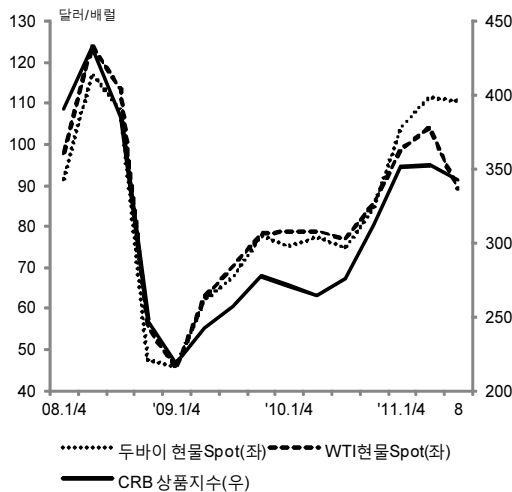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OECD.

■ 2/4분기 중 국제유가, 곡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

- 2/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소비자물가¹⁾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8%, 6.6% 상승함으로써 전분기보다 상승률이 각각 0.6%p, 0.3%p 높아짐.
- IMF는 2/4분기 선진국(1.1%→1.4%)과 신흥국(3.8%→3.7%)의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함.
- WTI 국제유가는 2/4분기 중 배럴당 104.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8월 말에는 88.8달러까지 하락하였고, 곡물, 원자재, 원유 등의 가격지수인 CRB지수도 2/4분기에 352.9까지 높아졌으나 8월말에는 342.6까지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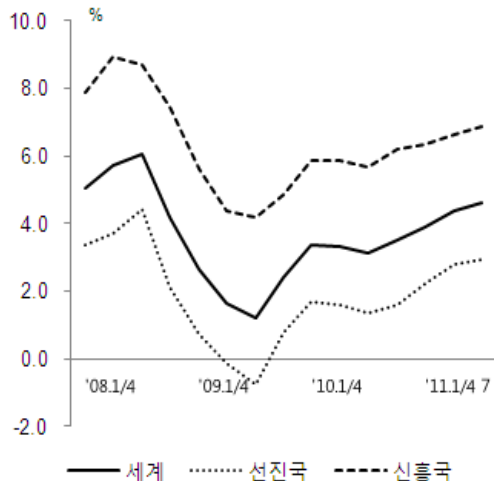
〈그림 3〉 국제유가 · 원자재가격 추이



주: CRB 상품지수 1967=100

자료: Bloomberg.

〈그림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IMF

■ 2/4분기 세계무역액과 산업생산은 일본지진에 따른 생산 차질,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분기대비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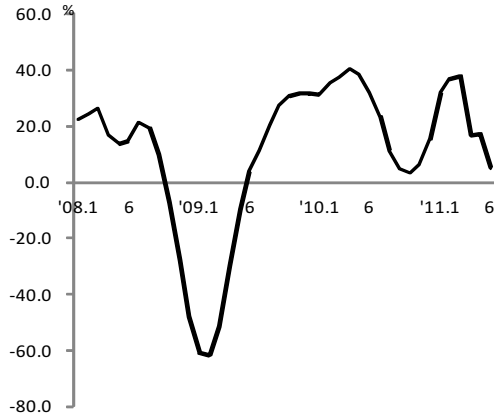
- 세계무역액의 증가율²⁾은 1/4분기 중 30%대를 기록했으나, 2/4분기 초에는 10%대로 낮아졌고, 2/4분기 말에는 5%대로 하락함.

1) IMF(2011. 9), *World Economic Outlook*.

2) 3개월 이동평균 전분기대비 증가율(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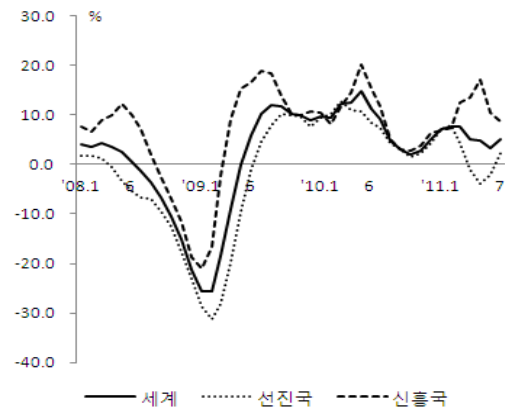
- 1/4분기 중 7%대를 기록한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³⁾은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6월에는 3.4%까지 하락함.

〈그림 5〉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주: 3개월 이동평균 전분기대비 증가율(연율).
자료: IMF.

〈그림 6〉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3) 3개월 이동평균 전분기대비 증가율(연율).

가. 미국경제

2011년 2/4분기 미국경제는 소비심리 위축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소비 부진,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기 둔화세가 지속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미국경제는 투자가 호조를 보였으나 소비,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1.3% 성장에 그침.

- 민간소비의 경우 서비스부문 지출이 전분기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임금소득 감소 등으로 재화부문 지출이 1.6% 줄어들어 따라 0.7% 증가함.
- 설비투자 지출은 기계류 및 장비 모두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10.3% 늘어났고, 흑한의 영향으로 1/4분기 중 감소했던 주택투자 지출도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4.2% 증가함.
-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6% 증가하였고, 수입은 1.4% 증가함.
- 정부지출은 주정부지출 감소세 지속으로 전분기대비 0.9% 감소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계절조정 연율, %)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3.0	1.7	3.8	3.9	3.8	2.5	2.3	0.4	1.3
민간소비	2.0	2.3	0.4	2.7	2.9	2.6	3.6	2.1	0.7
서비스	0.9	-0.1	0.4	1.0	2.5	1.6	1.3	0.8	1.9
재화	4.3	7.6	0.5	6.4	3.8	4.8	8.3	4.7	-1.6
설비투자	4.4	-3.3	-3.7	6.0	18.6	11.3	8.7	2.1	10.3
주택투자	-4.3	17.8	-3.8	-15.3	22.8	-27.7	2.5	-2.4	4.2
수출	11.3	13.9	23.5	7.2	10.0	10.0	7.8	7.9	3.6
수입	12.5	16.3	17.4	12.5	21.6	12.3	-2.3	8.3	1.4
정부지출	0.7	1.3	-0.9	-1.2	3.7	1.0	-2.8	-5.9	-0.9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1. 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IMF는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방안 교착,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주택경기 부진,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함.

○ IMF는 경기하강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6월)의 2.5%, 2.7%에서 1.5%, 1.8%로 하향 조정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¹²⁾ (%)	9.6	10.0	9.7	9.6	9.6	9.6	8.9	9.1	9.1	9.1
(u-6) ¹¹⁾ (%)	16.8	17.2	16.7	16.7	16.8	16.9	15.9	16.0	16.1	16.2
비농업취업자 증감 ¹⁾ (천 명)	1,018	-406	196	543	-137	416	361	290	85	0
실업수당 청구자수 ¹⁴⁾ (만 명)	45.9	50.4	47.2	46.7	46.3	43.6	40.7	42.6	41.2	41.0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6	1.5	2.4	1.8	1.2	1.3	2.1	3.4	3.6	3.8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1.7	1.3	0.9	0.9	0.7	1.1	1.5	1.8	2.0
생산자물가 상승률 ²⁾ (%)	4.2	1.5	4.9	4.4	3.8	3.8	4.9	7.0	7.2	6.5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1.2	0.9	1.0	1.1	1.5	1.4	1.8	2.2	2.5	2.5
소매판매 증가율 ³⁾ (%)	6.8	1.0	2.1	1.6	0.9	3.2	2.6	1.1	0.1	-
소비자신뢰지수 ⁷⁾	54.5	51.0	51.7	58.2	50.9	57.0	66.9	61.5	59.2	44.5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⁵⁾ (%)	6.6	-3.5	8.3	-2.1	-2.9	-7.8	8.1	-1.8	3.2	-
주택가격지수 ⁶⁾	145.6	145.2	146.3	147.4	146.1	142.8	141.1	140.9	141.0	-
산업생산지수 상승률 ⁹⁾ (%)	5.3	1.4	2.0	1.7	1.6	0.8	1.2	0.1	0.4	0.4
산업생산가동률 ¹³⁾	74.5	70.3	72.3	74.0	75.5	76.1	76.8	76.7	77.3	77.3
ISM제조업PMI	57.2	54.6	58.2	57.6	55.2	57.9	61.1	56.4	50.9	50.6
출하대비 재고율 ¹⁰⁾ (%)	1.32	1.34	1.32	1.32	1.33	1.33	1.31	1.33	1.33	-
경기선행지수 ⁸⁾	109.8	105.8	108.4	109.8	109.7	111.3	113.4	114.7	115.9	116.2

주: 1)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감, 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5)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6)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 1=100, 7) 1985=100, 8) 2004=100, 9) 전분기대비 상승률,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11)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12) 16세 이상, 계절조정, 13) 2007=100, 14) 해당 기간의 청구자수 평균.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2/4분기 들어 실업률이 다시 9%대로 상승하고,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가 감소했으며, 실업수당 청구자가 늘어남으로써 고용여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1/4분기 8.9%에서 2/4분기 9.1%로 상승하였고, 구직자 포기과 임시직을 포함하는 포괄적 실업률(U-6)⁴⁾은 15.9%에서 16.0%로 높아짐.
- 1/4분기 36만 1천 명 증가했던 비농업취업자 수는 2/4분기 29만 명 증가하는데 그침.
-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평균)는 1/4분기 40만 6천 명에서 2/4분기 42만 6천 명으로 늘어남.

■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곡물가격과 근원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3.4% 높아짐.

- 에너지가격은 5, 6월에 각각 전월대비 1.0%, 4.4% 하락했으나, 곡물가격은 2/4분기 중 전분기대비 1.4% 상승함.
- 2/4분기 근원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재고물량 감소로 자동차가격이 상승(전분기대비 2.5%)하여 전년동기대비 1.5% 높아짐.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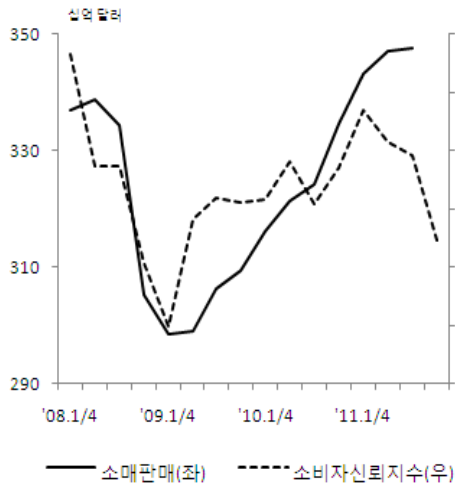
■ 2분기 연속된 소매판매 부진, 주택경기 침체 국면 지속, 소비자 체감경기 악화로 2/4분기 내수부문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시현함.

- 2/4분기 소매판매는 임금소득 감소와 자동차 관련 판매 저조(전분기대비 1.8% 감소)로 전분기에 비해 1.5%p 감소한 1.1% 증가에 그침.
 - 2/4분기 주간 임금소득 평균은 334 달러로 1/4분기 341 달러에 비해 2.0% 감소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 66.9를 기록한 후 2/4분기에 61.5로 하락함.
 - 한편 8월에는 소비자신뢰지수가 44.5를 기록하면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짐.

4) 구직포기자·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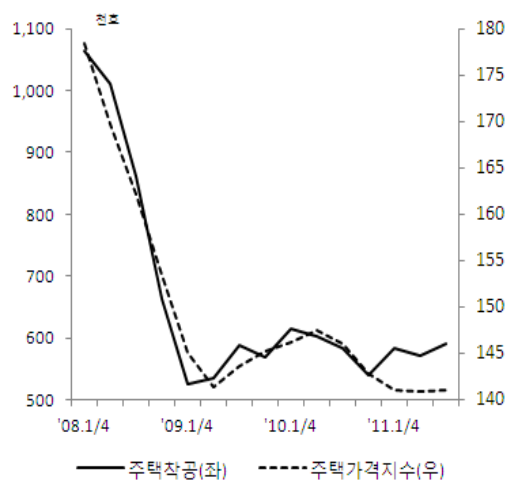
- 2/4분기 주택착공은 전분기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유질처분(foreclosure)이 증가하는 가운데 2/4분기에도 하락함.

〈그림 7〉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비자신뢰지수는 1985=100
자료: U.S. Census Bureau, Conference Board.

〈그림 8〉 주택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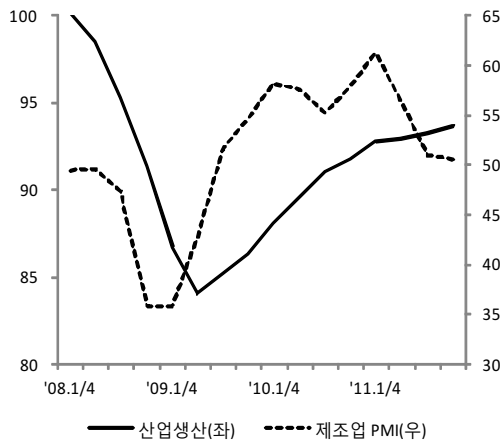
주: 주택가격은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S&P/Case-Shiller.

〈생산부문〉

- 산업생산의 경우 2/4분기에도 둔화세가 나타났으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빠른 하락세를 시현함.

- 2/4분기 산업생산지수는 전분기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침.
- 2/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6.4로 2010년 평균(57.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8월에는 50.6까지 하락함.
- 생산부문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율은 2/4분기 들어 전분기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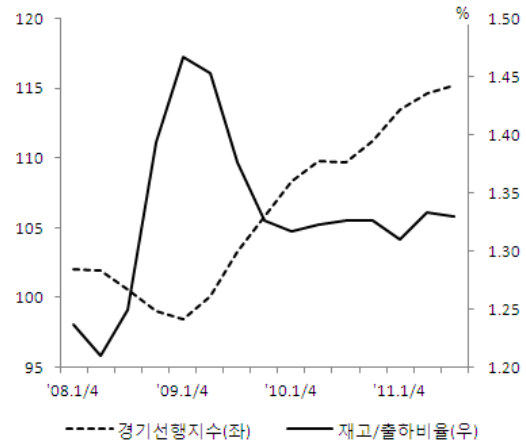
〈그림 9〉 산업생산지수와 제조업 PMI



주: 산업생산지수는 2007=100

자료: U.S. Census Bureau,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그림 10〉 경기선행지수와 출하대비재고율



주: 경기선행지수는 2004=100

자료: Conference Board, U.S. Census Bureau.

나. 유로경제

2011년 2/4분기 유로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율 하락과 독일 및 프랑스의 내수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1/4분기보다 하락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유로경제는 소비, 투자, 정부 부문, 수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분기대비 1.6% 성장하는 것에 그치면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8%p 하락함.
- 민간소비는 실업률의 소폭 상승과 전분기대비 기저효과로 0.5% 증가하였고, 고정투자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1.7% 늘어남.
- 재정적자 축소 압박이 커지면서 위축된 정부지출은 2/4분기 0.3% 증가함.
-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분기대비 6.3%, 4.7% 증가하여 1/4분기에 이어 둔화세가 지속되었으나, 수입의 둔화폭이 커 순수출은 소폭 증가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연율, %)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EA17 GDP	1.8	-4.1	-2.1	0.8	2.0	2.0	2.0	2.4	1.6
민간소비	0.8	-1.3	-0.5	0.4	0.7	1.0	1.1	0.9	0.5
고정자본	-0.8	-11.4	-8.7	-4.8	-0.6	0.6	1.2	3.7	1.7
정부지출	0.5	3.0	2.0	1.1	0.7	0.3	-0.1	0.8	0.3
수출	10.8	-13.6	-5.2	7.0	12.7	11.7	11.1	9.6	6.3
수입	9.1	-12.4	-7.0	3.6	11.0	10.5	10.5	8.2	4.7

자료: 유럽중앙은행.

- 1/4분기에 유로경제를 견인하였던 독일과 프랑스는 2/4분기에 들어 급격히 부진해짐.
- 독일은 2/4분기 중 민간소비가 전분기대비 0.7% 감소하고, 고정자본투자도 전분기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쳐 0.1% 성장함.

- 프랑스는 2/4분기 중 민간소비가 전분기대비 0.7% 감소하고, 고정자본투자와 수출이 각각 0.9%, 0.0% 증가하여 성장이 정체됨.

〈표 4〉 유럽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계절조정, %)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독일 GDP	3.7	0.8	0.7	0.5	1.9	0.8	0.5	1.3	0.1
민간소비	0.6	-0.7	-0.2	-0.0	0.8	0.4	0.5	0.4	-0.7
고정자본	5.5	0.6	-0.0	0.2	5.7	1.6	-0.2	4.5	0.3
수출	13.7	3.4	2.1	3.4	7.0	2.0	1.0	2.1	2.3
수입	11.7	4.4	-1.0	5.8	6.2	0.9	1.3	1.7	3.2
영국 GDP	1.4	-0.3	0.5	0.4	1.1	0.6	-0.5	0.4	0.1
민간소비	0.8	0.0	0.9	0.1	0.3	-0.1	-0.2	-0.6	-0.8
고정자본	3.0	0.0	-1.5	3.9	0.1	3.6	-1.8	-2.0	1.7
수출	5.3	0.9	3.7	-1.0	3.0	1.6	1.7	2.4	-1.3
수입	8.5	1.1	4.1	1.9	2.1	1.9	3.2	-2.4	-0.3
프랑스 GDP	1.5	0.2	0.6	0.2	0.5	0.4	0.3	0.9	0.0
민간소비	1.3	0.2	0.9	0.1	0.1	0.6	0.4	0.4	-0.7
고정자본	-1.2	-1.3	-0.5	-1.1	1.1	0.8	0.5	1.2	0.9
수출	9.7	1.2	0.7	4.7	3.1	2.1	0.4	1.8	0.0
수입	8.8	-0.3	3.5	1.8	3.4	4.2	-0.4	3.1	-0.9

자료: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 유로위원회⁵⁾는 세계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2011년 하반기 경기는 둔화되겠으나, 2011년 경제성장률은 1/4분기의 예상 밖 성장으로 종전 전망치(1.6%)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유로위원회는 2011년 유로지역의 3/4~4/4분기 경제성장률을 종전(2월)보다 각각 0.2%p, 0.3%p 하락한 0.2%, 0.1%로 전망함.
- 2/4분기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ESI)는 105.7로 전분기대비 1.7p 감소하였고, 8월에는 100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경기 둔화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5)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2011, 9).

〈표 5〉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EA17										
ESI ¹⁾	100.9	91.9	96.6	99.2	102.3	105.7	107.4	105.7	103.0	98.3
실업률 ²⁾ (%)	10.1	10.0	10.1	10.2	10.1	10.1	9.9	10.0	10.0	10.0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6	0.4	1.1	1.6	1.7	2.0	2.5	2.7	2.5	2.5
소매판매 증가율 ⁴⁾ (%)	0.6	0.3	0.7	-0.2	0.4	-0.3	-0.1	-0.3	0.2	-0.9
소비자신뢰지수 ⁵⁾	-14.0	-17.0	-16.8	-16.7	-12.1	-10.4	-10.6	-10.4	-11.2	-16.5
산업생산 증가율 ⁶⁾ (%)	7.1	1.3	2.3	2.6	1.6	1.8	0.9	0.2	0.1	-
제조업기대지수 ⁵⁾	11.5	1.3	7.5	10.2	11.3	16.8	19.0	13.4	9.8	5.6
독일										
ESI ¹⁾	107.2	94.0	97.8	105.5	110.7	115.2	116.1	114.9	112.7	107.0
실업률 ²⁾ (%)	6.9	7.7	7.5	7.2	7.0	6.7	6.3	6.2	6.1	6.0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2	0.3	0.8	1.0	1.2	1.6	2.2	2.5	2.6	2.5
소매판매 증가율 ⁴⁾ (%)	0.1	0.6	-0.2	0.6	0.8	-0.9	0.9	-0.4	2.3	-1.0
소비자신뢰지수 ⁵⁾	-3.2	-17.0	-16.1	-8.4	2.6	9.1	8.7	8.9	8.4	0.2
산업생산 증가율 ⁶⁾ (%)	11.1	1.3	2.3	5.0	2.0	2.7	1.7	1.2	1.4	-
제조업기대지수 ⁵⁾	17.9	2.0	12.0	17.3	18.5	23.5	24.0	17.2	11.5	5.4
프랑스										
ESI ¹⁾	100.7	95.3	99.7	99.8	101.7	105.7	109.3	107.8	105.9	-
실업률 ²⁾ (%)	7.8	10.0	9.9	9.8	9.8	9.7	9.7	9.7	9.9	9.9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3.3	0.4	1.5	1.8	1.8	1.9	2.0	2.2	2.1	2.4
소매판매 증가율 ⁴⁾ (%)	4.1	0.7	1.6	0.6	2.4	-0.4	1.1	-0.3	0.3	1.6
소비자신뢰지수 ⁵⁾	-18.7	-19.0	-17.2	-21.0	-19.3	-17.2	-19.1	-18.0	-18.4	-
산업생산 증가율 ⁶⁾ (%)	4.9	0.5	2.7	0.8	0.0	0.7	1.9	-0.5	0.7	-
제조업기대지수 ⁵⁾	5.4	3.0	1.4	1.4	5.5	13.4	20.6	14.4	15.6	-
영국										
ESI ¹⁾	101.4	91.7	99.1	101.2	101.5	100.7	101.8	100.5	98.5	92.9
실업률 ²⁾ (%)	9.8	7.7	7.9	7.8	7.7	7.8	7.7	7.8	-	-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7	2.1	3.3	3.4	3.1	3.4	4.1	4.4	4.4	4.5
소매판매 증가율 ⁴⁾ (%)	0.6	0.5	-2.1	1.2	1.1	-0.2	-0.2	0.7	0.4	0.3
소비자신뢰지수 ⁵⁾	-11.6	-8.7	-4.1	-8.9	-15.7	-17.5	-22.4	-18.6	-18.4	-19.8
산업생산 증가율 ⁶⁾ (%)	2.4	0.3	1.6	1.2	0.2	0.7	0.1	-1.6	0.2	-
제조업기대지수 ⁵⁾	19.4	3.3	8.3	16.2	11.4	19.4	23.6	18.1	10.6	12.4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채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증가율, 5) 향후 경제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2011. 7);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고용과 물가〉

■ 2/4분기 유로지역 고용여건의 경우 일부 국가는 개선된 반면, 일부 국가는 악화되어 평균적으로 혼조된 양상을 보임.

- 2/4분기 유로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10.0%로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반면, 취업자 수 평균은 전분기대비 0.3% 증가함.
- 2/4분기 북서부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1/4분기보다 하락했으나, 주변부 국가 및 동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상승함.
 - 독일(6.4% → 6.2%), 덴마크(7.6% → 7.3%), 네덜란드(4.3% → 4.2%), 핀란드(8.0% → 7.9%), 스웨덴(7.7% → 7.5%), 오스트리아(4.4% → 4.1%)의 실업률은 하락함.
 - 포르투갈(12.4% → 12.6%), 불가리아(11.1% → 11.2%), 폴란드(9.4% → 9.5%), 루마니아(7.0% → 7.4%)의 실업률은 상승함.

■ 2/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과 근원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상승세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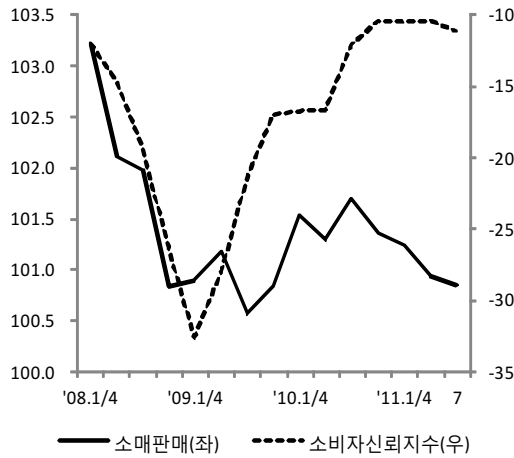
-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하여 전분기보다 상승률이 0.2%p 높아짐.
 - 에너지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1.5% 상승하였고,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3%p 높은 1.6%에 달함.
-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에 비해 독일(2.5%), 프랑스(2.2%), 영국(4.4%), 네덜란드(2.4%), 핀란드(3.5%) 등 북서부유럽 국가에서 확대된 반면, 아일랜드(1.3%), 그리스(3.3%), 포르투갈(3.7%) 등 주변부 국가에서는 하락함.

〈내수부문〉

■ 2/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감소했으며, 7~8월에는 소비자체감경기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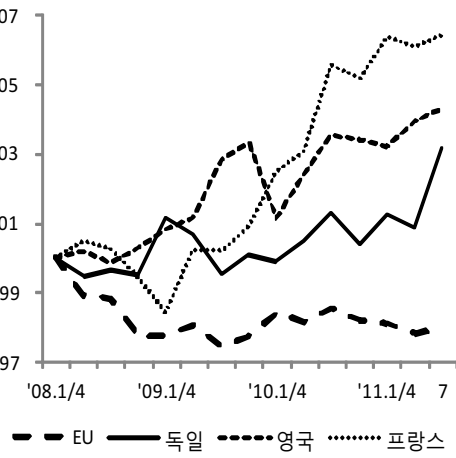
- 2/4분기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소매판매가 각각 0.4%, 0.3% 감소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전분기대비 0.3% 감소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에 유로지역 전체에서 상승했으나, 8월에는 급격히 하락함.

〈그림 11〉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지수는 2005=100, 소비자신뢰지수 장기평균=-12.0
 자료: eurostat(2011, 9).

〈그림 12〉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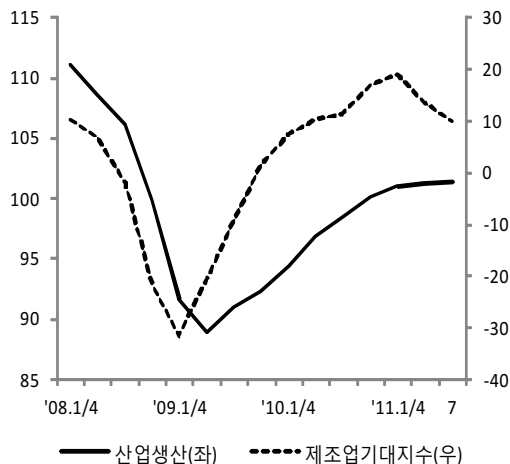


주: 각국의 소매판매지수(2005=100)를 2008년 1/4분기=100으로 환산함.
 자료: eurostat(2011, 9).

〈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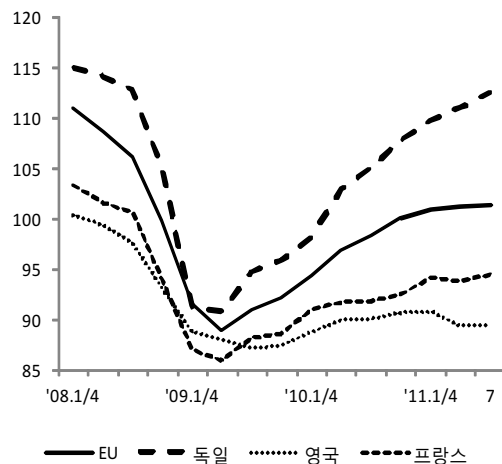
■ 2/4분기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생산부문의 경기체감지수도 하락함.

〈그림 13〉 유로지역의 산업생산과 제조업기대지수



주: 산업생산은 2005=100, 제조업기대지수 장기평균=6.4
 자료: eurostat(2011, 9).

〈그림 14〉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주: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자료: eurostat(2011, 9).

- 2/4분기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0.2% 증가하면서 정체됨.
 - 특히 6월에는 산업생산이 에너지를 제외한 전부문에서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독일(-0.8%) 및 프랑스(-1.5%)에서도 산업생산이 감소함.
- 유로지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1/4분기에 23.6, 2/4분기에 18.1, 7월에 10.6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하락세는 독일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남.
 - 독일과 영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2/4분기에 각각 17.2, 18.1을 기록한 후 7월에는 각각 11.5, 10.6으로 낮아짐.

다.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2011년 2/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누그러지면서 지진 여파는 다소 축소되는 모습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일본의 실질 GDP는 동북부 지진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분기대비 2.1% 감소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29.1%) 지출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1.8%)와 비내구재(-7.8%) 지출이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는 지진으로 인한 전기 공급 차질로 수송용기계(-22.2%)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3.6% 감소하였고, 주택투자는 7.1% 감소함.
- 정부지출은 경기침체 우려로 정부소비(2.3%)와 공공투자(18.3%)가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4.8% 증가함.
- 수출은 공급망 훼손에 따른 생산차질,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18.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소비위축으로 전분기대비 0.2% 감소함.

〈표 6〉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연율, %)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4.0	-1.7	6.8	9.3	-0.7	4.9	-2.4	-3.7	-2.1
민간소비	1.8	0.4	3.3	4.0	-1.8	4.1	-3.5	-2.5	-0.0
설비투자	2.1	-9.0	4.9	6.8	10.7	4.2	-0.0	-5.5	-3.6
주택투자	-6.3	-27.3	-14.5	4.3	-0.4	8.6	11.6	0.9	-7.1
정부지출	1.3	3.1	4.9	-1.0	-1.2	-0.3	-2.3	2.4	4.8
수출	23.9	37.3	27.3	26.9	29.7	2.9	-3.9	0.0	-18.1
수입	9.8	23.6	3.0	11.2	21.1	10.9	-2.6	5.8	-0.2

자료: 일본 내각부.

■ IMF⁶⁾는 지진피해에 따른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IMF는 일본의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0.7%에서 -0.5%로 상향 조정했으나, 2012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다고 보고 종전의 2.9%에서 2.3%로 하향 조정함.

〈표 7〉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5.0	5.0	5.1	5.3	5.1	4.8	4.7	4.7	4.7	4.3
비농업취업자 증감 ²⁾ (만 명)	8	-7	-24	30	6	-4	-17	25	-9	-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0.7	-2.0	-0.9	-0.7	-1.0	-0.3	-0.5	-0.4	0.2	0.2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1.2	-1.1	-0.8	-1.2	-1.5	-1.2	-1.4	-0.9	-0.5	-
소매판매 증가율 ⁹⁾ (%)	2.5	-0.8	3.8	3.7	3.2	-0.3	-2.7	-1.6	0.7	-
소비자신뢰지수 ³⁾	41.4	39.6	41.0	42.1	41.8	41.0	40.5	34.2	37.0	37.0
주택착공호수 ⁴⁾ (만 호)	81.9	78.9	81.6	77.6	81.5	84.3	84.2	81.0	95.5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⁸⁾ (%)	7.7	-13.5	1.1	8.4	15.5	6.4	8.7	9.3	3.8	-
광공업생산 증가율 ⁵⁾ (%)	16.6	-5.1	27.6	20.5	13.3	6.8	-2.5	-7.0	-1.7	-
- 가동률지수 증가율 ⁶⁾ (%)	20.3	-6.1	36.8	25.1	14.8	8.0	-3.8	-10.4	-1.8	-
- 재고율지수 증가율 ⁷⁾ (%)	-17.6	-7.0	-29.0	-21.9	-12.6	-3.3	0.6	11.9	6.8	-

주: 1) 2010=100, 전년동기대비, 2)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3) 기준치=50, 4) 연간 환산치,

5) 계절조정, 2005=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6) 2005=100,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7) 계절조정,

8)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9)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여 고용여건은 다소 개선됨.

○ 실업률은 2/4분기에 4.7%를 기록하여 전분기와 차이가 없었으며, 7월에도 4.7% 수준을 유지함.

○ 비농업취업자 수는 2/4분기에 전분기대비 25만 명이 증가한 후, 7월에는 소폭 감소함.

6) IMF(2011. 9), *World Economic Outlook*.

■ 소비자물가는 2/4분기 중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7월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높아짐.

-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수요부족으로 식료품가격(-0.9%)과 근원소비자물가(-0.9%)가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4% 하락함.
- 7월 근원소비자물가는 0.5% 하락했으나, 식료품가격이 0.2% 상승하고 에너지가격 상승이 광열, 교통 등에 반영되어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함.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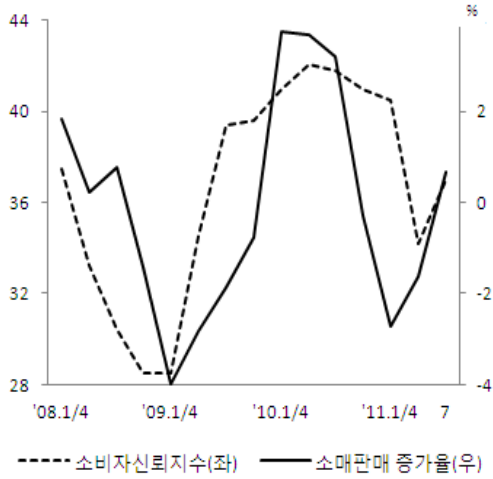
■ 2/4분기 중 소매판매와 소비자체감지수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를 시현했으나, 7월에는 각각 반등함.

- 2/4분기 중 소매판매는 의류(4.0%), 식료품(2.1%), 기계류(3.1%)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자동차(-26.5%)와 각종 상품(-2.1%)부문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6% 줄어듦.
- 그러나 7월에는 각종 상품(0.4%)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함.
-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보다 6.3p 낮은 34.2를 기록하여 2009년 2/4분기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7~8월에는 37.0으로 상승함.

■ 2/4분기 중 민간기계수주액은 증가하고 주택착공은 감소한 반면, 7월에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는 둔화되고 주택착공은 증가하여 투자부문은 다소 혼조된 모습을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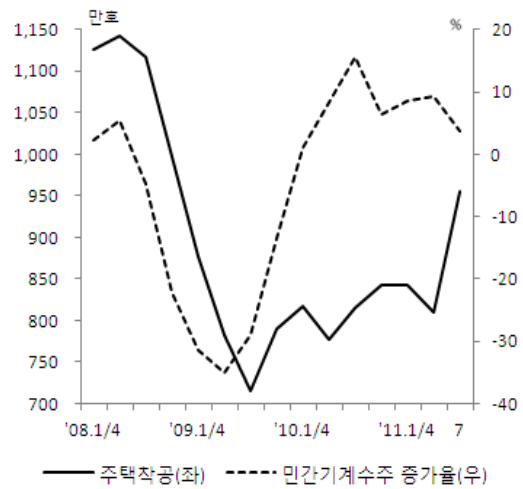
- 선박·전력을 제외한 2/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여 증가율이 1/4분기(8.7%)보다 높아졌으나, 7월에는 3.8% 증가에 그침.
- 연간 주택착공호수는 2/4분기 중 81만 호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3만 2천 호가 감소하였으나, 7월에는 95만 5천 호로 증가함.

〈그림 15〉 소비자신뢰지수 및 소매판매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그림 16〉 주택착공 및 민간기계수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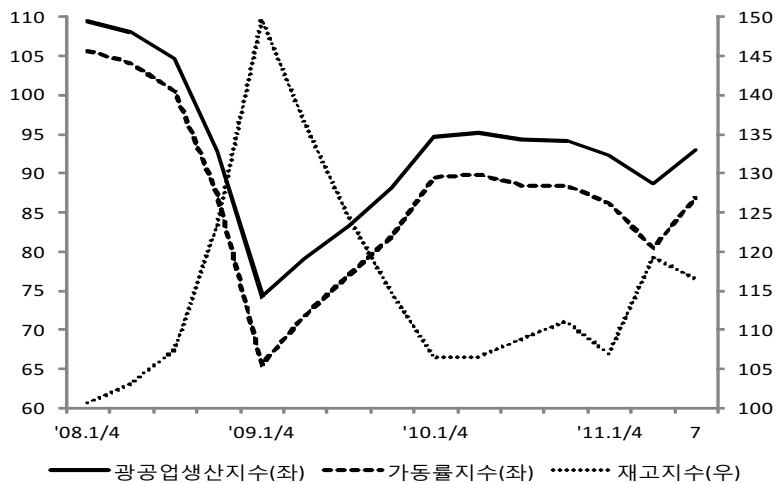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생산부문〉

■ 2/4분기 광공업생산의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확대되고 재고는 증가함.

〈그림 17〉 광공업생산, 가동률 및 재고 지수



주: 2005=100
자료: 일본 내각부.

- 2/4분기 광공업생산지수와 광공업가동률지수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7.0%, 10.4% 하락하여 2009년 4/4분기 수준으로 후퇴함.
 - 7월 들어서도 광공업생산지수와 광공업가동률지수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7%, 1.8% 하락하는데 그침.
- 2/4분기 출하대비 재고지수는 119.1을 기록하여 1/4분기(106.9)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7월에는 116.0으로 하락함.

라. 중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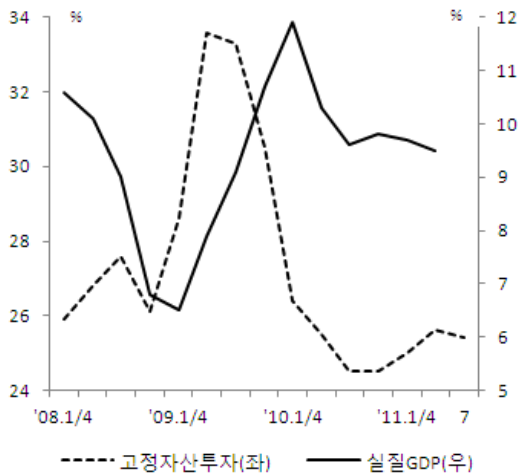
2011년 2/4분기 중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로 해외수요가 감소하고,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통화긴축으로 소비 둔화가 나타났으나, 투자가 버팀목이 되면서 9%대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중국의 2/4분기 실질 GDP는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5%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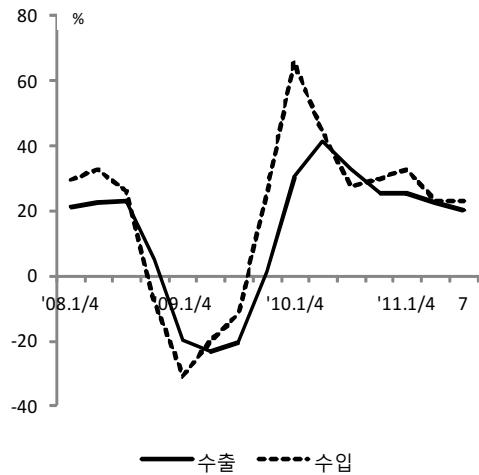
- 2/4분기 실질GDP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물가안정과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통화긴축정책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하락(5.9%p → 4.6%p, 누적기준)함.
- 2/4분기 투자의 기여도는 전분기보다 상승(4.3%p → 5.9%p, 누적기준)함.
 - 고정자산투자(누적기준) 증가율은 1/4분기 25.0%에서 25.6%로 높아짐.
- 반면, 순수출은 세계경기 둔화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질 GDP 기여도(-0.5%p → -1.0%p)는 전분기대비 감소함.

〈그림 18〉 실질 GDP와 고정자산투자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19〉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IMF⁷⁾는 세계경기 둔화, 중국 정부의 통화긴축정책 등으로 2011년 중국 경제는 다소 둔화 되겠지만 둔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IMF는 201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6월) 보다 0.1%p 하락한 9.5%로 전망하였고,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5%p 하락한 9.0%로 전망함.

○ IMF는 지방정부의 대규모 공공건설과 신흥국의 수요증가가 대내외 수요 감소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통화긴축정책을 중지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재정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함.

〈표 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09	2010				2011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질 GDP(%) ²⁾	10.3	10.7	11.9	10.3	9.6	9.8	9.7	9.5	-	-
고정자산투자 ¹⁾ (%)	24.5	30.5	26.4	25.5	24.5	24.5	25.0	25.6	25.4	25.0
수출 증가율(%)	32.3	0.9	30.3	41.0	32.5	25.2	25.3	22.4	20.4	24.5
수입 증가율(%)	14.6	25.4	65.4	44.0	27.3	29.5	32.6	23.2	22.9	30.2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0.7	2.2	2.9	3.5	4.7	5.1	5.7	6.5	6.2
생산자물가 상승률(%)	5.5	-2.1	5.2	6.8	4.5	5.7	7.0	6.9	7.5	7.3
소매판매 증가율(%)	18.4	16.5	18.4	18.5	18.4	18.8	16.3	17.2	17.2	17.0
소비자신뢰지수	105.5	103.9	105.6	107.7	106.4	102.4	102.4	106.8	105.6	-
산업생산 증가율(%)	14.5	17.9	19.8	16.0	13.5	13.3	14.9	13.9	14.0	13.5
구매자관리지수 ³⁾	53.8	55.7	54.3	53.9	52.2	54.6	52.8	51.9	50.7	50.9

주: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7) IMF(2011. 9), *World Economic Outlook*.

〈물가〉

■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과 비식료품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함.

○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11.0%→12.5%), 의류(0.3%→1.8%), 담배 및 주류(1.9%→2.6%)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6%p 높은 5.7%를 기록함.

-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산물 공급 차질이 식료품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비식료품가격의 경우 임금비용 상승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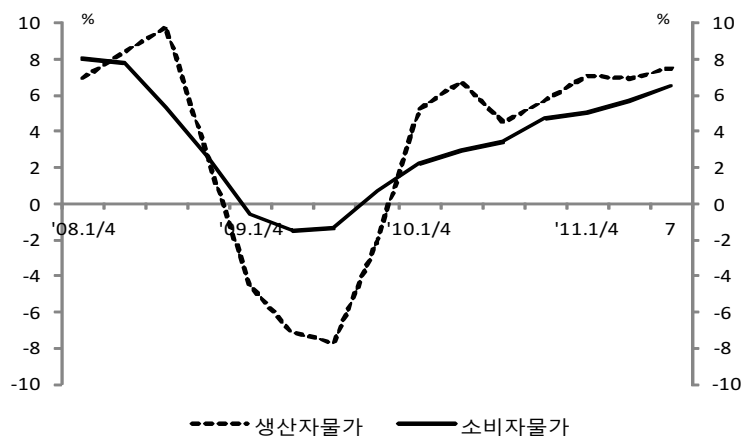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개월 만에 가장 높은 6.5%에 달하였으나, 8월에는 6.2%로 다소 누그러짐.

■ 2/4분기 생산자물가는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 감소로 전분기대비 0.1%p 낮아진 6.9% 상승함.

○ 2/4분기 중 일부 원자재가격은 상승했으나 일부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면서 원자재가격의 생산자물가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됨.

- 연료 및 전력(9.2% → 11.8%), 화학제품 원자재(11.8% → 12.9%) 가격은 전분기대비 상승했으나, 철광가격(14.8% → 9.7%)은 하락함.

〈그림 20〉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주: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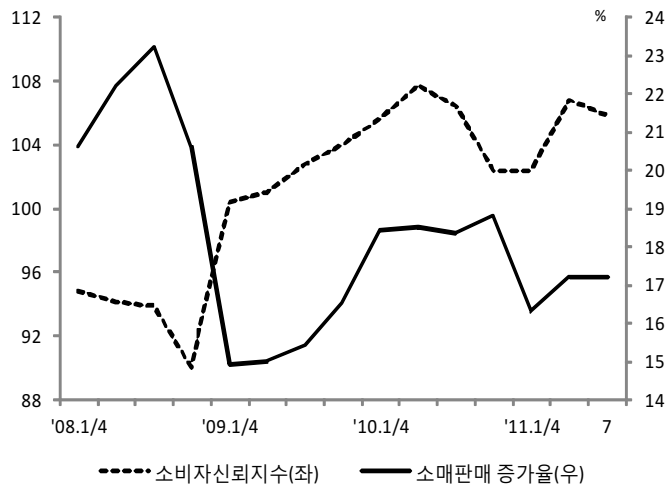
〈내수부문〉

■ 2/4분기 소매판매는 소득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 방지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17.2%)은 소득수준 개선⁸⁾의 효과가 통화긴축 및 소비진작 정책효과 소진과 상호 상쇄되면서 전분기보다 0.9%p 높아짐.

○ 1/4분기에 102.4를 기록한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에는 106.8로 상승했으나, 7월에는 105.6으로 하락함.

〈그림 21〉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투자 증가율은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에 힘입어 둔화되었으며,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대체적으로 낮아짐.

○ 2/4분기 전년동기대비(누적기준) 주택착공투자 증가율은 26.8%로 전분기 보다 4.2%p 감소하였으며 7~8월에는 26%대로 둔화됨.

8) 2010년에 전년동기대비 11.3%, 13.1% 증가한 도시 및 농촌의 명목가계소득은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누적기준) 각각 13.2%, 20.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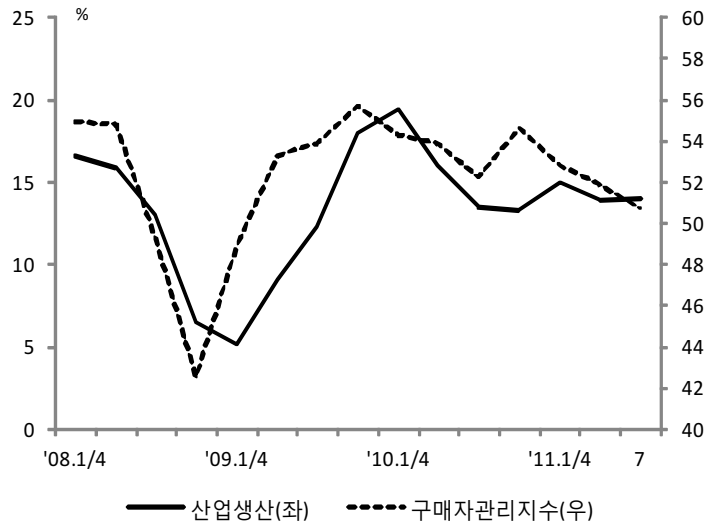
- 2/4분기 중 베이징(6.2%→2.4%), 상하이(1.8%→1.6%), 선전(3.1%→3.8%) 등 주요 대도시의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비상업용) 상승률은 대체적으로 낮아짐.
- 주택경기 둔화는 정부의 통화긴축정책⁹⁾과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¹⁰⁾에 기인함.

〈생산부문〉

■ 2/4분기 산업생산은 일본지진과 전력 단전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분기대비 다소 둔화됨.

-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력 단전으로 인한 생산 차질 지속되면서 전분기대비 1.0%p 감소(14.9% → 13.9%)함.
- 일본지진으로 인한 부품수입 차질의 영향은 점차 완화되었으나, 전력 단전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4~5월의 제조업부문 생산에 영향을 미침.

〈그림 22〉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



주: 구매자관리지수 기준=50,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9) M2의 증가율은 1/4분기 16.5%에서 2/4분기 15.4%로 하락함.

10)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은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였고, 베이징과 광저우는 주택 매입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대책을 강화함.

■ 2/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¹¹⁾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며 8월에는 경기침체의 기준이 되는 50에 근접함.

○ 2/4분기 PMI(52.8 → 51.9)는 전분기보다 0.8p 감소했으며 8월에는 50.9까지 하락함.

-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정부의 금융긴축정책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 전력공급 차질에 기인함.
- 2/4분기 중 국내 신규주문(54.8 → 52.2), 수출주문(51.4 → 51.0), 부품구매(55.4 → 53.0)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며, 8월에는 각각 51.1, 48.3, 51.2로 낮아짐.

11)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1년 2/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8%p 하락한 3.4% 성장함.

- 2011년 2/4분기 실질 GDP는 1/4분기에 이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였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어 1/4분기보다 0.8%p 하락한 3.4% 성장함.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이 개선되었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하락이 지속되면서 3.0% 증가에 그침.
 -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한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면서 7.5% 증가에 머물렀으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부진해지면서 6.8% 감소함.
 - 2/4분기 재화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선박,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11.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10.1% 늘어남.

〈표 9〉 실질 GDP와 지출 항목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0.2	8.5 (2.1)	7.5 (1.4)	4.4 (0.6)	4.7 (0.5)	6.2	4.2 (1.3)	3.4 (0.9)
- 민간소비	0.2	6.6	3.5	3.6	2.9	4.1	2.8	3.0
- 설비투자	-9.1	29.1	30.5	26.6	15.9	25.0	11.7	7.5
- 건설투자	4.4	4.3	-2.3	-3.1	-2.9	-1.4	-11.9	-6.8
- 재화수출 ³⁾	0.0	20.8	14.7	11.6	16.9	15.8	18.7	11.5
- 재화수입 ³⁾	-7.9	21.6	20.4	16.0	15.5	18.2	13.7	10.1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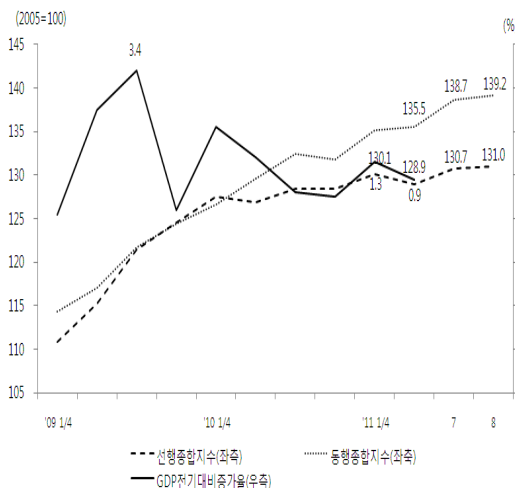
3) F.O.B(본선인도가격)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8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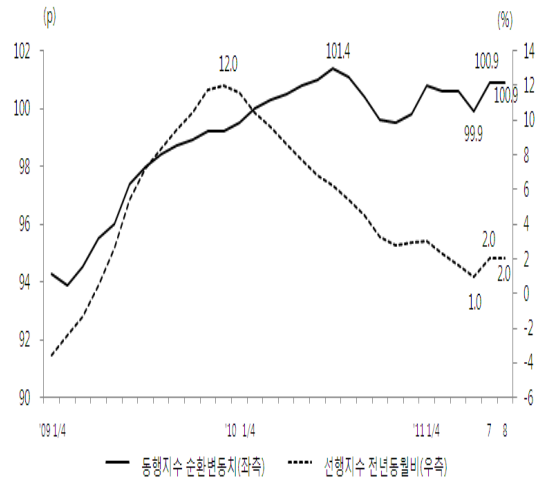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는 8월 말 139.2를 기록하면서 전월 138.7에 비해 0.5p 상승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100.9를 나타냄.
- 8월 말 경기선행지수는 전월에 비해 0.3p 상승한 131.0로 나타났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2.0%를 기록함.

〈그림 23〉 GDP와 경기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4〉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7~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평균 5.3% 상승함.

-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는 2/4분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17.5% 늘어났으며, 7~8월에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수요 증가로 평균 12.4% 성장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했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3.9%, 4.0% 늘어남.
-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2/4분기에 0.4% 감소하였으나, 7월에 2.2% 증가로 반전되었고, 8월에는 2.5%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10〉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매 판매	9.7	4.9	7.5	5.1	6.6	5.1	5.7	5.3	5.2
- 내구재	29.6	5.6	17.0	10.6	14.9	12.9	17.5	12.6	12.2
* 승용차	48.9	-2.1	12.0	0.1	11.1	10.2	13.0	10.8	7.1
- 준내구재	2.5	6.2	6.6	11.1	6.8	6.1	5.6	3.9	4.0
- 비내구재	3.2	3.3	3.0	-0.7	2.2	0.8	-0.4	2.2	2.5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2/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등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8% 상승하였으며,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11.5% 증가하였음.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2/4분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였으나, 7월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2.5% 감소하였고, 8월에는 6.0% 감소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됨.
- 운송장비의 경우 2/4분기 동안 5.7% 감소한 것에 이어서 7월에도 기타 운송장비 등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음에 따라서 4.2%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10.6% 증가로 대폭 반전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2/4분기에 11.5% 증가하였으며, 7월에는 공공부문에서 통신기계, 정밀측정제어기기 등과 민간부문에서 특수산업용기계, 금속공작기계 등의 발주가 줄어들면서 2.4%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원동기 및 발전기 등의 발주가 대폭 늘어나면서 47.8% 증가로 반전됨.

〈표 11〉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지수	30.0	29.5	29.3	13.6	25.1	6.6	4.8	-2.8	-3.7
- 기계류	32.5	37.1	37.4	17.1	30.5	6.8	7.0	-2.5	-6.0
- 운송장비	19.3	2.8	-0.1	-1.2	4.3	5.6	-5.7	-4.2	10.6
- 기계수주	6.5	19.5	-4.6	16.3	8.9	20.9	11.5	-2.4	47.8
건설투자	4.3	-2.3	-3.1	-2.9	-1.4	-11.9	-6.8	-	-
- 건설기성	6.3	2.0	-0.4	3.3	2.7	-6.2	-0.8	-8.8	-3.2
건축	4.4	-1.9	-6.4	-1.4	-1.6	-9.3	-2.9	-8.9	-4.9
토목	9.0	7.5	9.2	9.4	8.8	-2.0	2.0	-8.8	-1.0
- 국내건설수주	-1.6	-6.7	-3.6	-40.2	-18.7	-12.8	-3.3	-34.6	75.4
건축	8.3	55.3	-1.3	-46.4	-9.9	-9.7	-4.0	-41.8	87.7
토목	-12.4	-49.7	-7.0	-29.9	-29.5	-17.0	-1.5	-26.7	50.7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2/4분기의 건설기성은 민간부분의 실적이 줄어들면서 0.8% 감소하였으며,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분의 건축 및 토목공사의 발주 감소로 3.3% 줄어듦.
- 7~8월 건설기성은 공공 및 민간부분의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감소하면서 2/4분기 보다 5.2%p 하락한 평균 6.0%의 감소율을 나타냄.
 - 건설기성 발주자별로는 2/4분기에 공공부분이 1.9% 증가한 반면 민간부분은 5.3% 감소하였으며, 7~8월에는 공공부분(-3.5%)과 민간부분(-7.2%)의 평균 실적이 모두 감소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7월에 공공부분의 건축과 토목공사가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2/4분기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34.6%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8월 들어서 민간부분의 건축과 토목공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75.4% 증가함.
 - 7~8월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분이 평균 21.0% 감소한 반면 민간부분은 평균 48.3%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부분은 8월에만 103.9% 증가하여 호조세를 나타냄.

〈대외거래〉

■ 2011년 8월에 수출(확정치)은 25.9%, 수입은 28.9% 증가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은 승용차(33.7%), 선박(79.9%), 석유제품(82.7%), 자동차부품(31.0%) 등에서 호조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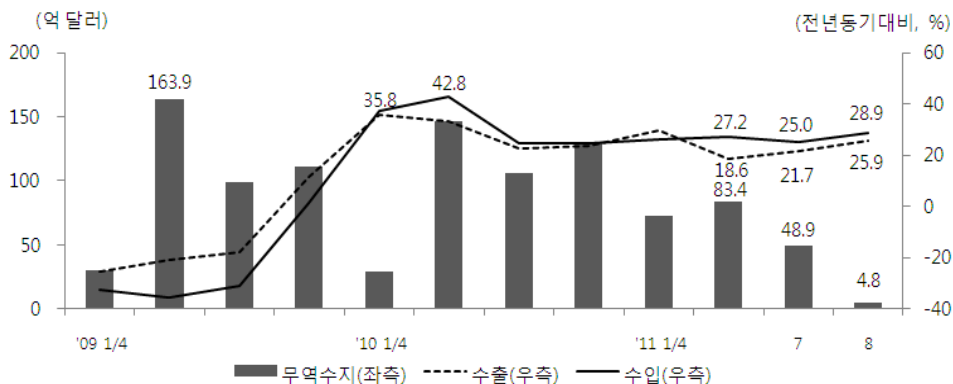
○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원유(45.8%)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무선통신기기(80.9%), 소맥(179.1%), 돼지고기(104.6%) 수입도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1년 8월에 지역별 수출입은 중국, 일본, EU 등의 수출 증가세는 견조하나 미국, 중남미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중동, 중남미,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자원국 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됨.

○ 지역별 수출은 미국(6.9%), 중국(21.2%), EU(12.0%)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본(44.9%)의 수출 증가세가 높게 지속됨.

○ 지역별 수입은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중남미(24.8%), 중동(49.3%), 캐나다(101.1%) 등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중국(30.3%), 미국(33.8%), EU(17.1%), 일본(10.6%) 등의 수입도 증가함.

〈그림 25〉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기준).

〈산업생산〉

■ 2011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전기장비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7.4%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2011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33.8%), 기계장비(12.2%), 자동차(12.1%) 등의 호조로 7.4%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3.9%, 4.9% 늘어남.
-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4.2%), 금융 및 보험업(12.8%), 도매 및 소매업(5.6%) 등의 호조에 따라 4.1%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4.6%, 5.8%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표 12〉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광공업	26.4	19.3	11.0	12.0	16.6	10.8	7.4	4.0	4.9
- 제조업	26.6	19.3	11.2	12.0	16.7	10.9	7.4	3.9	4.9
- 자동차	48.8	32.1	11.3	10.2	23.1	16.1	12.1	12.0	23.6
- ICT	45.9	26.7	19.1	15.2	25.2	14.3	10.5	3.6	2.8
서비스업	6.2	4.2	2.3	3.2	3.9	2.7	4.1	4.6	5.8
- 도매 및 소매업	7.4	5.6	5.0	4.7	5.7	4.0	5.6	3.6	5.2
- 운수업	14.1	14.3	10.1	10.0	12.0	7.2	4.2	5.1	5.6
- 숙박 및 음식점업	1.2	0.7	1.3	1.7	1.2	-0.6	2.0	2.8	1.0
- 금융 및 보험업	6.7	2.5	1.4	8.2	4.6	7.2	12.8	12.2	16.6
- 부동산 및 임대업	11.5	-2.4	-15.9	-24.2	-8.6	-17.7	-12.1	-3.4	-3.3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1년 3/4분기 동안 소비자물가는 4%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고용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2/4분기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흑자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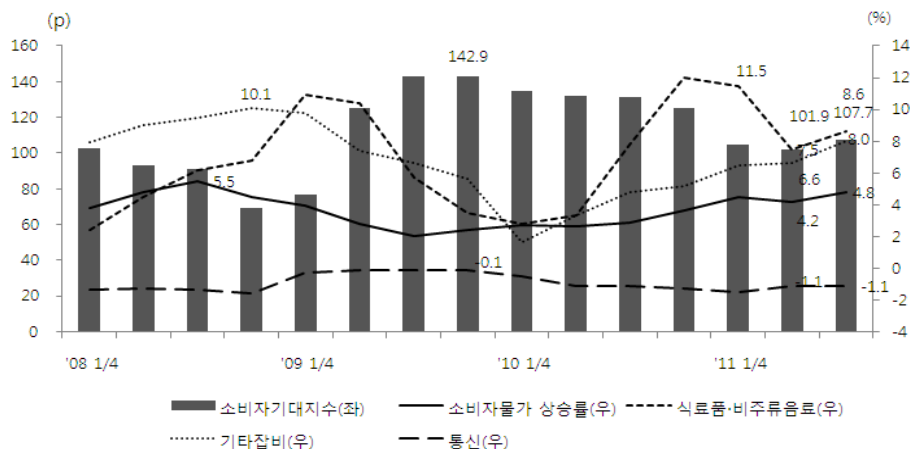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에 소비자물가는 교통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의 물가상승으로 전기보다 0.6%p 높아진 4.8%의 상승률을 나타냄.

○ 3/4분기 동안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8.6%, 주류 및 담배는 1.3%, 의복 및 신발은 3.2%, 주거 및 수도광열은 5.2%,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은 4.4%, 교통은 7.9%, 기타잡비는 8.0%, 통신은 -1.1% 등으로 나타남.

■ 2011년 3/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형성되면서 2/4분기보다 높아짐.

○ 2/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분기대비 3.1p 하락한 101.9를 나타냈으며, 3/4분기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반영되면서 전분기대비 5.8p 상승한 107.7을 기록함.

〈그림 26〉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11년 2/4분기부터 지속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에 힘입어 7~8월 기간 중에도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2011년 2/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1.4%, 2.0% 늘어남.

- 청년 취업자 수는 2/4분기에 3.4% 감소하였으나, 7월과 8월 각각 1.1%, 1.0% 증가함.

○ 2/4분기 고용률은 59.9%를 나타냈고, 7월 60.0%, 8월 59.6%를 기록함.

○ 실업률은 2/4분기에 3.4%를 나타냈고, 7월 3.3%, 8월 3.0%를 기록하면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2/4분기 이후 7~8월 기간에도 서비스업 고용 증대가 지속되면서 고용환경이 꾸준히 개선됨.

- 청년실업률도 2/4분기에 7.9%를 나타낸 후 7월 7.6%, 8월 6.3%로 꾸준히 하락함.

■ 7~8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광공업 부문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 2/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했으나, 7월 3.1%, 8월 2.2% 감소함.

○ 2/4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으나, 7월에 0.9%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8월에는 0.9% 감소세로 반전됨.

○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하여 2/4분기에 이어서 7~8월 기간에도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평균 2.5% 증가함.

-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것에 이어서 7월과 8월에도 각각 3.1%, 0.1% 감소함.

〈표 13〉 고용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0.6	1.8	1.6	1.5	1.4	1.8	1.7	1.4	2.0
- 청년취업자	-0.3	-1.4	-1.1	-1.5	-1.1	-1.2	-1.9	1.1	1.0
고용률	57.0	59.6	59.3	58.9	58.7	57.4	59.9	60.0	59.6
실업률	4.7	3.5	3.5	3.3	3.7	4.2	3.4	3.3	3.0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1.7	-4.6	-2.5	-2.2	-5.0	-2.3	0.2	-3.1	-2.2
광공업	1.6	4.4	6.8	6.9	4.9	5.8	2.7	0.9	-0.9
- 제조업	1.6	4.5	6.9	7.0	5.0	5.8	2.8	1.0	-0.7
SOC 및 기타서비스업	1.3	1.9	0.9	0.7	1.2	1.2	1.6	1.9	3.1
- 건설업	-3.6	2.5	5.4	3.3	1.9	-0.2	-2.3	-3.1	-0.1
- 도소매음식숙박	-1.0	-1.3	-1.2	-1.3	-1.2	-1.1	-0.1	0.5	1.6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1	2.4	2.3	1.9	2.7	1.6	3.6	6.9	6.7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2	3.9	0.9	1.0	2.2	3.0	2.8	2.3	3.5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1년 2/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증가세를 나타냄.

○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5만 9,77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했으며 실질소득의 경우도 0.9%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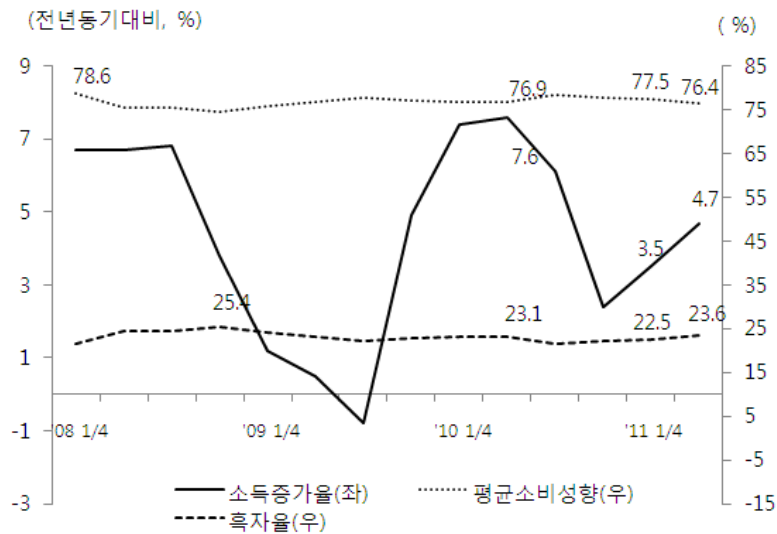
- 경상소득은 5.1% 증가했고 비경상소득도 7.7% 늘어났으며, 경상소득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5.4%, 사업소득이 3.2%, 재산소득이 4.0%, 이전소득이 7.2% 증가함.

○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만 5,85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였고, 실질소비지출도 1.7% 늘어남.

- 세부항목별로는 교통(12.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0%), 식료품·비주류음료(9.6%) 등의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짐.

- 2/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64만 3,849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61만 7,999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늘어남.
- 2/4분기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이 76.4%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도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그림 27〉 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흑자율=1 - 평균소비성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3/4분기 초 국고채금리는 국내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상승했으나, 그 이후 기준금리가 세계경기 둔화로 동결되고, 안전자산이 선호되면서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시현함.

■ 3/4분기 기준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불안 확산으로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서 3.25%에서 동결됨.

-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수급 악화로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래 최고치에 도달함.
- 세계경제의 경우 주요국 경기의 둔화 지속 가능성, 유럽국가의 채무문제 확산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증대됨.
- 당국은 물가불안이 우려되나, 세계경기 둔화 및 글로벌 금융불안 확산으로 인해 기준 금리를 3.25%에 동결함.

■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는 3/4분기 초중반에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후반에는 국내경기 침체 우려 대두로 하락 압력이 증가함.

- 국고채 금리는 7월 중 유럽과 미국의 재정문제의 경과에 따라 등락을 반복함.
 - 남유럽 재정위기 진정 가능성으로¹²⁾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금리가 상승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¹³⁾ 반락하였고, 이후 유럽 재정위기 해결 조짐을 보이면서 반등함.
- 8월에 다시 미국 경기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 확산¹⁴⁾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국채 투자수요¹⁵⁾ 증가로 금리가 하락세를 보임.

12) 그리스의 긴축안 통과와 유로지역의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결정.

13) 민간은행들이 그리스 구채를 조기상환을 요구하면서 이탈리아로 재정위기가 전파될 조짐을 보이고 미국의 채무상향조정이 난항을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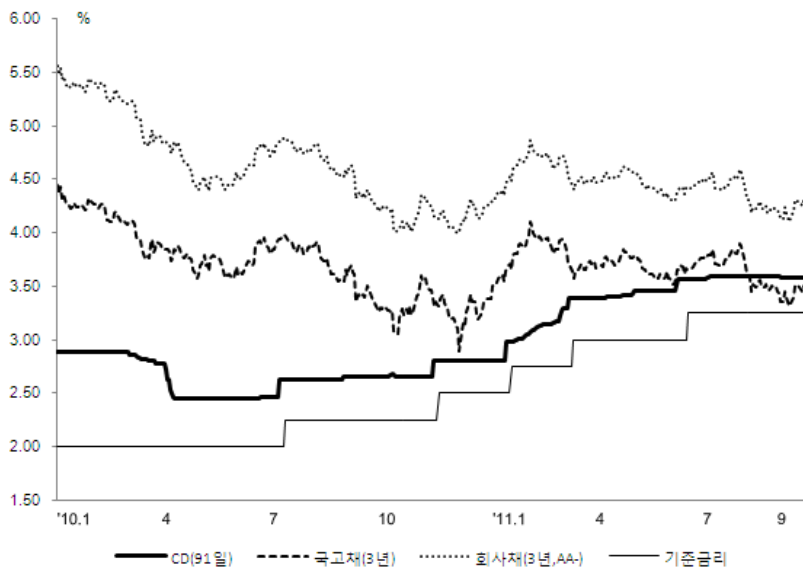
14)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유로존 정책공조 난항과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위기 전이 가능성 부각.

- 9월 중 국고채 금리는 국내경기 침체 우려, 미국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압력이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금리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폭이 제한되었고, 월말에는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이탈 우려로 소폭 상승함.

■ 8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와 국고채(3년) 금리 역전은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AA-, 3년)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는 8월 들어 국고채(3년) 금리를 상회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대두되었고, 9월 말에는 국고채 금리를 소폭 상승시킴.
-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8월 기준금리 동결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금리가 역전됨.

〈그림 28〉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환율〉

원/달러 환율은 3/4분기 초 달러 약세와 무역흑자 지속으로 강세로 출발했으나, 후반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외국인 자금이탈이 발생하면서 약세로 전환됨. 엔/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강세를 시현함.

■ 3/4분기 초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와 무역흑자 지속으로 1,05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으로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분기 말에는 1,180원대까지 상승함.

○ 7월 중 원/달러 환율은 양호한 펀더멘탈¹⁶⁾과 대외 요인¹⁷⁾에 의한 달러 약세로 강세를 보이면서 1,050~1,060원대에서 움직임.

○ 8월 중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 전이 위험,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한때¹⁸⁾ 1,090원대까지 반등함.

○ 9월에는 그리스 디폴트, 유로존 은행권 달러 경색 우려 대두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함.

- 외환당국의 대규모 달러 매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는 상승세를 지속함.

■ 3/4분기 중 엔/달러 환율은 그리스 디폴트 위험 증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세계경기 둔화 등 경제적 이슈가 연이어 등장할 때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증가로 하락함.

○ 엔/달러 환율은 7~8월 초 기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미국경기 둔화로 하반기 엔화 약세 전망¹⁹⁾이 붕괴되면서 77엔까지 하락함.

○ 8월 초 일본 외환당국의 대규모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9월 중에는 76엔대에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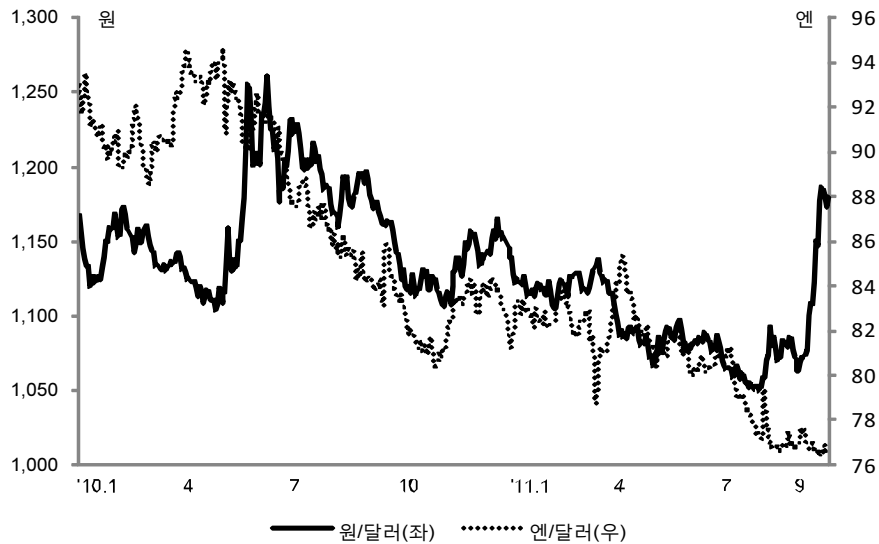
16)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따른 환율하락 용인.

17)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 방안 합의, 미국의 국가부채한도 증액협상 난항.

18) 2011년 8월 10일.

19) 미 연준의 국채매입이 끝나는 7월부터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미국 경기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짐.

〈그림 29〉 환율변동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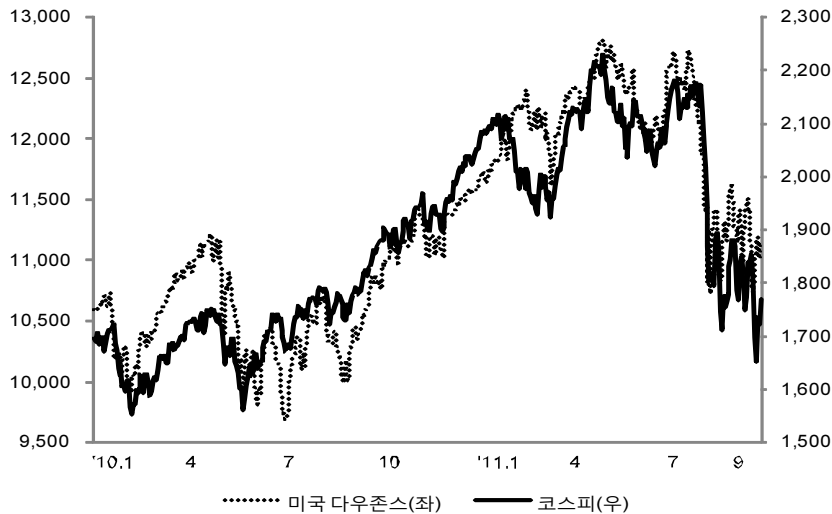
3/4분기 초반 국내증시는 조정 과정을 거친 후 중후반부터 대외 악재 대두로 투자심리가 후퇴하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시현함.

- 코스피지수는 3/4분기 초반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2,150선에서 움직였으나, 중후반 유럽재정위기 확산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증가하면서 한때 1,711까지 하락함.
 - 7월 중 코스피지수는 유럽 재정위기 불안과 대처방안이 연이어 대두되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지속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전월대비 3.5% 상승한 2,150을 기록함.
 - 같은 기간 중 미국의 다우존스지수 역시 전월대비 3.5% 상승함.
 - 8월 중 코스피지수는 세계경기 침체 우려, 외국인 순매도 증가, 유로존 은행권 자금경색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월 평균 대비 295p 하락한 1,855를 기록함.
 - 같은 기간 중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9.9% 하락하고 코스피지수는 13.7% 하락함.

○ 9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글로벌 증시 호조, 외국인 순매수 증가 등으로 코스피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월대비 63p 하락함.

- 9월 중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0.7% 하락한데 반해 코스피지수는 3.4% 하락함.

〈그림 3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2011년 2/4분기 보험권의 순수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신 호조로 전분기대비 증가했으나, 은행권은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축소되었고 증권, 투신, 종금의 순수신은 감소세를 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CY 기준) 보험권의 순수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순수신이 전분기(또는 전년 동기)대비 늘어나 증가함.

○ 2/4분기 생명보험의 순수신은 수신 호조²⁰⁾로 전분기(또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의 순수신은 모든 종목에 걸친 수신²¹⁾ 증가에 힘입어 늘어남.

■ 2/4분기 중 은행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축소되었으며 증권, 투신, 종금의 순수신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은행신탁 수탁고가 부진해졌고, 은행의 장기채 발행 선호로 CD 순발행액이 감소세를 유지하여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축소됨.
- 증권사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증가로 고객예탁금이 줄어들면서 순수신이 감소함.
- 투신권에서는 안전자산인 채권형펀드 수탁고는 증가했으나, MMF의 수탁고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 순수신은 감소함.
- 종금사는 발행어음과 기업어음 발행 여건의 악화로 수신이 각각 39,280억 원, 6,439억 원 감소함으로써 순수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14〉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100,434	112,581	90,965	113,206	106,839	97,513	95,956	109,637
- 생 보	71,883	84,809	65,558	79,340	80,183	68,578	64,883	78,241
- 손 보	28,551	27,772	25,407	33,866	26,655	28,935	31,073	31,396
은 행	282,694	121,671	217,133	265,044	33,397	274,211	201,600	145,827
- 일 반	282,430	102,900	176,891	247,333	44,878	150,020	123,112	162,787
- 신탁	264	18,771	40,242	17,711	-11,481	124,191	78,488	-16,960
증 권	33,892	-44,842	45,027	15,820	-7,803	18,619	34,410	-33,405
투 신	- 282,355	- 140,750	107,354	-83,616	-78,660	-111,569	-131,059	-10,171
종 금	-76,105	-7,191	38,000	-22,687	-13,827	9,480	-10,921	-40,343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20)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함.

21)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1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고르게 성장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한 35조 1,340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 증가율은 소폭 하락함.

- FY2011 1/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증가율 둔화 속에 단체보험이 고성장하면서 9.5% 증가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 보험을 비롯한 전 종목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16.5% 증가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8.6	4.6	9.8	7.1	4.4	10.8	7.9	9.5
손해보험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9.4	16.9	20.8	16.5	21.8	17.5	19.2	16.5
합 계	304,481	1,207,891	313,231	314,552	379,739	344,996	1,352,518	351,340
	12.4	8.8	13.8	10.6	10.5	13.3	12.0	12.2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1 1/4분기 말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생명보험의 총자산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의 총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3.7% 늘어난 538조 원을 기록함.

■ FY2011 1/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손해보험의 총자산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분기대비 3.7% 증가함.

○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운용자산의 증가에도 특별계정 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2.0% 늘어나는데 그침.

○ 반면,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 모두가 크게 늘면서 전분기대비 10.3%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373	373	381	397	408	417	417	425
	3.1	13.5	2.5	4.1	2.8	2.0	11.8	2.0
손해보험	86	86	90	94	99	102	102	113
	3.8	16.4	4.8	4.7	4.8	3.3	18.7	10.3
합계	459	459	471	491	507	519	519	538
	3.4	14.2	2.7	4.2	3.2	2.3	13.0	3.7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1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한 3.6%를 기록함.

■ FY2011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함.

-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이익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크게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2.9%에 그침.
-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투자영업이익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9%p 상승한 5.9%에 달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1/4
생명보험	1.1	9.9	4.1	2.5	2.5	2.6	12.4	2.9
손해보험	2.3	13.9	4.0	2.2	1.1	3.5	11.3	5.9
합계	1.4	10.9	4.1	2.4	2.2	2.8	12.1	3.6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22개,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당분기 당기순이익/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누적 당기순이익/(전회계년도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의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5% 늘어난 21조 617억 원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이 고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의 증가율이 기저효과로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6.4%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59.9% 증가함.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운용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2.0%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FY2011 1/4분기 주식시장이 정체를 나타내면서 운용자산 중 주식 자산과 특별계정 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8.6	4.6	9.8	7.1	4.4	10.8	7.9	9.5	
총 자산	3,725,247	3,725,247	3,816,622	3,974,875	4,084,952	4,166,520	4,166,520	4,250,375	
	3.1	13.5	2.5	4.1	2.8	2.0	11.8	2.0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은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1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세가 기저효과로 인해 둔화되면서 6.4% 증가에 그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종신보험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0.3% 감소에 그침.

-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신상품의 마케팅 강화로 FY2010 4/4분기에 이어 10%대의 증가율을 지속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0 1/4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1.5% 늘어나는데 그침.

- FY2010 1/4분기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상품의 상대적 고금리 등으로 17.2%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바 있음.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상승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의 상대적인 금리경쟁력이 약화되면서 13.1% 증가에 그쳤으며, 20%를 상회하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6분기 만에 10%대 수준으로 하락함.

- 한국은행은 3월 1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대체상품으로 인식되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냄.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17.8% 증가함.

- FY2011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2106.70에서 2100.69로 거의 변동하지 않았으나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6%, 16.4% 증가함.

■ FY2011 1/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신규가입 증가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59.9% 늘어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206.3% 증가한 반면, 일반단체보험은 1.6% 감소하였으며, 2010년 12월 말 제도가 종료된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92.8% 감소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40,908	153,119	40,313	41,775	44,312	44,496	170,897	40,937
	증가율	14.1	8.8	17.2	12.9	8.6	8.8	11.6	1.5
	구성비	21.4	19.9	21.0	21.7	19.0	21.0	20.6	19.4
사망	보험료	72,330	289,498	71,767	71,868	71,895	71,632	287,162	71,520
	증가율	-0.1	-1.7	-0.2	-1.1	-1.0	-1.0	-0.8	-0.3
	구성비	37.8	37.6	37.3	37.4	30.8	33.8	34.6	34.0
생사 혼합	보험료	23,387	82,052	24,183	24,875	27,370	28,786	105,215	27,350
	증가율	20.1	23.6	33.6	28.7	28.8	23.1	28.2	13.1
	구성비	12.2	10.7	12.6	12.9	11.7	13.6	12.7	13.0
변액 보험	보험료	44,522	171,882	44,983	45,598	50,600	52,949	194,130	52,972
	증가율	10.4	-2.3	10.0	8.3	14.0	18.9	12.9	17.8
	구성비	23.3	22.3	23.4	23.7	21.7	25.0	23.4	25.2
개인계	보험료	181,145	696,551	181,247	184,116	194,177	197,863	757,403	192,778
	증가율	7.8	2.8	9.7	7.6	8.4	9.2	8.7	6.4
	구성비	94.6	90.5	94.2	95.8	83.2	93.3	91.2	91.5
단체	보험료	10,277	73,017	11,156	8,033	39,241	14,242	72,672	17,839
	증가율	23.8	25.7	12.6	-3.1	-11.9	38.6	-0.5	59.9
	구성비	5.4	9.5	5.8	4.2	16.8	6.7	8.8	8.5
합계	보험료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증가율	8.6	4.6	9.8	7.1	4.4	10.8	7.9	9.5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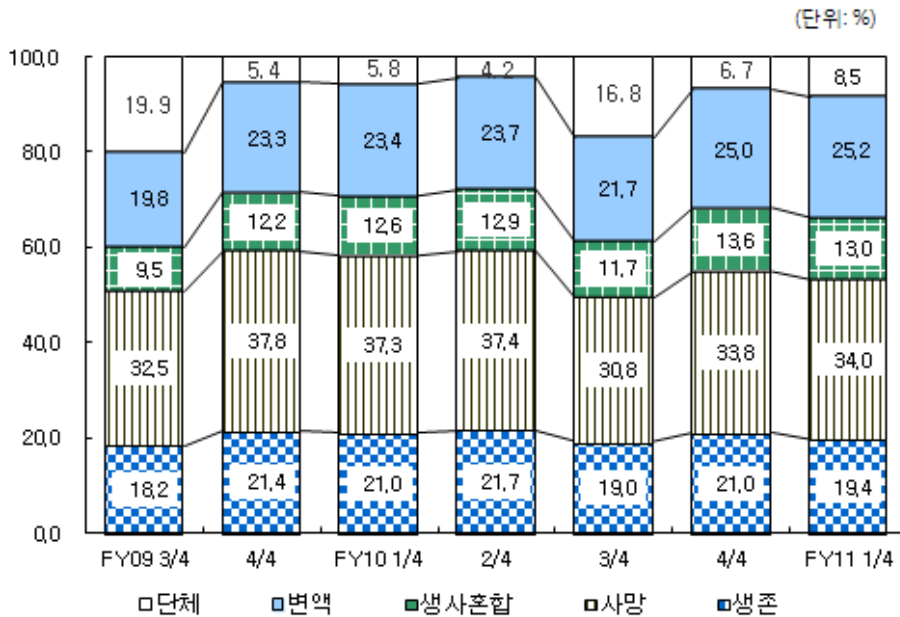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전년동기대비 사망, 생존보험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은 증가함.

- 마이너스 증가를 지속 중인 사망보험의 비중은 3.3%p 감소한 34.0%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생존보험의 비중도 1.6%p 감소한 19.4%로 나타남.
-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4%p, 1.8%p 증가한 13.0%와 25.2%로 나타났으며, 단체보험 비중은 퇴직연금 고성장의 영향으로 2.7%p 증가한 8.5%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1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국내중소형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27.3%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점유율도 상위3사의 비중이 높은 단체보험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52.7%를 기록함.
 - 전분기대비로는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상승함.
- 외국사의 점유율은 1.0%p 하락한 20.3%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함.

■ FY2011 1/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033 증가한 0.1219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3개사	51.8	54.1	52.3	51.7	54.1	51.0	52.3	52.7
국내중소형사	26.3	24.8	26.4	26.6	27.3	28.2	26.9	27.3
외 국 사	21.9	21.1	21.3	21.7	18.5	21.2	20.8	20.3
허핀달지수	0.1172	0.1263	0.1186	0.1165	0.1253	0.1141	0.1186	0.1219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1년 6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1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 중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지급률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1%p 높아진 62.9%로 나타남.

- 생존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생존급여금 증가로 3.5%p 상승한 54.5%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 지급률은 해약환급금 증가로 5.8%p 상승한 63.3%로 나타남.
- 사망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감소와 사망급여 및 입원급여 지급금 증가로 0.2%p 상승한 50.4%로 나타났고,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만기도래 감소로 4.9%p 하락한 44.8%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줄어든 16.5%로 나타났으며, 해지율도 0.2%p 감소한 2.8%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 지급률	65.8	61.6	58.8	58.3	70.6	69.4	64.7	62.9
개 인 계	56.5	55.4	52.1	54.0	62.8	57.8	56.8	54.0
- 생 존	54.0	55.6	51.0	51.3	61.2	58.8	55.7	54.5
- 사 망	51.4	51.6	50.2	51.1	51.1	52.8	51.3	50.4
- 생사혼합	84.5	86.0	49.7	50.3	68.6	51.7	55.3	44.8
- 변 액	52.5	47.3	57.5	62.9	77.6	67.2	66.6	63.3
단 체	228.0	119.9	166.7	157.1	109.4	230.3	147.2	158.4
사 업 비 율	16.7	16.6	16.8	16.7	14.2	17.4	16.2	16.5
해 지 율	11.3	11.3	3.0	5.6	8.2	10.5	10.5	2.8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의 비중 증대로 최저보증준비금의 전입이 늘어나면서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5.1% 감소한 1조 906억 원을 기록함.

- 1/4분기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보험영업수익이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증가로 0.5% 증가하고, 보험영업비용이 사업비 감소로 2.3%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8% 늘어남.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수익이 이자수입 증가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증가로 2.7% 증가하고, 투자영업비용이 대손상각비 증가와 외화 관련 손실 증가로 6.7%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8% 늘어남.

〈표 8〉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수익	보험영업	146,566	562,962	143,720	146,201	149,339	151,443	590,702	144,384
	투자영업	46,808	185,863	51,080	38,169	47,279	54,683	195,936	52,471
	영업외	9,011	33,471	12,470	8,831	8,969	9,481	39,752	8,977
	소 계	202,384	782,296	207,269	193,202	205,587	215,606	826,390	205,831
총비용	보험영업	124,885	484,636	111,152	111,572	122,808	121,772	467,305	108,640
	투자영업	13,308	48,228	9,784	-3	6,776	7,313	28,596	10,439
	영업외	699	5,982	1,594	1,560	1,381	2,031	6,566	1,763
	소 계	138,892	538,846	122,531	113,130	130,965	131,115	502,466	120,842
수지차	보험영업	21,681	78,326	32,567	34,629	26,530	29,671	123,398	35,744
	투자영업	33,500	137,635	41,296	38,172	40,503	47,370	167,340	42,032
	영업외	8,312	27,489	10,876	7,271	7,588	7,450	33,186	7,213
	소 계	63,492	243,450	84,739	80,072	74,622	84,491	323,923	84,989
책임준비금전입		58,552	210,586	68,042	69,018	61,545	71,183	269,789	71,277
법 인 세		1,773	8,315	3,846	2,652	3,785	3,659	13,942	2,807
당기순이익		3,168	24,549	12,850	8,402	9,292	9,649	40,193	10,906

주: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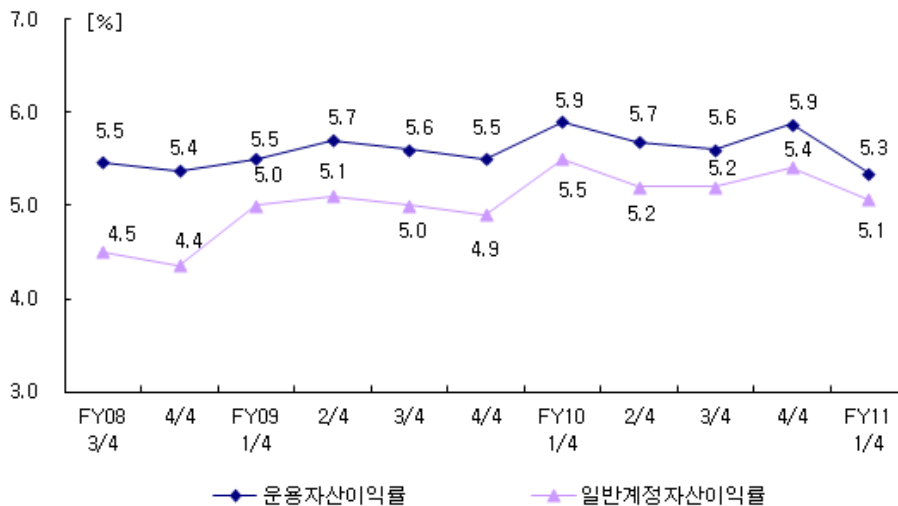
■ FY2011 1/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5.3%로 나타났으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5.1%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5.0%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식이익률이 하락에도 매도가능증권 수익증권 처분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부동산 이익률은 0.5%p 상승한 3.5%로 나타났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3.5%p 하락한 7.1%로 나타남.

■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투자비중은 유가증권 65.5%, 대출채권 19.4%, 현금과예금 4.0%, 부동산 3.8%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에 비해 대출채권, 부동산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현금과예금, 유가증권의 비중은 각각 0.7%p, 1.4%p 증가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 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3	3.2	3.4	3.1	3.7	3.1	3.5	3.6	4.0	3.2
유 가 증 권	64.1	4.7	64.8	4.9	65.0	5.0	65.7	5.4	65.5	5.0
○ 당기손익인식증권	1.7	2.0	1.3	3.4	1.1	3.1	1.2	3.1	1.9	2.5
- 주 식	0.0	-15.4	0.0	4.6	0.0	8.5	0.0	16.2	0.1	-1.8
- 채권 등	0.2	1.7	0.2	5.6	0.2	3.1	0.4	2.9	0.8	3.5
- 수익증권	1.5	2.1	1.1	3.0	0.9	3.0	0.8	3.0	1.0	2.2
○ 매도가능증권	48.4	4.6	49.3	4.8	49.2	4.9	49.5	5.4	49.8	5.1
- 주 식	4.6	0.8	4.6	1.9	5.4	1.5	5.3	2.0	4.8	1.7
- 채권 등	40.2	5.2	41.2	5.1	40.1	5.3	41.0	5.3	42.3	5.0
- 수익증권	3.5	2.6	3.5	4.4	3.7	4.7	3.1	12.7	2.7	12.2
○ 만기보유증권	13.1	5.5	13.3	5.3	13.7	5.3	14.1	5.3	12.8	5.2
- 채권 등	13.1	5.5	13.3	5.3	13.7	5.3	14.1	5.3	12.8	5.2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투자주식	0.9	7.3	0.9	6.9	0.9	12.5	0.9	10.5	1.1	3.6
대 출 채 권	20.7	10.6	20.3	9.1	20.1	8.4	19.9	8.2	19.4	7.1
부 동 산	3.9	3.0	3.7	3.0	3.7	3.1	3.6	3.0	3.8	3.5
운 용 자 산 계	92.0	5.9	92.3	5.7	92.4	5.6	92.7	5.9	92.6	5.3
비 운 용 자 산	8.0	0.3	7.7	-0.3	7.6	0.2	7.3	0.1	7.4	1.6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0.7)	5.5	100.0 (80.4)	5.2	100.0 (80.7)	5.2	100.0 (80.4)	5.4	100.0 (80.9)	5.1
특 별 계 정 자 산	19.3	3.6	19.6	8.5	19.3	9.5	19.6	8.7	19.1	1.2
총 자 산	100.0	5.1	100.0	5.8	100.0	6.0	100.0	6.0	100.0	4.3
총 자 산 규 모	3,816,622		3,974,875		4,084,952		4,166,524		4,250,375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변경함.

4) 투자주식은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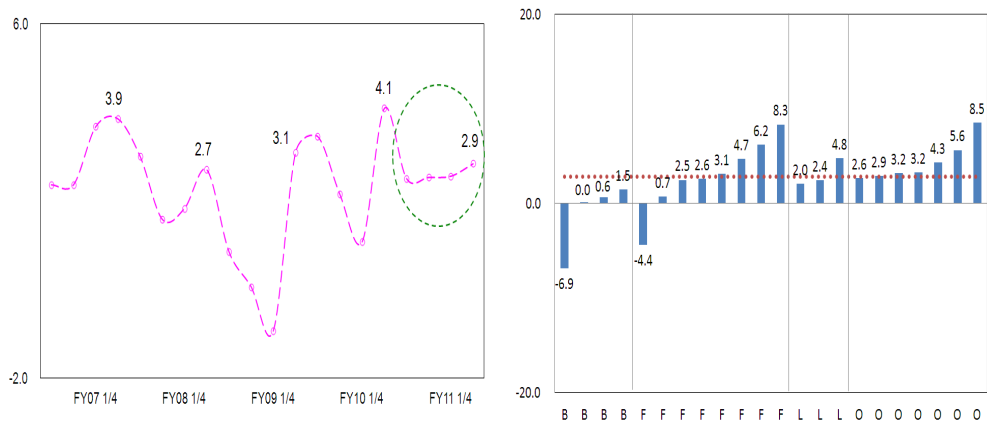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2.9%로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함.

-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외국사, 중소형사는 산업평균(2.9%) 수준을 상회한 반면, 모든 방카사는 산업평균을 하회함.

〈그림 3〉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을 회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이 4.4%로 전년동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등 총 22개 회사임.

- 중소형사의 경우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1.1%p, 전분기대비로도 3.1%p 개선됨.
-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3.1%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3%p 하락했으나, 전분기대비 1.0%p 상승한 수준임.
- 한편, 대형사와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각각 2.6%, -0.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9%p, 1.2%p 하락, 전분기대비로는 각각 0.5%p, 3.6%p 하락한 수치임.

〈표 10〉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대형사	2.3	11.0	4.5	2.8	2.5	3.1	13.6	2.6
중소형사	-8.1	0.1	3.3	0.1	1.9	0.3	5.7	4.4
외국사	2.5	12.9	3.4	3.1	3.6	2.1	13.1	3.1
방카사	1.3	4.4	0.4	0.4	-0.3	2.8	3.7	-0.8
전체	1.1	9.9	4.1	2.5	2.5	2.6	12.4	2.9

주: 1) 자본이익률=당분기 당기순이익/(전분기 자본+당분기 자본)*0.51

*당기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이익+특별계정이익-법인세비용

2) 자본이익률=누적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본+당분기 자본-누적 당기순이익)*0.5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전년동기대비 기준 FY2011 1/4분기 산업수준 자본이익률의 경우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모두 하락함에 따라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의 경우 중소형사만이 매출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자본이익률이 1.1%p 상승한 반면, 대형사, 외국사, 방카사는 매출이익률,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모든 비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이익률이 각각 1.9%p, 0.3%p, 1.2%p 하락함.
- 전분기대비 자본이익률의 경우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매출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자본이익률이 상승한 반면, 대형사와 방카사는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표 11〉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대형사	9.5	8.5	8.5	5.2	5.1	4.7	9.0	7.1	6.5
중소형사	13.1	12.4	12.5	9.2	9.3	8.7	2.7	0.3	4.1
외국사	7.9	7.5	7.5	7.8	7.2	6.8	5.5	3.9	6.2
방카사	15.0	11.3	11.0	13.7	9.7	9.6	0.2	2.5	-0.8
전 체	9.7	8.8	8.9	6.4	6.2	5.8	6.6	4.7	5.6

주: 1) 레버리지비율=기중자산/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영업수익/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당기순이익/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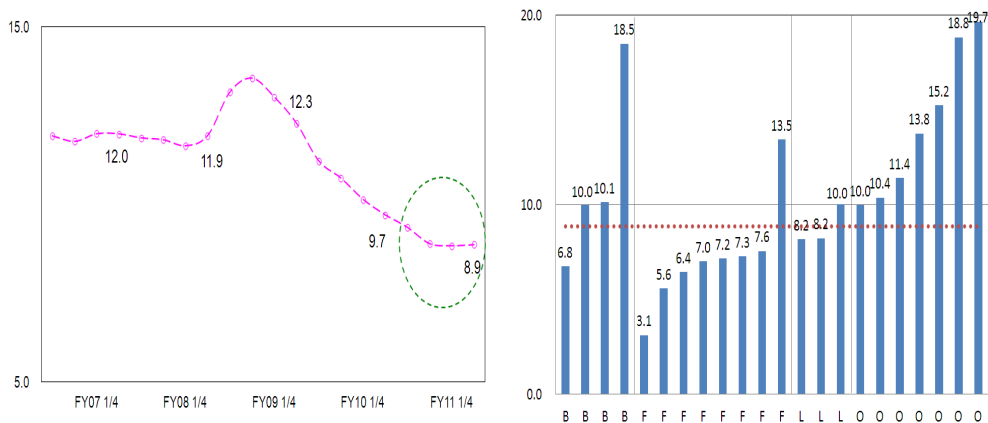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8.9배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 4〉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중소형사와 일부 방카사 레버리지비율이 산업평균(8.9배)을 상회하여 전분기 대비 레버리지비율의 소폭 상승을 주도하였으나, 일부 대형사와 대부분의 외국사는 산업평균을 하회함.

■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 추이를 보면, 대형사와 외국사는 FY2010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10 4/4분기와 FY2011 1/4분기 레버리지비율이 동일한 수준이며, 중소형사는 소폭 상승한 반면 방카사는 하락함.

〈표 12〉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10.1	13.2	9.5	9.2	8.7	8.5	10.8	8.5
중소형사	13.1	17.4	13.1	12.6	12.0	12.4	15.9	12.5
외국사	8.2	11.2	7.9	7.6	7.4	7.5	10.7	7.5
방카사	14.2	18.9	15.0	13.7	11.8	11.3	16.8	11.0
전체	10.1	13.4	9.7	9.4	8.9	8.8	11.4	8.9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레버리지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 및 자본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레버리지비율은 하락했으나 전분기 대비의 경우는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 전분기대비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함.

〈표 13〉 생명보험회사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8.6	1.4	20.6	1.0
중소형사	18.1	4.0	23.5	3.0
외국사	14.9	3.9	21.6	3.4
방카사	41.8	6.6	93.3	9.7
전체	11.5	2.1	22.1	1.8

주: *IBK 연금보험을 제외한 22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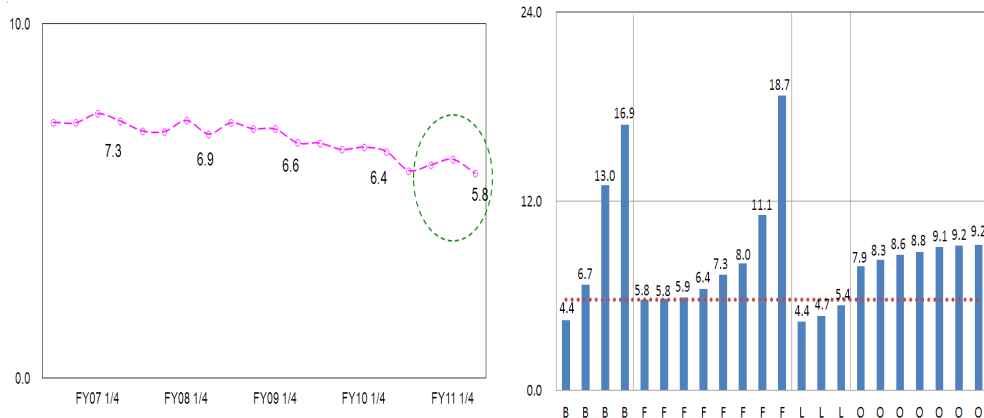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은 5.8%로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를 보면, 중소형사 모두, 외국사와 방카사 대부분의 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5.8%) 수준을 상회한 반면, 대형사의 경우만 모두 산업평균을 하회함.

■ 자산회전율을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로 구분해 보면,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 모두 하락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대형사, 중소형사, 방카사의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이 하락하면서 자산회전율이 각각 0.5%p, 0.5%p, 4.1%p 하락함.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보면, 보험영업회전율 하락으로 인해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자산회전율이 하락함.

〈표 14〉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대형사	5.2	5.1	4.7	3.5	3.3	3.1	1.8	1.8	1.5
중소형사	9.2	9.3	8.7	7.6	7.8	7.0	1.6	1.5	1.7
외국사	7.8	7.2	6.8	6.4	5.8	5.2	1.4	1.4	1.5
방카사	13.7	9.7	9.6	12.3	8.2	8.3	1.4	1.5	1.2
전체	6.4	6.2	5.8	4.7	4.5	4.2	1.7	1.6	1.5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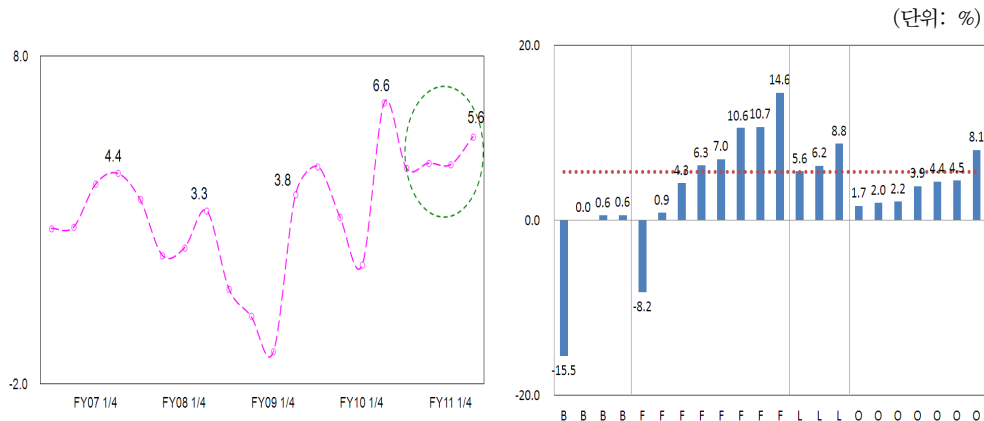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은 5.6%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대비 0.9%p 상승함.

- 생명보험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외국사와 일부 대형사의 경우 산업평균(5.6%)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방카사와 중소형사의 경우는 대부분 산업평균을 하회함.

〈그림 6〉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매출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을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이 모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²⁾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익률은 하락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보험영업이익률이 3.8%p 상승함에 따라 매출이익률이 개선됨.

2) 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환입액)을 고려하지 않아 보험영업이익률이 상승하나,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고려한 경우에는 보험영업이익률이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대형사의 경우 투자영업이익률 하락으로, 방카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익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사의 경우 투자영업이익률의 상승으로 매출이익률이 개선되었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 모두 개선되어 매출이익률이 1.4%p 상승함.
- 대형사와 방카사의 경우 전분기대비 매출이익률이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이, 외국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서 매출이익률이 개선됨.

〈표 15〉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대형사	9.0	7.1	6.5	6.8	4.8	10.7	27.7	30.6	26.3
중소형사	2.7	0.3	4.1	26.7	28.3	28.6	12.4	11.9	15.6
외국사	5.5	3.9	6.2	24.4	17.1	17.2	15.0	17.1	17.0
방카사	0.2	2.5	-0.8	61.2	41.8	49.2	9.4	13.2	12.0
전체	6.6	4.7	5.6	16.7	14.1	17.9	21.2	23.1	21.4

주: 1) 매출이익률=당기순이익*/영업수익

*당기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이익+특별계정이익-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보험영업이익/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투자영업이익/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1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방카슈랑스 비중이 크게 감소함.

- 임직원 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6%p 증가한 22.7%를 나타냈으며, 설계사 비중 또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0.5%p 증가한 27.0%를 나타냄.
- 방카슈랑스 비중은 고성장을 지속하던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11.6%p 감소한 40.3%로 나타났으며, 대리점 비중은 2.3%p 증가한 9.5%로 나타남.

〈표 16〉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 직 원	14.2	27.0	14.1	11.5	26.2	25.2	21.0	22.7
설 계 사	28.6	27.1	26.5	27.2	29.1	21.8	26.1	27.0
대 리 점	7.7	7.0	7.2	7.7	6.1	6.8	6.8	9.5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49.1	38.6	51.9	53.1	37.6	45.4	45.5	40.3
기 타	0.3	0.2	0.3	0.4	0.9	0.8	0.7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688	96,851	24,407	25,053	44,342	40,993	134,794	33,748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전분기에 비해 임직원 수가 증가한 반면, 설계사와 대리점 수가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31명 증가한 26,717명으로 나타났으며,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증가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1,606명 증가하였는데, 전속설계사는 2,457명 증가한 반면 교차설계사는 851명 감소함.

-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의 전속설계사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교차설계사는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에서 감소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각각 187개, 49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236개가 감소한 9,610개로 나타남.
- 대형사의 경우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 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중소형사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사는 법인대리점만 증가함.

〈표 17〉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09		FY2010				FY2011
	3/4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6,541	26,693	26,566	26,230	26,481	26,586	26,717
설 계 사	164,175	162,687	159,512	153,778	149,140	146,065	147,671
- 전속	141,067	140,461	137,945	137,027	133,763	132,117	134,574
- 교차	23,108	22,226	21,567	16,751	15,377	13,948	13,097
대 리 점	13,387	13,244	11,679	10,659	10,359	9,846	9,610
- 개인	8,874	8,702	7,548	7,186	6,876	6,364	6,177
- 법인	4,513	4,542	4,131	3,473	3,483	3,482	3,433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보험³⁾을 비롯한 전 종목이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6.5% 늘어난 14조 723억 원을 시현함.

-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와 노후소득 관심 증대로 인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한 9조 1,137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차량 대형화·고급화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3조 1,977억 원을 시현하면서 고성장을 지속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상, 보증, 특종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1% 늘어난 1조 7,608억 원을 기록함.

■ FY2011 1/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0.3% 증가한 112조 7,714억 원에 달함.

- 일반계정자산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재보험자산이 비운용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전분기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자산은 연금부문 호조로 관련 자산이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12.2% 늘어남.

3)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9.4	16.9	20.8	16.5	21.8	17.5	19.2	16.5
- 장기성	70,894	267,629	75,524	76,673	97,426	85,787	335,411	91,137
	28.3	26.4	30.1	22.9	27.7	21.0	25.3	20.7
- 자동차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3	31,977
	6.4	2.6	7.6	8.3	12.7	13.8	10.6	9.1
- 일반손해	13,912	58,470	15,999	15,149	16,792	14,961	62,901	17,608
	8.1	8.7	8.4	4.8	9.5	7.5	7.6	10.1
총 자산	861,222	861,222	902,218	944,143	989,680	1,022,151	1,022,151	1,127,714 ³⁾
	3.8	16.4	4.8	4.6	4.8	3.3	18.7	10.3

주: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제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11 1/4분기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고령화 대비 수요증가로 연금부문 고성장도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7% 늘어난 9조 1,137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성보험과 상해·질병보험이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3% 늘어난 7조 6,818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경쟁력 약화와 기저효과로 감소하였으나 계속보험료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7.5% 증가한 1조 7,882억 원을 시현함.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도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15.2%, 12.8% 증가한 2조 363억 원과 1조 5,261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노후 대비와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조정 등 수요 확대 요인이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7.2% 증가한 7,586억 원을 시현함.
- 퇴직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 종료⁴⁾로 전년동기대비 46.3% 감소한 516억 원을 기록한 반면,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전환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60.7% 증가한 6,218억 원을 시현함.

〈표 19〉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장기 손해	보험료	63,158	232,988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76,818
	증가율	27.0	23.4	25.5	21.2	21.4	16.5	21.0	15.3
	구성비	89.1	87.1	90.7	90.6	74.1	85.7	84.0	84.3
개인 연금	보험료	5,169	17,841	5,527	5,818	6,444	6,908	24,697	7,586
	증가율	49.9	38.8	51.3	43.7	29.6	33.6	38.4	37.2
	구성비	7.3	6.7	7.5	7.6	6.6	8.1	7.4	8.3
퇴직 보험	보험료	573	8,680	960	273	3,940	111	5,284	516
	증가율	-48.4	27.5	26.7	-47.5	-42.3	-80.7	-39.1	-46.3
	구성비	0.8	3.2	1.3	0.4	4.0	0.1	1.6	0.6
퇴직 연금	보험료	1,994	8,119	2,385	1,123	14,890	5,218	23,616	6,218
	증가율	112.4	144.4	346.4	107.4	194.9	161.7	190.9	160.7
	구성비	2.8	3.0	3.2	1.5	15.3	6.1	7.0	6.8
합계	보험료	70,894	267,629	75,524	76,673	97,426	85,787	335,411	91,137
	증가율	28.3	26.4	30.1	22.9	27.7	21.0	25.3	20.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표 2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6,964	64,069	17,671	18,263	18,976	19,616	74,527	20,363
		증가율	25.1	28.9	17.5	16.7	15.6	15.6	16.3	15.2
	운전자	보험료	5,459	20,621	5,571	5,611	5,636	5,719	22,537	5,749
		증가율	7.6	-1.4	11.2	12.4	9.2	4.8	9.3	3.2
	재 물	보험료	4,836	18,635	5,002	5,240	5,604	5,945	21,791	6,264
		증가율	6.9	2.9	9.9	15.2	19.2	22.9	16.9	25.2
	질 병	보험료	13,294	49,853	13,525	13,914	14,405	14,770	56,614	15,261
		증가율	35.9	47.7	28.0	7.1	10.8	11.1	13.6	12.8
	저축성	보험료	11,676	39,119	14,020	15,515	16,540	16,466	62,541	17,882
		증가율	56.1	32.0	65.3	71.6	66.7	41.0	59.9	27.5
	통합형	보험료	10,335	39,719	10,595	10,624	10,733	10,798	42,749	11,077
		증가율	12.1	9.1	13.6	7.0	6.0	4.5	7.6	4.5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594	973	267	292	257	239	1,055	222
		증가율	469.3	210.5	140.1	93.2	120.5	-59.8	8.5	-17.2
	소 계	보험료	63,158	232,988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76,818
		증가율	27.0	23.4	25.5	21.2	21.4	16.5	21.0	15.3
	상 해	보험료	478	2,266	518	460	517	551	2,046	460
		증가율	-42.1	-4.2	-19.7	-42.0	48.0	15.4	-9.7	-11.2
	운전자	보험료	200	650	127	108	103	201	540	66
		증가율	85.0	53.2	4.6	-8.6	-50.8	0.8	-16.9	-48.0
	재 물	보험료	190	692	223	259	302	314	1,098	355
		증가율	15.0	11.2	29.6	98.6	51.6	65.0	58.7	59.5
	질 병	보험료	247	1,796	239	320	294	345	1,197	310
		증가율	-65.7	1.9	-53.3	-57.5	3.6	39.8	-33.3	29.6
계 속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1,716	5,056	2,971	3,477	3,202	2,574	12,224	2,851
		증가율	163.4	110.3	172.3	201.5	192.4	50.0	141.8	-4.0
	통합형	보험료	137	750	104	106	97	102	409	102
		증가율	-37.3	-11.9	-42.4	-67.1	-11.9	-25.7	-45.5	-2.4
	자산 연계형	보험료	332	362	-7	-	0	0	-7	0
		증가율	-	-	-	-	-100.6	-100.0	-101.9	-99.7
	소 계	보험료	3,300	11,572	4,176	4,730	4,516	4,087	17,509	4,145
		증가율	22.8	37.3	53.3	44.6	98.3	23.8	51.3	-0.7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6,487	61,803	17,153	17,804	18,458	19,065	72,480	19,902
		증가율	29.4	31.3	19.2	19.8	14.9	15.6	17.3	16.0
	운전자	보험료	5,259	19,971	5,444	5,503	5,533	5,518	21,997	5,683
		증가율	5.9	-2.5	11.4	12.9	11.8	4.9	10.1	4.4
	재 물	보험료	4,646	17,943	4,779	4,981	5,302	5,631	20,692	5,909
		증가율	6.6	2.6	9.2	12.8	17.8	21.2	15.3	23.6
	질 병	보험료	13,047	48,057	13,286	13,594	14,111	14,425	55,417	14,951
		증가율	43.9	49.0	32.1	11.1	11.0	10.6	15.3	12.5
	저축성	보험료	9,960	34,063	11,049	12,038	13,338	13,892	50,317	15,031
		증가율	45.9	25.1	49.6	52.6	51.1	39.5	47.7	36.0
	통합형	보험료	10,198	38,969	10,491	10,518	10,636	10,696	42,340	10,975
		증가율	13.3	9.6	14.7	9.5	6.2	4.9	8.7	4.6
계 속 보험료	자산 연계형	보험료	262	611	274	292	258	239	1,062	222
		증가율	150.8	94.9	146.0	93.4	196.8	-8.8	73.9	-19.1
	소 계	보험료	59,858	221,416	62,475	64,729	67,636	69,464	264,304	72,672
		증가율	27.2	22.7	24.0	19.8	18.3	16.0	19.4	16.3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4,14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마이너스 증가율은 FY2007 2/4분기 이후 처음임.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예금금리 상승으로 은행권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FY2010 1/4분기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도 나타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2,851억 원을 기록함.
-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제도 개선⁵⁾의 영향이 반영되고 손해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판매 확대 노력도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9.5% 증가한 355억 원을 기록하면서 50%를 넘는 고성장을 지속함.

■ FY2011 1/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3.3%를 기록함.

〈표 21〉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1/4	2/4	3/4	4/4	1/4
상 해	16.9	3.8	6.8	9.7	12.4	3.2
운전자	15.3	4.1	7.1	10.3	14.3	3.0
재 물	13.5	5.0	8.6	12.1	14.8	5.0
질 병	16.0	3.8	6.7	9.4	11.9	3.2
저축성	17.0	4.6	8.4	11.8	14.7	3.7
통합형	13.2	3.0	5.3	7.7	9.9	2.3
계	15.8	4.0	7.1	10.1	12.9	3.3

주: 1)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의 경우 재물보험이 신계약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47.8% 증가하고 상해보험이 효력상실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으나 다른 종목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함.

5)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과 2010년 3월 「화보법」 개정으로 장기 재물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보유계약액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호조세로 재물, 질병, 저축성보험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19.9% 늘어남.

2) 자동차보험

■ FY2011 1/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와 임의 담보⁶⁾ 확대 추세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3조 2,015억 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물량변수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수입차와 대형차 비중 확대로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강화 추세도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였으나 직전 2분기 두 자릿수 고성장은 마감함.

■ 담보별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한 8,502억 원을 나타낸 반면,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한 2조 2,226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의 경우 비중이 큰 개인용 물건이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고, 업무용 물건도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함.
- 종합보험의 경우 차량 대형화 및 고급화로 인한 대물과 자차 담보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함.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부보가 의무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임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을 의미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 I		8,245	34,210	8,539	8,730	8,798	8,545	34,613	8,502
		-2.1	-4.1	0.0	-0.8	1.9	3.6	1.2	-0.4
종합 보험	대인 II	3,091	12,386	3,187	3,249	3,266	3,211	12,914	3,247
		6.6	4.1	5.8	4.0	3.4	3.9	4.3	1.9
	대물	7,548	29,481	7,839	8,189	8,801	8,851	33,679	8,979
		11.6	9.0	12.0	11.2	16.2	17.3	14.2	14.5
	자차	7,132	27,082	7,393	8,003	8,735	9,042	33,173	8,575
		12.4	4.1	14.2	20.0	28.3	26.8	22.5	16.0
	자손	1,017	3,988	1,054	1,078	1,137	1,125	4,394	1,115
		8.6	3.6	10.7	7.6	11.7	10.7	10.2	5.8
	무보험	274	1,110	280	288	290	282	1,139	272
		2.9	1.3	3.8	1.6	2.4	2.8	2.6	-2.9
	소계	19,062	74,047	19,752	20,807	22,229	22,512	85,299	22,226
		10.8	5.9	11.6	12.8	18.0	18.1	15.2	12.3
외화표시		21	108	27	20	34	20	102	27
		-4.1	-14.6	-16.4	-0.9	-2.0	-0.6	-5.9	0.4
이륜자동차		110	510	157	145	138	128	569	173
		13.8	14.4	9.5	5.8	16.1	16.5	11.6	10.3
기타		814	3,349	831	878	904	938	3,552	1,087
		0.7	3.2	0.8	3.0	5.4	15.2	6.0	30.7
합계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4	32,015
		6.4	2.6	7.6	8.3	12.7	13.8	10.6	9.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1/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IFRS 도입으로 사업비 항목이었던 손해조사비가 발생손해액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9%p 높아진 79.6%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손해율의 경우 개인용 · 업무용 차량의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8%p 상승한 73.2%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의 경우 대물 및 자차 담보의 호조세로 경과보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감소세를 보이던 발생손해액이 IFRS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으로 20.9%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5%p 상승한 82.3%를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억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 I	69.0	71.1	71.4	75.1	81.1	65.9	73.5	73.2
종합보험	대인 II	68.0	66.9	70.5	74.1	74.5	80.0	74.6
	대물	83.2	81.3	83.1	87.2	93.7	80.7	86.1
	자차	92.3	81.6	78.3	92.1	90.4	84.0	86.5
	자손	78.4	70.9	74.8	75.4	82.3	77.9	77.2
	무보험	30.1	40.5	17.3	46.3	33.3	42.9	34.6
	소계	83.0	77.8	77.8	85.7	88.0	81.2	83.2
외화표시	52.2	54.4	64.7	81.9	67.5	71.7	71.5	71.9
이륜자동차	68.6	85.5	97.3	72.3	98.0	64.4	85.4	89.2
기타	81.1	75.7	67.1	86.0	82.9	84.4	81.0	74.4
합계	78.6	75.7	75.7	82.5	85.9	77.1	80.3	79.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일반손해보험

■ FY2011 1/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 보증,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1조 7,068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3.2%, 1.9% 감소하였으나 비중이 큰 공장물건이 기저효과 등으로 2.8% 증가함에 따라 전체 0.4% 늘어난 624억 원을 기록함.

〈표 24〉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679	2,763	622	602	779	657	2,660	624
	증가율	-4.3	-2.5	-5.0	-4.7	-2.4	-3.2	-3.7	0.4
	구성비	4.9	4.7	3.9	4.0	4.6	4.4	4.2	3.5
해 상	보험료	1,967	8,049	2,084	1,970	1,939	1,728	7,721	2,393
	증가율	5.5	-5.4	-5.9	-2.0	4.4	-12.1	-4.1	14.8
	구성비	14.1	13.8	13.0	13.0	11.5	11.5	12.3	13.6
보 증	보험료	3,126	12,287	3,194	2,978	3,417	3,483	13,074	3,547
	증가율	5.4	6.6	0.9	3.1	10.0	11.4	6.4	11.0
	구성비	22.5	21.0	20.0	19.7	20.4	23.3	20.8	20.1
특 종	보험료	7,606	33,293	9,665	9,030	9,955	8,469	37,120	10,409
	증가율	12.6	14.3	15.8	7.2	11.6	11.4	11.5	7.7
	구성비	54.7	56.9	60.4	59.6	59.3	56.6	59.0	59.1
해 외 원보험	보험료	534	2,078	433	568	702	623	2,326	636
	증가율	-7.9	16.7	13.1	13.6	6.2	16.6	11.9	46.9
	구성비	3.8	3.6	2.7	3.7	4.2	4.2	3.7	3.6
합계	보험료	13,912	58,470	15,999	15,149	16,792	14,961	62,901	17,608
	증가율	8.1	8.7	8.4	4.8	9.5	7.5	7.6	10.1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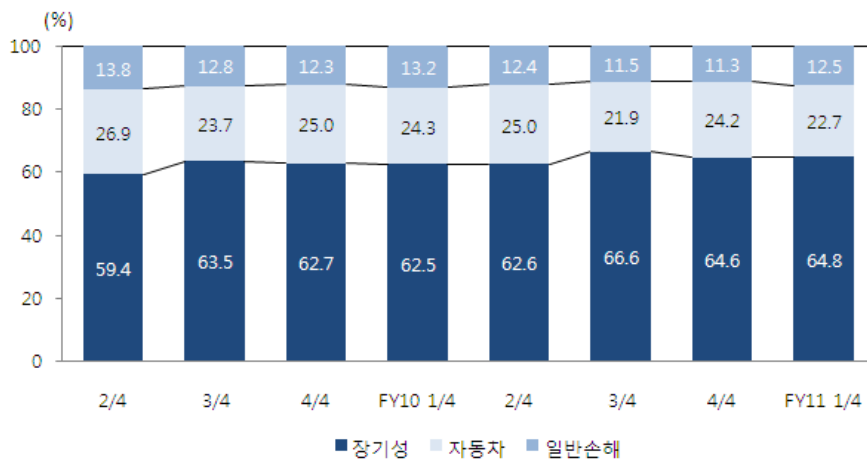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선박보험이 수요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하여 회복세를 나타내고 적화보험도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2,393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통신 관련 신용보험과 이행 보증보험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한 3,547억 원을 기록하여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냄.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한 기술보험 감소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1조 409억 원을 시현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조립보험과 건설보험이 전년동기간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8.4%, 27.7%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9.6% 감소한 755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의 경우 근로자 복지확대 추세 등으로 단체상해보험과 일반상해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8.0%, 17.7% 증가함에 따라 전체 원수보험료는 15.6% 증가한 2,979억 원에 달함.
- 종합보험의 경우 가계성 물건이 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 그쳤으나 비중이 큰 기업성 물건이 수요 확대에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함에 따라 전체로는 14.4% 늘어난 3,612억 원의 원수보험료를 시현함.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1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종목별 구성비는 고성장을 나타낸 장기성보험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장기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이 축소됨.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성보험 비중은 연금부문 고성장과 계속보험료 증가에 따른 장기손해보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3%p 확대된 64.8%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성 보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6%p, 0.7%p 축소된 22.7%, 12.5%를 각각 기록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1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4사 점유율이 장기성보험 고성장으로 20%에 육박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확대된 반면, 기타 국내사, 전업사, 외국사 점유율은 축소됨.

〈표 25〉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4사	69.0	68.8	69.1	69.3	70.8	70.3	69.9	71.2
국내 기타사	25.0	25.2	25.2	25.1	24.3	24.2	24.7	23.6
전업사	2.8	2.8	2.7	2.4	2.3	2.6	2.5	2.5
외국사	3.2	3.2	3.0	3.2	2.6	2.8	2.9	2.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3	3.2	3.0	3.2	2.6	2.8	2.9	2.6
허핀달지수	0.1437	0.1436	0.1459	0.1462	0.1500	0.1461	0.1471	0.1520

주: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상위 4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호조세로 인한 19.9%의 고성장을 시현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p 증가한 71.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기타 국내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9.4% 성장하였으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점유율도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한 23.6%를 나타냄.
- 전업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1.0%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위 4사 고성장으로 점유율이 0.2%p 낮아진 2.5%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7%의 저성장을 나타내면서 점유율도 0.3%p 감소한 2.7%를 기록함.

■ FY2011 1/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4사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0.0061 증가한 0.1520으로 나타남.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IFRS 도입 영향이 반영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5.4%p 상승한 78.2%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판매호조로 인한 경과보험료 증가(16.8%)와 발생손해액 증가(17.3%)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에 따라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소폭 상승한 81.7%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과보험료가 최근 양호한 성장세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손해액이 IFRS 도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3.9%p 높아진 79.6%를 기록함.

■ FY2011 1/4분기 사업비율은 IFRS 도입에 의한 손해조사비 항목조정으로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p 낮아진 18.3%로 개선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신계약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보유보험료 증가율이 순사업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8%p 낮아진 16.8%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보유보험료 증가율이 9.1%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FRS 도입으로 순사업비가 25.7%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9.6%p 하락한 20.7%로 개선됨.

■ FY2011 1/4분기 합산비율의 경우 사업비율이 하락하고 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9%p 높아진 96.5%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81.5	79.8	81.3	81.3	81.6	80.5	81.2	81.7
	자동차보험	78.6	75.7	75.7	82.5	85.9	77.1	80.3	79.6
	화재보험	39.9	32.0	21.2	50.1	-7.2	300.2	38.8	47.4
	해상보험	81.9	77.4	36.1	55.2	143.6	109.6	83.7	58.7
	보증보험	88.0	58.0	-98.2	70.9	27.8	33.8	9.2	43.9
	특종보험	57.4	62.4	52.8	66.4	62.2	66.4	62.2	61.6
	해외원보험	35.2	32.7	42.6	36.1	43.8	41.9	41.1	43.5
	해외수재보험	59.3	59.3	71.8	51.1	82.3	69.9	68.4	54.4
	전체	78.2	76.0	72.8	79.3	80.2	77.8	77.6	78.2
사업비율		22.8	23.8	21.9	22.3	21.7	22.3	22.0	18.3
합산비율		101.0	99.8	94.6	101.6	101.9	100.1	99.6	96.5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 부문 모두 흑자를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9,629억 원의 흑자를 실현함.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지급보험금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하였으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성장이 지속되어 보험영업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은 2,47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영업비용은 전년동기대비 86.9%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익 및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0%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한 1조 18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수익	보험영업	108,281	408,165	111,904	117,324	121,779	125,138	476,145	128,987
	투자영업	10,357	42,559	11,239	11,210	12,610	12,336	47,396	14,387
	기타	3,885	21,181	4,901	2,883	13,794	11,876	33,455	2,442
	소계	122,523	471,905	128,044	131,418	148,183	149,351	556,996	145,815
총비용	보험영업	112,353	417,530	109,492	121,789	127,437	127,308	486,025	126,513
	투자영업	2,688	11,146	2,247	2,013	2,831	2,959	10,050	4,199
	기타	4,095	22,515	4,719	2,365	14,105	12,319	33,508	2,676
	소계	119,137	451,192	116,458	126,167	144,373	142,585	529,583	133,389
수지차	보험영업	-4,072	-9,365	2,412	-4,464	-5,658	-2,169	-9,879	2,474
	투자영업	7,668	31,413	8,992	9,197	9,778	9,377	37,345	10,187
	기타	-210	-1,335	182	518	-311	-442	-53	-235
	소계	3,386	20,713	11,586	5,251	3,810	6,766	27,413	12,427
법인세		1,005	5,299	2,717	1,315	1,195	1,871	7,098	2,798
당기순이익		2,381	15,414	8,870	3,936	2,614	4,895	20,314	9,629

주: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에 제외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FY2011 1/4분기 일반계정 자산에서 각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증권 48.4%, 대출채권 16.9%, 현금과 예금 5.6%, 부동산 5.4% 순⁷⁾임.

- 유가증권 구성비는 매도가능증권 40.4%, 당기손익인식증권 3.7%, 만기보유증권 3.0%,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2% 순으로 나타남.
-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부채계정에 표시하였던 출재보험준비금을 IFRS 도입으로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대비 3.9%p 증가한 20.9%로 나타남.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부동산 이익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대출채권 이익률 모두 하락하여 4.9%를 기록함.

- 유가증권의 경우, 관계·투자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이익률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5.3%의 이익률을 보임.
 -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채권과 수익증권의 이익률 하락으로 각각 0.1%p, 0.6%p 낮아진 2.8%, 5.1%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 이익률은 2.4%p 하락한 2.6%를 나타냈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0.4%p 하락한 5.8%를 보임.

7)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이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만을 포함시켰고 비운용자산 비중은 논의에서 제외함.

〈표 28〉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금과 예금	5.3	5.0	5.4	3.4	5.1	3.4	5.4	3.1	5.6	2.6
유가증권	53.3	5.4	53.8	5.5	54.0	5.7	53.4	5.6	48.4	5.3
○ 당기손익인식증권	3.1	2.9	4.6	5.0	3.9	5.5	4.8	4.6	3.7	2.8
- 주 식	0.3	2.0	0.3	10.0	0.4	14.2	0.3	14.9	0.5	-4.1
- 채 권 등	0.4	7.7	0.6	9.9	0.8	4.5	1.3	3.6	1.1	4.7
- 수익증권	2.4	2.1	3.6	3.7	2.7	4.7	3.2	4.0	2.2	3.1
○ 매도가능증권	44.8	5.4	44.0	5.5	46.3	5.7	44.7	5.8	40.4	5.4
- 주 식	4.3	6.5	4.3	6.6	4.6	7.5	4.5	7.6	3.9	6.1
- 채 권 등	29.0	5.2	28.3	5.4	30.7	5.5	29.6	5.5	27.8	5.2
- 수익증권	11.5	5.5	11.4	5.2	10.9	5.7	10.5	5.7	8.7	6.0
○ 만기보유증권	4.2	5.7	4.0	5.5	2.6	6.2	3.0	5.4	3.0	5.1
- 채 권 등	3.9	5.6	3.7	5.7	2.4	6.3	2.8	5.5	2.8	5.2
- 수익증권	0.3	7.3	0.3	2.5	0.2	4.8	0.2	3.6	0.2	4.1
○ 투자주식	1.3	7.1	1.3	6.0	1.3	4.1	0.9	2.0	1.2	7.2
대출채권	18.0	6.2	18.0	6.1	18.1	6.1	18.4	5.9	16.9	5.8
부동산	6.0	1.3	5.9	1.1	5.8	0.9	5.7	0.9	5.4	1.5
운용자산	82.6	5.2	83.1	5.1	83.0	5.3	83.0	5.1	79.1	4.9
비운용자산	17.4	0.0	16.9	0.2	17.0	0.1	17.0	0.1	20.9	0.0
일반계정자산	100.0	4.3	100.0	4.3	100.0	4.4	100.0	4.3	100	3.9
일반계정자산	96.3	4.3	96.4	4.3	96.7	4.4	96.4	4.3	96.3	3.9
특별계정자산	3.7	-	3.6	-	3.3	-	3.6	-	3.7	-
총자산	100.0	4.1	100.0	4.1	100.0	4.2	100.0	4.0	100.0	3.7
총자산 규모	902,218		944,143		989,680		1,022,151		1,127,714 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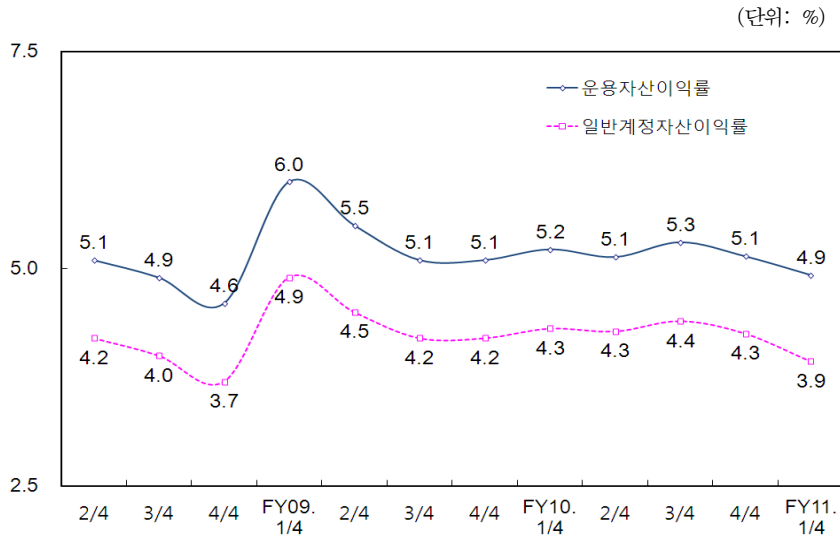
4) 투자주식은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임.

5) FY2011 1/4분기 총자산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한편, FY2011 1/4분기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괄한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3.9%로 나타남.

〈그림 8〉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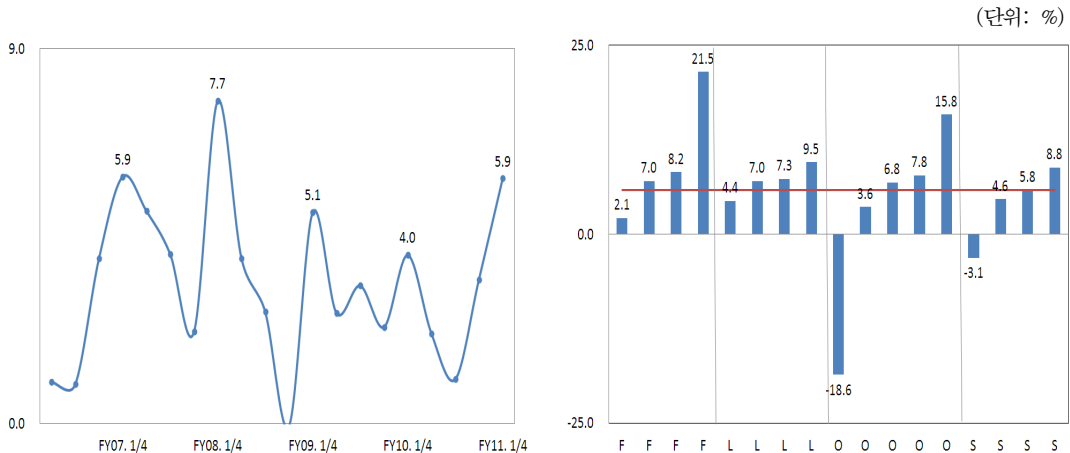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9%p 상승한 5.9%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대비 성과와 비교해 볼 때도 2.4%p 상승함.

○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를 보게 되면, 대형사와 외국사 모두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사 및 외국사가 산업평균수준(5.9%)을 상회함.

8)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국내외 17개 회사임.

- 반면, 일부 중소형사와 일부 전업사는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영업부분의 적자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그림 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 평균을 보면, 모든 그룹에서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한 5.8%를 기록하였고, 중소형사는 1.8%p 상승한 6.3%를 기록함.
- 한편, 외국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기준 14.0%p 상승한 9.1%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 전업사의 자본이익률은 4.7%로 전년동기대비 4.4%p 상승하였으며, 전분기 기준으로는 13.6%p 개선됨.

〈표 2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대형사	3.3	16.8	4.2	2.8	2.6	4.3	14.8	5.8
중소형사	0.5	11.2	4.5	1.6	-4.2	1.4	3.1	6.3
외국사	-15.7	-37.7	-4.9	4.4	-2.0	-2.2	-1.8	9.1
전업사	-5.6	-10.4	0.3	-15.3	-17.0	-8.9	-31.4	4.7
국내외 17개사	2.3	13.9	4.0	2.2	1.1	3.5	11.3	5.9

주: 1) 분기 자본이익률=당분기 당기순이익/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누적 당기순이익/(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 변화 원인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출이익률의 변화가 자본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매출이익률 상승으로 자본이익률이 상승하였으며, 중소형사와 전업사의 경우 매출이익률 상승과 함께 레버리지 확대 효과까지 이어져 자본이익률이 크게 상승함.

〈표 30〉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대형사	7.2	7.1	6.7	14.0	13.7	13.7	4.2	4.4	6.3
중소형사	11.1	12.8	13.7	16.8	15.6	15.4	2.4	0.7	3.0
외국사	4.3	4.4	3.1	25.7	25.9	24.6	-2.7	-1.9	11.9
전업사	4.5	4.9	4.8	21.6	21.3	19.8	0.3	-8.6	4.9
국내외 17개사	7.6	7.8	7.5	14.8	14.3	14.2	3.6	3.1	5.5

주: 1) 레버리지비율=기중자산/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영업수익/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당기순이익/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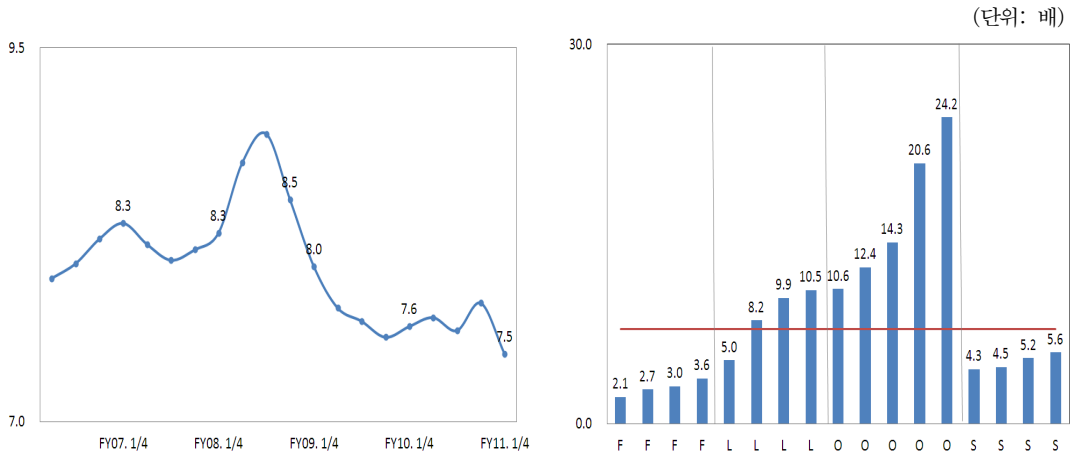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중소형사는 매출이익률과 레버리지 상승 효과로 자본이익률이 상승하였으며, 대형사, 외국사, 전업사의 경우 매출이익률 상승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자본이익률은 상승함.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7.5배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하락함.

- 손해보험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중소형사 및 대다수 대형사가 산업평균 수준(7.5배)을 상회한 반면, 외국사 및 전업사는 산업평균수준을 하회함.

〈그림 10〉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함.

- 대형사, 외국사, 전업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자본증가 효과로 인해 전분기대비 감소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FY2009 4/4분기 이후 레버리지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FY2011 1/4분기 현재 13.7배 수준을 보임.

〈표 31〉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7.1	7.7	7.2	7.2	7.1	7.1	7.4	6.7
중소형사	10.8	11.5	11.1	11.2	11.3	12.8	12.8	13.7
외국사	4.1	3.9	4.3	4.2	4.2	4.4	4.4	3.1
전업사	4.3	4.4	4.5	5.0	5.3	4.9	4.5	4.8
국내외 17개사	7.6	8.1	7.6	7.7	7.6	7.8	8.0	7.5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 감소요인을 자산과 자본 증가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본의 증가가 레버리지비율 하락을 견인함.

○ 대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 레버리지비율이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의 경우 양(+)의 자산증가율과 음(-)의 자본증가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레버리지비율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표 32〉 FY2010 4/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기중자산 증가율 ^{주)}		기중자본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22.1	6.3	29.9	12.5
중소형사	24.3	6.1	0.8	-1.2
외국사	20.9	11.9	66.5	58.4
전업사	17.1	8.0	10.3	9.2
국내외 17개사	22.4	6.3	25.5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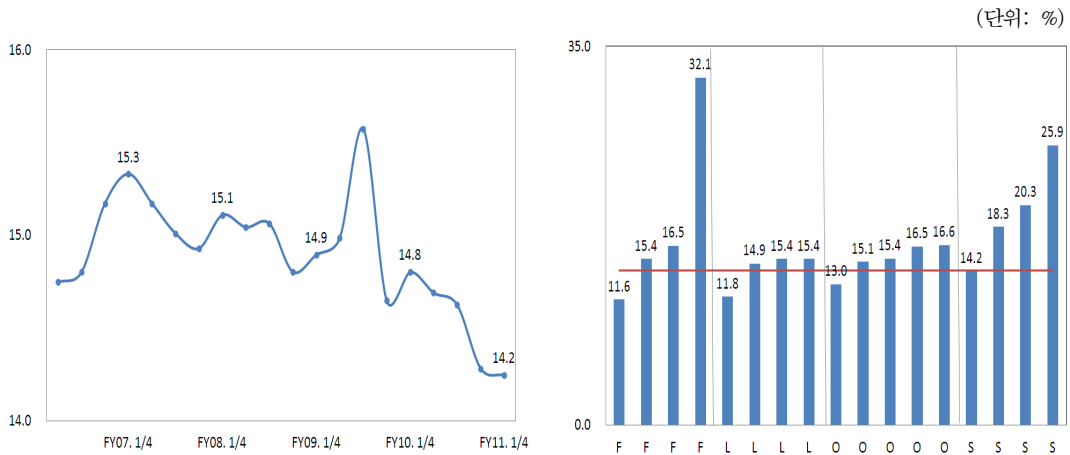
주: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국내외 17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은 FY2010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4.2%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를 보면, 전업사의 경우 산업평균수준(14.2%)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사와 대형사는 산업평균수준을 하회함.

〈그림 11〉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자산회전율을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로 구분해 보면, 보험영업회전율 하락이 자산회전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의 경우 투자영업회전율이 상승하였으나, 보험영업회전율 하락으로 자산회전율은 각각 0.3%p, 1.4%p, 1.8%p 하락함.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그룹에서 투자영업회전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보험영업회전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산회전율은 하락함.

〈표 33〉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회전율			투자영업회전율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대형사	14.0	13.7	13.7	12.6	12.4	12.2	1.3	1.3	1.5
중소형사	16.8	15.6	15.4	15.6	14.2	14.1	1.2	1.3	1.3
외국사	25.7	25.9	24.6	24.8	25.2	23.9	0.9	0.7	0.7
전업사	21.6	21.3	19.8	20.6	20.3	18.8	0.9	1.0	1.0
국내외 17개사	14.8	14.3	14.2	13.5	13.0	12.8	1.3	1.3	1.4

주: 1) 자산회전율=영업수익*/기중자산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보험영업수익/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투자영업수익/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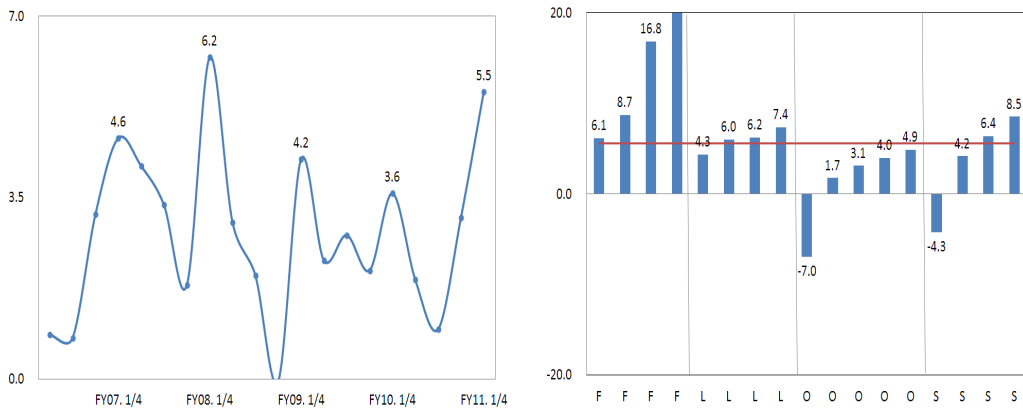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은 5.5%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1.9%p 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2.4%p 상승함.

〈그림 12〉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0 4/4분기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기업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손해보험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사 및 대부분의 대형사가 산업평균수준(5.5%)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산업평균수준을 하회함.

■ 산업평균수준의 매출이익률을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로 구분해 보면, 보험영업이익률의 개선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매출이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룹별로 성과 차이가 존재함.

- 대형사와 전업사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이익률이 모두 개선되면서 각각 2.1%p, 4.6%p 상승한 6.3%, 4.9%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함.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투자영업이익률 개선효과 보다 보험영업이익률 개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대형사와 전업사의 매출이익률은 각각 1.9%p, 13.5%p 상승함.
- 한편, 중소형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이 모두 개선되면서 0.6%p 상승한 3.0%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함.
 -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투자영업이익률은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률 개선 효과로 2.3%p 상승함.
- 반면,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볼 때 투자영업이익률이 악화 되었으나, 보험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어 매출이익률이 14.6%p 상승한 11.9%를 기록함.

〈표 34〉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FY2010 1/4	FY2010 4/4	FY2011 1/4
대형사	4.2	4.4	6.3	-1.7	-1.1	0.8	7.6	7.3	7.6
중소형사	2.4	0.7	3.0	-2.2	-4.4	-1.8	5.4	6.1	5.7
외국사	-2.7	-1.9	11.9	-5.3	-1.7	10.6	3.3	2.6	2.9
전업사	0.3	-8.6	4.9	-3.2	-12.4	1.5	4.0	3.5	4.5
국내외 17개사	3.6	3.1	5.5	-1.9	-2.2	0.4	6.9	6.8	7.0

주: 1) 매출이익률=당기순이익/영업수익 *당기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이익+특별계정이익-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보험영업이익/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투자영업이익/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1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임직원 비중이 증가한 반면, 대리점 채널과 설계사 채널 비중은 소폭 감소함.

- 임직원 비중은 퇴직연금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1%p 증가한 반면, 설계사와 대리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장기손해보험이 양호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비중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9%p, 0.7%p 각각 감소함.

〈표 35〉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직원	16,057	64,725	16,892	15,250	30,526	19,023	81,690	22,603
	14.2	14.8	14.0	12.5	20.9	14.3	15.6	16.1
설계사	39,523	145,894	40,166	41,265	43,085	43,873	168,389	45,467
	35.0	33.3	33.2	33.7	29.4	33.0	32.2	32.3
대리점	48,862	197,584	54,290	55,964	62,068	60,255	232,577	62,156
	43.2	45.1	44.9	45.7	42.4	45.3	44.5	44.2
중개사	656	3,372	905	971	1,402	898	4,176	1,107
	0.6	0.8	0.7	0.8	1.0	0.7	0.8	0.8
방카슈랑스	7,280	24,971	8,404	8,754	9,040	8,493	34,692	9,208
	6.4	5.7	7.0	7.2	6.2	6.4	6.6	6.5
공동인수	680	1,777	172	200	200	350	922	183
	0.6	0.4	0.1	0.2	0.1	0.3	0.2	0.1
전체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2	522,445	140,7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1 1/4분기 말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설계사 및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직원 증가로 전분기대비 586명 증가한 2만 9,537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상위 4사의 전속설계사 채널 보강으로 전속설계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차설계사가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286명 감소한 16만 1,858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444개 줄어든 4만 1,519개를 기록함.

〈표 36〉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09		FY2010				FY2011
	3/4	4/4	1/4	2/4	3/4	4/4	1/4
임직원	28,563	28,796	28,917	29,206	29,400	28,951	29,537
설계사	167,539	164,203	162,693	162,985	161,767	162,144	161,858
- 전속	86,856	83,020	83,562	83,765	83,597	84,144	85,372
- 교차	80,683	81,183	79,131	79,220	78,170	78,000	76,486
대리점	46,070	45,049	44,139	43,343	42,927	41,963	41,519
- 개인	34,359	32,976	32,270	31,650	31,003	30,091	29,647
- 법인	11,711	12,073	11,869	11,693	11,924	11,872	11,872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11년 2/4분기(4~6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²⁾는 유니버설보험,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기보험에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 증가에 그침.

- 유니버설보험은 지난 1/4분기 14%의 증가를 기록한 바 있으나 2/4분기에는 증가율이 1%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일부 회사가 적립부문이 소진되더라도 위험보장이 지속되는 Life time death benefit guarantees(DBGs) 부가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임.
 - DBGs가 부가되는 유니버설 보험은 2/4분기 연납화 보험료가 3% 감소하는 등 위축되고 있으나, DBGs상품 비중은 유니버설보험 신계약 보험료의 4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황임.
 - 한편 최소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주가인덱스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유니버설보험 상품은 29% 증가하였으며, 유니버설보험 중 22% 비중을 차지함.
- 종신보험 연납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전통형 상품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5% 증가하였으며, 70% 이상의 보험회사가 보험료 증가세를 기록함.
 - 종신보험은 금융위기 이후 타 상품에 비해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 내 비중은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29%를 기록 중임.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3%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정기보험은 5% 감소함.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고, 미국 손해보험 동향은 통계자료가 미발표 중이므로 다음 호에 게재함.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일시납보험료×10%+정기납보험료

■ 신계약 보험료 기준 누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보험료 감소세가 둔화된 정기보험과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종신보험의 비중이 확대되고, 전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비중이 감소함.

○ 종목별 점유율은 유니버설보험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29%, 21%, 9%의 비중을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7	11	8	13	10	42	14	1	41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10	2	-6	-25	-7	8	14	3	9
정기	-4	-11	-16	-16	-12	22	-11	-5	21
종신	15	23	6	14	15	28	15	5	29
계	10	7	0	2	4	100	8	1	100
연납화 보험료	2,190	2,398	2,247	2,671	9,541		2,370	2,419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1.9),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1년 2/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624억 달러로 1/4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한 변액연금의 고성장에 따른 것임.

○ 2/4분기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409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규모는 2008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2/4분기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215억 달러를 나타냈으며, 정액형 즉시연금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10억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변액연금	보험료	128.0	32.2	35.2	34.6	38.5	140.5	39.8	40.9
	증가율	-17.9	3.9	9.7	8.5	16.7	9.8	23.6	16.2
	비중	53.6%	62.5	61.8	61.8	66.5	63.2	66.3	65.5
정액연금	보험료	110.6	19.3	21.8	21.4	19.4	81.9	20.2	21.5
	증가율	0.5%	-47.4	-25.3	-9.3	-8.1	-25.9	4.7	-1.4
	비중	46.4	37.5	38.2	38.2	33.5	36.8	33.7	34.5
합계	보험료	238.6	51.5	57.0	56.0	57.9	222.4	60.0	62.4
	증가율	-10.3	-23.9	-7.0	0.9	7.0	-6.8	16.5	9.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1. 9), U.S. Individual Annuities.

■ 개인연금 판매 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가 각각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독립설계사가 17%,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6%, 15%, 8%로 나타남.

○ 변액연금에서는 독립중개인의 비중이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액 연금에서는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1/4	2/4
은행	15	16	15	14	16	16
전속설계사	20	21	21	21	20	21
직접판매	9	8	7	7	7	8
독립중개인	20	21	20	21	23	21
독립설계사	19	18	20	18	16	17
증권중개인	12	12	13	14	15	15
기타	4	4	4	4	3	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LIMRA(2011. 9),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1년 2/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변경권이 있는 Guaranteed Renewable³⁾과 Non-cancellable⁴⁾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5.2% 증가함.

○ Guaranteed Renewable 신규보험료는 0.2% 감소하면서 증가세를 마감한 반면 Non-cancellable은 9.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천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315,627	105,731	74,268	83,742	80,365	344,106	107,171	76,002
		증가율	-5.9	0.6	2.7	44.6	0.0	9.0	1.4	2.3
		구성비	67.6	77.5	69.2	69.0	67.3	71.0	76.2	69.0
	Non-cancellable	건수	150,980	30,775	33,110	37,552	39,043	140,480	33,427	34,075
		증가율	-13.3	-8.0	-8.8	-8.8	-2.6	-7.0	8.6	2.9
		구성비	32.4	22.5	30.8	31.0	32.7	29.0	23.8	31.0
	전체	건수	466,607	136,506	107,378	121,294	119,408	484,586	140,598	110,077
		증가율	-8.4	-1.4	-1.1	22.4	-0.8	3.9	3.0	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198,768	60,396	48,896	50,856	50,985	211,133	64,144	48,781
		증가율	-5.9	-1.3	14.1	12.1	3.3	6.2	6.2	-0.2
		구성비	39.7	49.2	42.2	40.4	40.1	42.9	49.1	40.0
	Non-cancellable	보험료	301,867	62,468	66,959	74,967	76,277	280,671	66,577	73,101
		증가율	-9.7	-7.2	-9.2	-6.5	-5.3	-7.0	6.6	9.2
		구성비	60.3	50.8	57.8	59.6	59.9	57.1	50.9	60.0
	전체	보험료	500,635	122,864	115,855	125,824	127,261	491,804	130,721	121,882
		증가율	-8.2	-4.4	-0.6	0.2	-2.1	-1.8	6.4	5.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1. 9),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11년 2/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 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관련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93.7% 증가한 19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0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07년 2/4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후 2010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경기침체 우려 증가로 원수보험료 증가세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한 954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재해 관련 지급보험금이 2010년 2/4분기 58억 달러에서 2011년 2/4분기 174억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임.

- 2011년 2/4분기 미국 지역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손해액은 208억 달러로 추산됨.

○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02.3%에서 117.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1년 4/4분기 120.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총 투자영업이익은 11.2% 증가한 148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타 이익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남.

○ 총 투자영업이익 중 이자수입과 배당금 등의 투자영업이익은 1.3% 증가한 12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실현자본이익은 전년동기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26억 달러로 나타남.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08억 달러 감소한 3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8.0%p 하락한 -2.2%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FY2010 2/4분기 -27.4%에서 -34.6%로 악화되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도 6.5%에서 -1.5%로 악화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108,010	110,683	98,918	422,065	108,589	109,746
	증가율	1.7	2.1	1.2	0.8	3.4	1.6
지급보험금	금액	77,655	77,600	79,655	309,109	78,459	95,404
	증가율	3.3	-0.1	6.3	0.8	5.3	22.9
보험영업이익	금액	-3,044	-846	-3,020	-8,160	-4,008	-19,262
	증가율	-505.3	10.9	-358.1	671.3	209.7	532.8
계약자 배당금	금액	259	340	1,162	2,270	456	348
	증가율	-24.5	12.6	14.8	14.3	-10.9	34.4
총 보험영업이익	금액	-3,303	-1,186	-4,182	-10,430	-4,463	-19,610
	증가율	-909.6	11.4	-2746.8	242.6	147.1	493.7
투자영업이익	금액	12,067	11,442	12,221	47,246	12,561	12,222
	증가율	1.6	-6.8	9.9	0.5	8.4	1.3
실현자본이익	금액	1,284	2,201	1,254	5,688	984	2,617
	증가율	-140.5	43.6	-24.6	-171.5	0.3	103.8
총 투자영업이익	금액	13,350	13,643	13,475	52,935	13,545	14,839
	증가율	53.3	-1.2	5.4	35.5	7.7	11.2
세전 영업이익	금액	8,990	10,001	8,678	37,834	8,610	-7,347
	증가율	-29.9	-12.8	-20.9	-15.5	-15.6	-181.7
당기순이익	금액	7,759	10,147	7,993	34,670	7,807	-3,065
	증가율	8.0	-2.5	-34.2	21.9	-11.8	-139.5
자기자본(surplus)	금액	532,811	544,848	556,852	556,852	564,656	559,058
	증가율	15.1	11.0	8.9	-70.7	4.4	4.9
지급준비금	금액	559,189	556,808	557,710	557,710	560,795	574,977
	증가율	1.3	0.8	0.9	-74.8	1.4	2.8
합산비율		102.3	100.2	105.9	102.4	103.3	117.6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총 보험영업이익+총 투자영업이익+기타이익

자료: III, 2011-First Half 2011 Results(2011. 10).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 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 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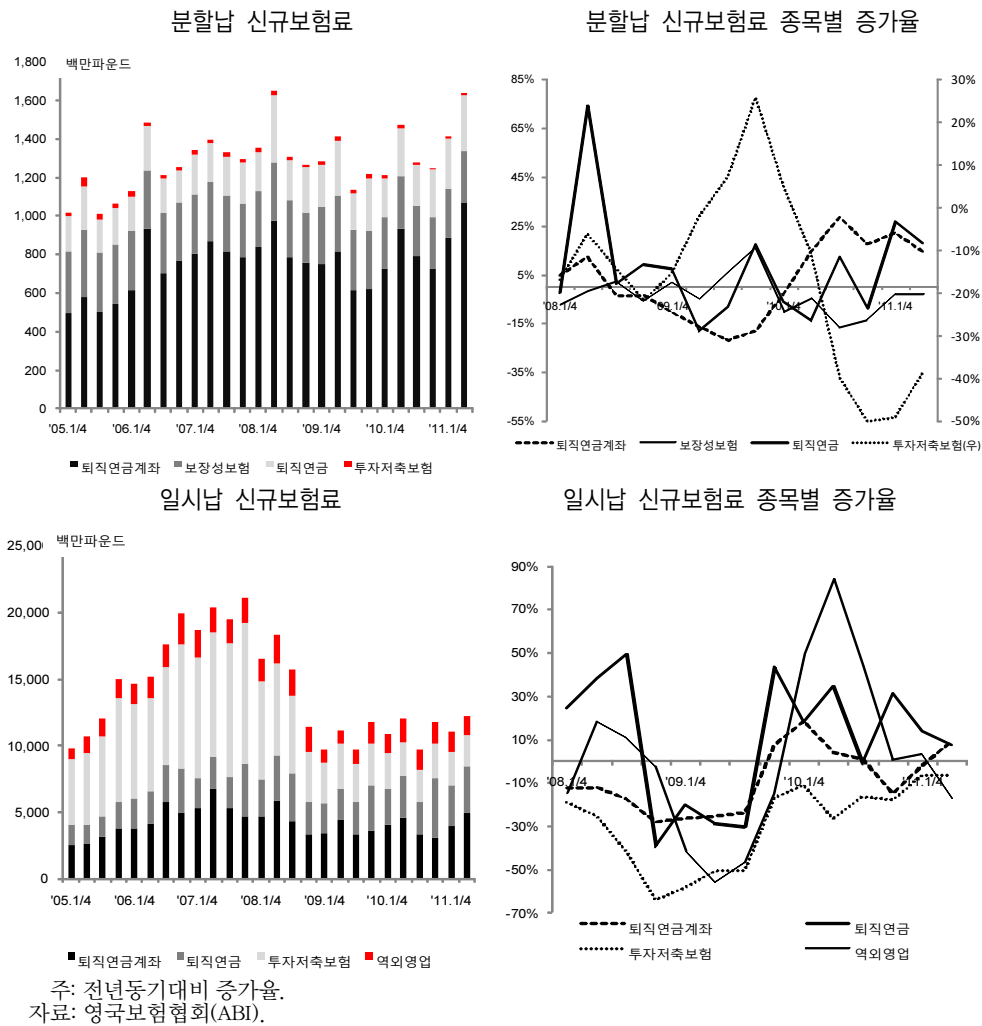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

가.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 2011년 2/4분기 신규보험료는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139억 5,100만 파운드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신규보험료와 종목별 증가율



5)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등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한 16억 4,9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경우 분할납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등이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123억 100만 파운드가 거수됨.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1년 2/4분기 투자·저축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주로 어린이신탁(child trust)보험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3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신탁의 2/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7.5% 감소하여 감소세가 가속됨.
 - 어린이신탁보험의 대부분은 stakeholder 어린이신탁보험으로 직접판매가 부진하면서 계약건수 자체가 전년동기대비 90% 감소함.
- 2/4분기 투자·저축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 money market bonds, 투자자산(distribution bonds) 등 대부분의 종목에서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함.
 - 투자·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액연동채권이 방카슈랑스 판매 저조(17.9%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4.9% 감소함.
 - 그밖에 유배당채권, money market bonds, 소득 인출이 정기적으로 가능한 투자자산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6.1%, 3.4%, 35.9%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 및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pensions)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체개인연금계좌는 2/4분기 계약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1.6% 증가하여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9% 증가함.
- 독립재정자문가(IFA)를 통한 판매가 같은 기간 중 21.5% 증가함.
-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의 계약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함.

■ 2/4분기 퇴직연금계좌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 DWP 리베이트⁶⁾,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pensions)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함.

- 단체개인연금계좌의 경우 독립재정자문가(IFA)를 통한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76.0% 증가하면서 신규보험료가 75.2% 증가함.
- DWP 리베이트의 경우 직접판매가 전년동기대비 41.6% 증가하면서 신규보험료가 4.9% 증가하였고,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는 64.4% 증가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4분기 분할납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DC형 퇴직연금의 신규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DB형 퇴직연금의 신규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함.

- DC형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계약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신규보험료는 13.1% 감소함.
- 반면,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계약건수가 1개 증가했으나, 판매된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3.3% 증가함.

■ 2/4분기 일시납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판매가 부진했으나, Bulk Buyouts⁷⁾의 판매가 급등하면서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함.

6)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에 의해서 지급되는 개인연금.

7) DB형 퇴직연금의 관리 책임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구입함.

-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 DB형 퇴직연금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9.4%, 74.8% 감소함.
- 반면, Bulk Buyouts은 계약건수가 3개에 불과하나 신규보험료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45.2% 증가하고, DC형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31.6% 증가함.

〈역외영업의 신규보험료〉

- 2/4분기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공동투자 채권(personal bonds (pooled))⁸⁾을 비롯한 모든 종목의 판매 저조로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함.
-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동투자 채권은 계약건수 감소(-13.9%)로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하였고, 투자채권(investment bonds), 개인채권(personal bonds) 등 나머지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한편,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0.7%에 해당하는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4분기 보장성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모기지 연계 개인사망보험(mortgage-related term), 신용생명보험(collective life), 단체 생명보험의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함.
 - 모기지 연계 개인사망보험은 계약건수가 전년동기대비 16.1% 감소하면서 신규보험료가 8.6% 감소함.
 - 신용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는 방카슈랑스 판매 부진(-92.3%)으로 전년동기대비 78.6% 감소하였고, 단체 생명보험은 계약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함.
- 분할납 보장성 보험료의 20% 수준에 불과한 일시납 보장성 보험료는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함.

8) 뮤추얼 펀드,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임.

〈표 6〉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17.8	16.9	12.7	9.9	57.3	9.0	10.4
	증가율	5.1	-10.6	-39.9	-50.2	-25.4	-49.2	-38.6
	구성비	1.5	1.1	1.0	0.8	1.1	0.6	0.6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726.4	934.6	794.4	730.2	3,185.6	886.2	1,071.1
	증가율	-3.3	14.2	28.6	17.5	13.4	22.0	14.6
	구성비	59.5	63.1	61.8	57.9	60.7	62.3	64.9
퇴직연금	보험료	204.2	246.2	210.2	249.1	909.6	258.6	290.4
	증가율	-6.2	-14.0	12.3	-8.7	-5.6	26.7	18.0
	구성비	16.7	16.6	16.3	19.8	17.3	18.2	17.6
역외영업	보험료	7.9	8.7	9.3	10.8	36.7	10.9	10.2
	증가율	70.1	73.1	76.2	74.6	73.7	38.2	17.4
	구성비	0.6	0.6	0.7	0.9	0.7	0.8	0.6
보장성보험	보험료	265.1	274.9	259.7	260.9	1,060.7	257.5	267.2
	증가율	-10.2	-4.7	-16.4	-13.5	-11.3	-2.9	-2.8
	구성비	21.7	18.6	20.2	20.7	20.2	18.1	16.2
합계	보험료	1,221.4	1,481.2	1,286.3	1,261.0	5,249.8	1,422.2	1,649.3
	증가율	-5.0	4.6	12.7	3.2	3.6	16.4	1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1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691.9	2,500.1	2,404.7	2,557.1	10,153.9	2,523.6	2,345.2
	증가율	-11.2	-26.6	-16.4	-18.3	-18.4	-6.3	-6.2
	구성비	24.5	20.6	24.5	21.6	22.7	22.6	19.1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4,064.5	4,601.8	3,369.2	3,119.5	15,155.0	3,983.4	5,012.3
	증가율	18.4	4.2	1.0	-14.6	2.1	-2.0	8.9
	구성비	37.0	38.0	34.4	26.4	33.9	35.7	40.7
퇴직연금	보험료	2,671.2	3,203.4	2,450.5	4,477.0	12,802.1	3,040.8	3,432.2
	증가율	18.0	34.7	-1.1	31.3	21.6	13.8	7.1
	구성비	24.3	26.4	25.0	37.8	28.6	27.3	27.9
역외영업	보험료	1,503.5	1,758.4	1,520.0	1,621.5	6,403.4	1,554.3	1,457.5
	증가율	49.6	84.0	43.9	0.7	38.4	3.4	-17.1
	구성비	13.7	14.5	15.5	13.7	14.3	13.9	11.8
보장성보험	보험료	61.6	54.0	55.9	58.0	229.5	53.9	54.3
	증가율	22.1	-17.4	1.4	-12.3	-3.2	-12.6	0.5
	구성비	0.6	0.4	0.6	0.5	0.5	0.5	0.4
합계	보험료	10,992.7	12,117.6	9,800.3	11,833.2	44,743.8	11,156.0	12,301.5
	증가율	12.3	8.0	0.0	-0.3	4.8	1.5	1.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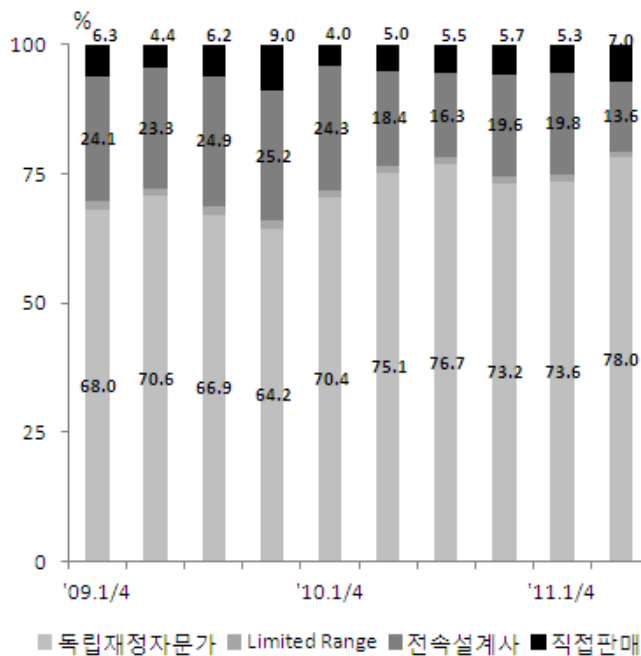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나.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 2011년 2/4분기 판매채널별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독립재정자문가(IFA)와 직접판매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전속설계사 비중은 감소함.

- 2/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투자 및 저축보험, 퇴직연금계좌, 개인 보장성보험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9%p 증가하여 78.0%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비중은 퇴직연금계좌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p 증가하여 7.0%를 차지함.
- 반면, 전속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개인연금과 보장성보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4.8%p 감소한 13.6%를 차지함.

〈그림 2〉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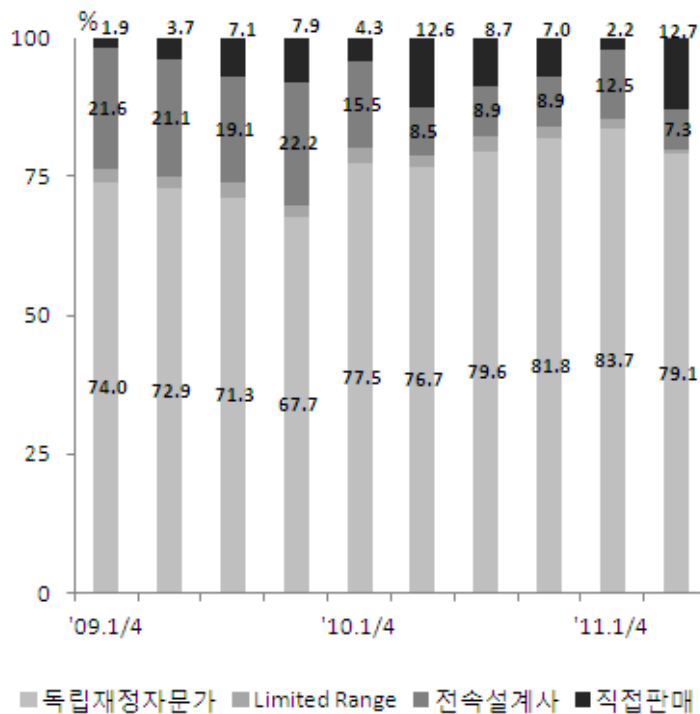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9)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 2/4분기 판매채널별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독립재정자문가(IFA)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고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감소함.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는 역외영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4%p 증가한 79.1%를 기록함.
-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투자 및 저축보험에서 감소함에 따라 동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한 7.3%를 차지함.
- 또한, 직접판매는 퇴직연금의 판매는 증가했으나, 나머지 종목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12.7%를 차지함.

〈그림 3〉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한편, 2/4분기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방카슈랑스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한 2/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 판매는 9,100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대비 18.0% 감소함.

- 2/4분기 중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3.8%, 14.9% 감소함.

○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한 2/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 판매는 11억 3,600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함.

- 2/4분기 중 투자 및 저축보험의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5.7% 감소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⁰⁾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1 1/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대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가장 비중이 큰 개인보험의 감소세가 2분기 연속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18조 1,908억 엔을 시현함.

〈표 7〉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개 인 성	개 인	금 액	156,984	169,250	172,207	155,430	653,871	154,803
		증가율	8.4	5.7	5.7	-3.6	3.9	-1.4
		구성비	84.8	87.4	90.1	87.0	87.3	85.1
	- 사 망	금 액	126,766	137,729	141,569	126,877	532,941	126,306
		증가율	10.3	7.3	7.6	-2.0	5.7	-0.4
		구성비	68.5	71.1	74.1	71.0	71.2	69.4
	- 생 사 혼 합	금 액	28,920	30,278	29,191	27,309	115,697	27,080
		증가율	1.0	-0.8	-2.5	-10.6	-3.3	-6.4
		구성비	15.6	15.6	15.3	15.3	15.5	14.9
	- 생 존	금 액	1,298	1,243	1,447	1,244	5,233	1,417
		증가율	3.9	-0.1	4.6	-1.6	1.8	9.1
		구성비	0.7	0.6	0.8	0.7	0.7	0.8
	개인연금	금 액	17,627	19,708	16,135	16,290	69,759	16,487
		증가율	-13.3	-7.8	-17.9	-25.7	-16.2	-6.5
		구성비	9.5	10.2	8.4	9.1	9.3	9.1
단체보험		금 액	10,422	4,689	2,807	6,909	24,828	10,561
		증가율	18.9	-49.1	-29.2	-5.6	-15.2	1.3
		구성비	5.6	2.4	1.5	3.9	3.3	5.8
합계		금 액	185,072	193,667	191,174	178,665	748,579	181,908
		증가율	6.4	1.6	2.5	-6.3	0.9	-1.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0)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생존보험이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였으나 사망과 생사혼합 실적이 부진하여 1.4% 감소한 15조 4,803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4.4%, 4.5% 증가하였으나, 종신행변액보험과 정기형종신보험이 각각 15.5%, 46.8% 감소함에 따라 전체 0.4%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양로보험과 정기부양로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8%, 25.8% 각각 감소함에 따라 6.4% 감소함.
-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은 수익률 악화로 변액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49.6% 감소하면서 6.5% 감소함.
-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의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단체정기보험과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함.

〈자산 현황〉

- FY2011 1/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비중이 큰 유가증권이 소폭 증가한 반면, 현금 및 예금과 부동산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0.5% 감소한 318조 9,970억 엔을 기록함.
 - 유가증권은 시장의 대내외적인 불안요인 확대로 국채와 지방채가 각각 전분기대비 1.6%, 3.2% 각각 증가한 반면 주식은 6.7% 감소함.
 - 현금 및 예금의 경우 전분기에는 유동성 강화 움직임으로 급증한 반면, FY2011 1/4분기에는 기저효과로 전분기대비 44.7% 감소함.
 - 대출금은 일반대출금 감소로 전분기대비 0.6% 감소하였으며, 부동산도 전분기대비 1.4% 감소함.

〈표 8〉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전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3,073	-33.8	42,241	27.7	28,765	-31.9	56,560	96.6	31,286	-44.7
단기자금	20,428	-4.5	21,264	4.1	22,249	4.6	20,096	-9.7	18,496	-8.0
매입금전채권	32,972	3.1	32,778	-0.6	32,146	-1.9	30,458	-5.3	31,552	3.6
금전신탁	22,462	1.9	20,428	-9.1	20,478	0.2	20,712	1.1	20,067	-3.1
유가증권	2,423,965	-0.7	2,465,755	1.7	2,469,106	0.1	2,479,810	0.4	2,493,798	0.6
- 국 채	1,290,118	0.8	1,311,052	1.6	1,315,255	0.3	1,323,987	0.7	1,344,865	1.6
- 지방채	111,249	1.4	114,033	2.5	115,055	0.9	119,164	3.6	122,923	3.2
- 사 채	265,474	0.4	265,240	-0.1	261,014	-1.6	252,836	-3.1	252,272	-0.2
- 주 식	170,497	-8.6	163,027	-4.4	167,731	2.9	162,149	-3.3	151,322	-6.7
- 외화증권	425,960	-0.8	447,978	5.2	444,877	-0.7	457,384	2.8	459,622	0.5
대출금	462,290	-1.4	452,978	-2.0	449,448	-0.8	438,772	-2.4	436,174	-0.6
부동산	66,301	-1.3	68,500	3.3	68,192	-0.4	66,909	-1.9	65,965	-1.4
운용자산	3,071,987	-1.3	3,115,005	1.4	3,107,627	-0.2	3,131,288	0.8	3,112,022	-0.6
비운용자산	79,007	12.2	70,179	-11.2	77,295	10.1	75,623	-2.2	77,948	3.1
총자산	3,150,994	-1.0	3,184,275	1.1	3,183,287	0.0	3,206,912	0.7	3,189,970	-0.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1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2조 541억 엔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나 자동차배상책임 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관심 확대로 2.7% 증가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재해 관련 보험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적하보험료 증가로 1.4% 증가함.

〈표 9〉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엔,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3,316	3,163	3,441	3,239	13,159	3,384
	증가율	-2.4	-3.9	-11.7	-4.6	-5.9	2.1
	구성비	16.2	16.6	17.9	17.3	17.0	16.5
해 상	보험료	514	483	473	495	1,965	521
	증가율	7.1	8.1	5.7	2.3	5.8	1.4
	구성비	2.5	2.5	2.5	2.6	2.5	2.5
운 송	보험료	166	144	151	146	608	166
	증가율	-2.6	-3.3	-3.3	-2.3	-2.9	0.1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805	8,376	8,643	8,489	34,314	8,812
	증가율	0.4	0.8	0.3	0.6	0.5	0.1
	구성비	43.1	44.0	44.9	45.2	44.3	42.9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164	2,189	1,897	1,996	8,063	2,222
	증가율	2.7	1.8	-5.5	1.1	0.1	2.7
	구성비	10.6	10.5	9.9	10.6	10.4	10.8
상 해	보험료	2,943	2,686	2,482	2,293	10,403	2,895
	증가율	7.7	3.4	-3.7	-2.4	1.4	-1.6
	구성비	14.4	14.1	12.9	12.2	13.4	14.1
특 종	보험료	2,529	2,189	2,145	2,103	8,966	2,539
	증가율	0.7	0.4	3.4	-2.5	0.5	0.4
	구성비	12.4	11.5	11.2	11.2	11.6	12.4
합계	보험료	20,437	19,048	19,232	18,761	77,478	20,541
	증가율	1.3	0.5	-2.7	-1.0	-0.5	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기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반면,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0.4% 증가에 그침.

〈자산 현황〉

■ FY2011 1/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유가증권의 감소로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4.0% 감소하였으나 비운용자산이 45.7%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3% 증가함.

- 단기자금은 전분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늘어났던 금액이 줄어들면서 각각 전분기대비 58.6% 감소함.
- 유가증권은 국채가 전분기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주식과 해외증권이 각각 전분기대비 2.5%, 0.8% 감소함에 따라 1.3% 감소함.

〈표 10〉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563	-19.0	9,007	19.1	7,871	-12.6	9,043	14.9	7,235	-20.0
단 기 자 금		3,677	10.0	4,040	9.9	2,498	-38.2	7,574	203.1	3,136	-58.6
환매조건부채권		1,820	-20.4	3,149	73.1	2,509	-20.3	1,675	-33.3	2,384	42.4
매입금전채권		14,511	12.0	11,362	21.7	9,511	-16.3	9,489	-0.2	7,693	-18.9
금 전 신 탁		1,085	-4.1	1,093	0.8	1,184	8.3	780	-34.1	762	-2.3
유가증권	국 채	50,150	1.2	51,191	2.1	52,017	1.6	50,984	-2.0	51,390	0.8
	지 방 채	5,740	-6.0	5,350	-6.8	5,613	4.9	5,311	-5.4	5,207	-2.0
	회 사 채	37,242	-2.2	35,875	-3.7	34,241	-4.6	32,925	-3.8	31,981	-2.9
	주 식	63,857	-14.3	63,302	-0.9	66,666	5.3	64,394	-3.4	62,804	-2.5
	외화증권	48,508	-2.3	47,919	-1.2	47,788	-0.3	47,518	-0.6	47,146	-0.8
	기타증권	4,141	-5.8	4,047	-2.3	3,486	-13.9	3,242	-7.0	3,200	-1.3
	소 계	209,637	-5.7	207,683	-0.9	209,810	1.0	204,374	-2.6	201,729	-1.3
대 출 금		23,452	-1.2	23,098	-1.5	22,547	-2.4	21,679	-3.8	21,240	-2.0
부 동 산		10,965	-0.2	10,877	-0.8	10,788	-0.8	10,718	-0.6	10,637	-0.8
운 용 자 산		272,720	-4.7	270,310	-0.9	266,718	-1.3	265,331	-0.5	254,817	-4.0
비 운 용 자 산		31,207	8.1	30,717	-1.6	29,784	-3.0	31,401	5.4	45,757	45.7
총 자 산		303,928	-3.5	301,028	-1.0	296,503	-1.5	296,733	0.1	300,575	1.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험과 단체정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정보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정보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정보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 2011년 2/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총 수입보험료는 3,44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가운데 급격한 증가율 하락세가 나타남.

■ 동 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총 지급보험금은 979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32.1%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37.7%p 상회함.

■ 그리고 2/4분기 사업비는 437억 위안으로 22.4% 증가했으며, 동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4.6%p 하락한 수치임.

〈표 11〉 중국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입보험료	금액	4,541	3,457	3,326	3,204	14,528	4,617	3,440
	증가율	38.6	27.6	28.2	25.3	30.4	1.7	-0.5
지급보험금	금액	732	741	789	938	3,200	980	979
	증가율	-11.1	-5.6	7.5	19.8	2.4	33.9	32.1
사업비	금액	320	357	369	493	1,538	385	437
	증가율	22.1	27.0	20.9	27.7	24.7	20.6	22.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바람.

〈자산운용〉

- 2011년 2/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6.3% 증가한 5조 7,470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운용자산도 5조 2,05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4.0% 증가함.
- 2/4분기 비운용자산대비 운용자산 규모가 지난 2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운용자산 중 예치금대비 투자금 규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들이 안전 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올 6월까지 보험산업 총자산 중 비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해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이름.
 - 또한, 지난해 말까지 총자산의 20%대 비중에 머물러 있던 은행 예치금도 올 2/4분기 들어 1조 7,658억 위안으로 총자산의 30.7%를 차지함.
 - 한편, 투자금은 전분기대비 1.7% 증가에 그침에 따라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투자금 중 채권, 펀드, 주식은 각각 운용자산의 45.8%, 13.2%, 13.2%를 차지함.
- 올 상반기 자금운용 수익은 516억 위안으로 평균 수익률이 2.1%에 그쳤으며, 동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7%p 하락한 수준임.

〈표 12〉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운용자산 계	금액	39,538	41,654	44,323	46,047	46,047	50,067	52,051
	증가율	5.7	5.4	6.4	3.9	0.0	8.7	4.0
	구성비	92.1	92.1	92.3	91.2	91.2	92.6	90.6
- 예치금	금액	11,595	12,700	13,070	13,910	13,910	16,257	17,658
	증가율	10.2	9.5	2.9	6.4	32.2	16.9	8.6
	구성비	27.0	28.1	27.2	27.6	27.6	30.1	30.7
- 투자금	금액	27,943	28,954	31,253	32,137	32,137	33,810	34,393
	증가율	3.9	3.6	7.9	2.8	19.5	5.2	1.7
	구성비	65.1	64.0	65.1	63.7	63.7	62.5	59.8
비운용자산 계	금액	3,391	3,581	3,672	4,435	4,435	3,997	5,419
	증가율	5.4	5.6	2.5	20.8	37.8	-9.9	35.6
	구성비	7.9	7.9	7.7	8.8	8.8	7.4	9.4
총자산	금액	42,929	45,235	47,995	50,482	50,482	54,064	57,470
	증가율	5.6	5.4	6.1	5.2	24.2	7.1	6.3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의 누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1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대폭 감소하면서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213억 위안¹²⁾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감소함.

12)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손해보험회사의 단기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와 연금보험회사 운영하는 인보험상품 수입보험료(5개 연금보험회사 중 2개)도 포함됨.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른 2/4 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94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감소함.
- 2011년 1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시행으로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수입보험료 대부분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제외됨.¹³⁾
- 이에 따라 2/4분기 동 상품들의 수입보험료가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로 전년동기대비 9.9%p 하락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도 181억 위안으로 0.6% 증가에 그쳤는데, 동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6.0%p 하락한 수준임.
- 이에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36.1%p 하락한 -9.1%로 나타남.¹⁴⁾
- 전체 인보험 수입보험료 중 미미한 비중(0.1% 이하)에 그쳤던 상해보험의 경우 2/4분기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5.0%p 하락했으나,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규모가 모두 크게 축소되면서 동 비중이 4.0%에 이름.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실적부진은 회계기준 개정 이외에도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시행과 금리 인상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풀이됨.

- 2010년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불허하고, 각 은행 지점에 대해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제함.
- 이에 2011년 1/4분기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한 가운데, 2/4분기에도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2011년 들어 기준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보다 자사 금융상품에 더 집중하여 판매하는 것도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

13) 동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상품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위험률 차익률이 5년 이상 10%를 초과하고, 보험상품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절반 이상 보험기간의 위험률 차익률이 10%를 초과한 보험계약 수입보험료만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산입됨.

14) 2/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크게 떨어졌으나, 이는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증가율 하락으로 볼 수 있어 직접적인 기간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3〉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료	3,547	2,434	2,389	2,263	10,632	3,484	2,213
	증가율	38.7	27.0	27.6	18.2	28.7	-1.8	-9.1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생명보험	보험료	3,292	2,179	2,154	2,054	9,680	3,210	1,943
	증가율	39.5	28.1	29.5	18.5	29.8	-2.5	-10.8
	구성비	92.8	89.5	90.2	90.8	91.0	92.1	87.8
- 건강보험	보험료	185	180	161	152	677	187	181
	증가율	31.5	16.6	12.7	11.4	18.0	1.3	0.6
	구성비	5.2	7.4	6.7	6.7	6.4	5.4	8.2
- 상해보험	보험료	70	75	73	56	275	87	89
	증가율	20.0	23.7	10.9	26.7	19.7	23.3	18.7
	구성비	0.02	0.03	0.03	0.02	0.03	0.02	4.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한편, 은행이 예금 흡수를 위해 출시한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고 7%에 이른 반면, 투자형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함.

- 현재 중국의 1년 정기 예금금리는 3.5%이나, 상반기 전체 보험산업의 평균 자금운용 수익률은 2.1%에 불과함.

〈지급보험금 현황〉

■ 2011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한 471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 기간 동안 집중된 상품 만기와 소비자 보호규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4분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각각 23.4%, 100.0%, 18.8% 증가함에 따라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54.1%p 상승함.

〈표 14〉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금	368	346	348	382	1,444	551	471
	증가율	-22.0	-18.0	4.9	18.0	-6.8	49.7	36.1
- 생명보험	보험금	290	269	263	287	1,109	437	332
	증가율	-28.1	-24.1	2.0	13.3	-12.6	50.7	23.4
- 건강보험	보험금	62	60	66	76	264	96	120
	증가율	13.8	16.8	17.1	38.6	21.7	54.8	100.0
- 상해보험	보험금	17	16	19	20	71	18	19
	증가율	11.7	5.5	8.0	21.5	11.7	5.9	18.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중국 인보험 상위 3개사의 상반기 연보에 따르면, 동 기간 동안 사망이나 불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안정적이었으나, 3~5년 만기 보험상품들의 만기일이 동 기간 동안 집중되어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허용범위 축소 등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도 지급보험금의 급증을 조장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1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인보험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다소 하락된 반면, 중소형사는 상승함.

- 2/4분기 전체 인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¹⁵⁾는 2,17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함.
-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1.1%p 감소한 72.4%로 나타난 반면, 중소형사는 2.0%p 증가한 23.0%로 나타남.
- 한편, 외자계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0.8%p 하락한 4.6%로 나타남.

〈표 15〉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5.6	73.5	71.7	69.5	72.8	75.4	72.4
		중소형사	19.5	21.0	22.6	23.6	21.6	21.2	23.0
		소 계	95.1	94.6	94.3	93.1	94.4	96.6	95.4
	외자계		4.9	5.4	5.7	6.9	5.6	3.4	4.6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 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평안인수생명보험, 신화인수생명보험, 타이핑양인수생명보험, 타이강인수생명보험 등임.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5) 전체 인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인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손해보험회사의 단기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과 연금보험회사의 인보험상품 수입보험료(5개 연금보험회사 중 2개)를 제외한 것임.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1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9.9% 증가한 1,227억 위안으로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실적부진으로 인해 증가율 둔화가 나타남.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0%p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p 하락한 수치임.
 - 이는 2010년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책임보험 수입보험료 하락 및 2011년 상반기 자동차 매매 급감에 따른 자동차보험 실적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 일부 대도시의 자동차구매 자격제한¹⁶⁾과 유가상승 등으로 상반기 중국 자동차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9%p 하락한 3.4%로 나타남.
 -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2007년부터 무사고 시 보험료 인하제도의 실시로 보험가입자의 1인당 평균 보험료가 동 제도 실시 3년간 24% 하락함.¹⁷⁾
 - 이에 비해 2/4분기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다른 손해보험 종목들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자동차보험보다 1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분기 30.0%에서 31.8%로 증가함.

16) 베이징의 경우 올 1월부터 자동차 구매자를 베이징 호적인 자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사람'의 경우에도 10~3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추첨을 통해 구매자격을 가질 수 있음.

17) 동 제도의 실시로 매년 평균 86%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년 보험료의 30% 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가입자의 1인당 평균 보험료는 2007년 1,460 위안에서 2010년 1,074 위안까지 하락함.

〈표 16〉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995	1,023	937	941	3,896	1,133	1,227
	증가율	38.4	29.0	29.8	46.6	35.5	13.9	19.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1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자동차책임보험 지급보험금의 지속적 증가와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으로 전년동기대비 28.6% 증가한 508억 위안으로 나타남.

- 자동차책임보험 지급보험금 중 사망보험금과 불구 및 상해보험금은 각 지방의 1인당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함.
- 그리고 주민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책임보험의 평균 지급보험금이 2006년 말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이후 4년 동안 41% 증가했고, 보험금 지급상한도 6만 위안에서 12만 2,000 위안으로 인상됨.

〈표 17〉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364	395	441	556	1,756	429	508
	증가율	3.5	8.9	9.6	21.1	11.4	17.9	28.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1년 2/4분기 손해보험 상위 3개사와 외자계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소폭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하락함.
- 2/4분기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단기 의료보험과 상해보험 포함)는 1,26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함.
- 그 중 중국계 손해보험회사가 1,255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거수하여 98.9%의 시장을 점유한 반면, 외자계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14억 위안으로 여전히 1%대 점유율 수준에 그침.
-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 타이핑양재산, 평안재산이 각각 37.1%, 16.1%, 12.9%의 시장점유율로 총 손해보험시장의 66.2%를 차지하였으며, 동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7.6	65.0	66.2	67.0	66.4	68.2	66.2
		중소형사	31.4	33.9	32.7	31.9	32.5	30.7	32.8
		소 계	99.0	99.0	98.9	98.9	98.9	98.9	98.9
	외자계		1.0	1.0	1.1	1.1	1.1	1.1	1.1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 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국인민재산, 평안재산, 타이핑양재산 등임.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

- 중국 연금보험시장의 경우 2007년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 수탁업무가 전국에 걸쳐 허용되면서 4년간 급성장하였음에도 기업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중국은 2004년 5월 기업연금 시범시행을 시작으로 2007년 10월 연금보험회사의 기업 연금업무가 정식으로 허용됐으며, 현재 5개의 연금보험회사가 존재함.
- 2/4분기 수탁한 적립금 규모는 45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41.6%로 기록됨.
- 연금보험회사의 2/4분기 누적 운용보험료는 1,216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0% 증가함.
- 현재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업연금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

〈표 19〉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수탁보험료	금액	264	74	77	71	135	357	169	45
	증가율	28.8	15.5	51.1	-	-	35.2	128.4	-41.6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708	781	835	920	1,039	1,039	1,147	1,216
	증가율	49.4	10.3	6.9	10.2	12.9	46.8	10.4	6.0

주: 1) 수탁보험료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3) 2010년 3/4와 4/4분기 수탁보험료 증가율은 결측치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보험중개시장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구성 분석은 '보험중개시장보고(保險仲介市場報告)'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8호 (7. 4)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함.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위, 6/29)
제138호 (7. 4)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IT 보안 관련 인식전환과 IT 보안조직의 실질적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둔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 금감원, 6/23)
제139호 (7. 11)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으로는 대출금 자동이체 개선, 금융회사 자동응답서비스(ARS) 개선, 주식워런트증권(ELW) 기본예탁금제도 도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등이 있음.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재부, 6/30)
제139호 (7. 11)	물가불안과 마이너스 실질임금 증가율 · OECD에 따르면 2011년 5월 우리나라 근원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근원물가 상승률 OECD 1.6배 등, 연합뉴스 등, 7/6)
제140호 (7. 18)	6월 고용여건 개선 ·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1년 6월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 및 복지 관련 부문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자영업자 감소세와 상용직 근로자 증가세가 이어짐. (6월 고용동향, 통계청, 7/13)
제140호 (7. 18)	3고(高) 현상과 하반기 경제불안 요인 ·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 원화가치, 금리 3가지 거시경제지표가 동시에 오르는 3고(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물가, 환율, 금리 3고 못 잡으면, 조선일보, 7/12)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41호 (7. 25)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 한은에 따르면 2011년 5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이 5조 4,386억 원(4월중 4조 5,893억 원)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2011년 5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한은, 7/16)
제141호 (7. 25)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 금융당국은 7월 21일 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산업 내 바람직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금감원, 7/21)
제142호 (8. 1)	2/4분기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 · 한은에 따르면 201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0.1%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0.4%에 그치면서 2009년 2/4분기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201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한은, 7/27)
제142호 (8. 1)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이루는 각 분야별 제도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위, 7/27)
제143호 (8. 8)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시행 · 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 정부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의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부과요율, 부담금 적립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함. (외환건전성 부담금 시행, 한은, 8/1)
제143호 (8. 8)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과열경쟁 및 불공정 영업행위 차단을 위하여 2010년 12월 20일 발표된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을 기초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퇴직연금시장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감원, 8/4)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44호 (8. 16)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현황 ·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2011년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변동성이 커짐. (경제 · 금융상황 점검회의 결과 등, 한은, 8/10)
제144호 (8. 16)	7월 청년고용 개선과 물가불안 지속 · 2011년 7월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여건도 개선됨. · 7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5%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도 4.7% 상승하여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7월 고용동향 등, 통계청, 8/10)
제145호 (8. 22)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 주요 내용 · 미국 · 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8월 16일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함. · 외환건전성 관리,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기업 자금지원, 증권시장 안정 기반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함.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 8/16)
제145호 (8. 22)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부담능력과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아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 8/16)
제146호 (8. 29)	가계부채 및 이자비용 증가 · 한은에 따르면 2011년 2/4분기 가계부채가 전분기대비 18조 9,000억 원 증가로 876조 3,000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누적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2/4분기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중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함. (2011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 등, 한은, 8/23)
제146호 (8. 29)	보험회사 CEO 간담회 주요 내용 · 금감원은 8월 19일 14개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최근 커지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함.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결과, 금감원, 8/19)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47호 (9. 5)	신용카드사 동향과 금리 수준 합리화 ·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주요 건전성지표가 양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나, 최근 대외 불안요인이 증가한 만큼 잠재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201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등, 금감원, 8/29)
제147호 (9. 5)	「한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금융안정 책무 명시,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 강화,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등이 포함됨. (「한은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 한은, 9/1)
제148호 (9. 19)	금감원, 보험 및 여·수신 관련 제도 개선 ·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함. · 금감원은 금융기관 여·수신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및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 (보험관련 제도개선 등, 금감원, 9/8)
제148호 (9. 19)	물가불안과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 · 2011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6.6%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한은은 물가불안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외 위험요인 증가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9월 8일 기준금리를 동결함. (통화정책방향 등, 한은, 9/8)
제149호 (9. 26)	7개 상호저축은행 경영개선명령 · 금융위는 2011년 9월 18일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저축은행 7개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함. (7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금감원, 9/18)
제149호 (9. 26)	한은, 2/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 한은의 '2/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하락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2/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한은, 9/21)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8호 (7. 4)	가계 및 정부부채 증가, 경기회복 어려움 가중 · WSJ은 가계와 정부의 부채 증가가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부채 문제는 고르지 못한 경제 성장, 정부의 추가 시장개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Wall Street Journal 등, 6/27)
제139호 (7. 11)	미국 경기회복 속도, 대공황 이후 가장 부진 · 연준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종료를 선언한 2009년 6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경기회복세는 대공황 이후 가장 부진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Wall Street Journal 등, 7/5)
제140호 (7. 18)	미 연준, 3차 양적완화 가능성 시사 · 7월 12일 공개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경기둔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3차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Wall Street Journal , 7/12)
제141호 (7. 25)	미 상원, 정부부채 한도 증액 절충안 도출 · 7월 19일 '깡 오브 식스'가 향후 10년간 3조 7천억 달러의 적자감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난항을 겪던 정부부채 한도 증액 합의가 진전을 보임. (Businessweek 등, 7/20)
제142호 (8. 1)	미 금융회사, 정부 디폴트에 대비한 대응방안 모색 · 정부부채 한도 증액을 위한 합의가 지연되고,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커지면서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NY Times 등, 7/20)
제143호 (8. 8)	2011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 1% 하회 · 7월 29일 미 상무부는 2011년 2/4분기 미국 GDP가 1.3% 성장(계절조정 전기대비 연율)에 머물렀다고 발표했으며, 2011년 상반기 GDP 성장률도 1%에 미치지 못하는 0.8%로 나타나는 등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음. (NY Times 등, 7/30)
제144호 (8. 16)	미 연준, 2013년까지 초저금리 유지 · 8월 9일 미 연준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범위를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0~0.2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등, 8/10)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45호 (8. 22)	미 주요기관, 상반된 경제지표 발표 · 8월 12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7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0.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같은 날 발표된 톱슨로이터/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98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54.9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상반된 모습을 나타냄. (New York Times 등, 8/12)
제146호 (8. 29)	미국경제, 일본식 장기불황 진입 논란 · 경제전문 웹사이트 마켓워치의 브렛 아렌즈는 2차 양적완화정책 이후 주액가격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으며 고용확대 효과도 미미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 양적완화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함. (New York Times 등, 8/12)
제147호 (9. 5)	미국 가계부채 규모, 지속적 감소 · 8월 15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011년 2/4분기 미국 가계부채 규모가 주택관련 대출 감소로 전분기대비 0.4% 감소했다고 발표함. (USA Today 등, 8/29)
제149호 (9. 19)	오바마 대통령, 4,0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 · 미 오바마 대통령은 9월 8일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세금 감면, SOC지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4,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방안(American Jobs Act)을 발표하고 조속한 의회통과를 촉구함. (Wall Street Journal 등, 9/9)
제150호 (9. 26)	오바마 대통령,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 9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증대와 지출삭감을 통한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감축안의 절반인 1조 5천억 달러는 세수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Wall Street Journal 등, 9/18)
제150호 (9. 26)	미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시행 · 9월 21일 연준은 이틀에 걸친 FOMC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단기국채를 매도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New York Times 등, 9/21)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8호 (7. 4)	그리스의 회원국 탈퇴 및 유로화 회의론 대두 · 그리스 부채위기가 구제금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커짐에 따라 그리스 유로화를 버리고 유로회원국에서 탈퇴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 대두됨. (Spiegel, 6/25)
제139호 (7. 11)	유럽 보험회사, 미래 경제충격을 대부분 감내할 수 있을 듯 · 유럽보험연합감독청(EIOPA)이 공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보험그룹들은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충격을 대부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Financial Times, 7/4)
제140호 (7. 18)	이탈리아, 유럽 재정위기 전파로 금융시장 요동 ·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긴축정책 실행 불투명, 국가부채 과다(2조 5,200억 달러), 중·단기 상환부채(2011년 만기도래 국채규모 1,200억 유로, 5년 이후 상환부채 9,000억 유로) 압박 등으로 급등함. (Financial Times, 7/12)
제141호 (7. 25)	유럽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유로지역 21개국 9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에서 모두 8개 은행이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1) 최소 기준인 5%를 넘지 못했다고 밝힘. (Bloomberg, 7/18)
제142호 (8. 1)	ING 부채감축, 해외보험사업 기업공개 가능 · ING 그룹은 Latin America Insurance 매각으로 보험사업부문 기업공개를 위한 부채/자본비율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유럽 또는 아시아지역 보험사업자의 기업공개가 가능해짐. (Financial Times, 7/25)
제143호 (8. 8)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 증가 · 유로지역 성장둔화 전망과 미국의 경기 둔화로 재정이 취약한 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Financial Times, 등 8/4)
제144호 (8. 16)	유럽, 금융시장 불안 증대 ·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된 것에 이어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프랑스 은행주들이 10% 넘게 하락함. (Wall Street Journal, 8/9)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45호 (8. 22)	유로지역, 2/4분기 경제성장률 저조 · 유로지역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1%, 0.0% 기록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됨. (Wall Street Journal, 8/16)
제145호 (8. 22)	유로채권 발행, 프랑스·독일 합의 불발 ·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법적 이유로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함에 따라 유로지역의 위기감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함. (Financial Times, 8/17)
제146호 (8. 29)	유로존 붕괴론 대두 · 유로존 위기 해결방안의 현실성 부재와 각국 수장들의 문제 해결 리더십 등이 의문시되면서 유로체제의 안정이 흔들리는 모습이며, 독일 등에서는 유로체제 존속에 대한 반대의견이 점차 커짐. (Bloomberg, 8/20)
제147호 (9. 5)	IMF,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은행의 막대한 손실 경고 · IMF의 금융안정보고서 초안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보유로 유럽은행들의 손실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이들 은행의 유형자기자본(TCE: Tangible Common Equity)이 2천억 유로(약 2,875억 달러, 기존 자본의 10~12%) 가량 잠식될 수 있다고 추정함. (Wall Street Journal, 8/26)
제148호 (9. 19)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증대 · 재정위기가 유럽 중심 국가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의 그리스 포기설, 그리스 경기 침체 가속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증대함. (Financial Times, 9/14)
제149호 (9. 26)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강등 · S&P는 2011~2014년 이탈리아의 연평균 GDP 성장률 전망을 1.3%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고, 성장둔화로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밝힘. (Bloomberg, 9/21)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8호 (7. 4)	대지진의 후유증으로 도산 및 파산 기업 확산 · 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동경상공리서치 등, 6/30 종합)
제139호 (7. 11)	금융청,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규제 일부 완화 · 일본 금융청은 현행 대출신청 중인 개인소비자와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함. (요미우리신문 등, 7/7 뉴스종합)
제140호 (7. 18)	퇴직연금 가입자 감소 속에 DC형 가입자는 증가 · 일본에서는 최근 10년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비롯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일본경제, 7/12 뉴스종합)
제141호 (7. 25)	금융청, 공식집계 결과 지진보험금 지급액 1.8조 엔 발표 · 일본 금융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공제회사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액을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조 8,000억 엔이 지급된 것으로 7월 19일 공식 발표함. (마이니치 신문 등, 7/19)
제142호 (8. 1)	소프트뱅크그룹, 인터넷 생명보험회사 설립 추진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SBI홀딩스는 인터넷 전용 생명보험회사인 SBI 생명보험을 설립하여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임. (일본경제 등, 7/21)
제143호 (8. 8)	일본 국회,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연체기간 연장 의결 · 일본 국회는 8월 4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 연체기간 경과로 연금의 수급권이 중지되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동 연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결함. (마이니치신문 등, 8/3)
제144호 (8. 16)	일본, 쌀 선물거래 재개 후 일시적 거래 중단 ·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폐쇄되었던 쌀 선물거래를 72년 만에 부활하여 8월 8일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방사선 물질 오염으로 쌀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소식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됨. (마이니치신문 등, 8/10)
제145호 (8. 22)	일본 금융당국, 예금보험요율 인하 추진 · 일본 금융당국은 1971년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예금보험요율 인하를 위한 금융업계와의 협의를 9월부터 추진할 예정임. (산케이신문 등, 8/17)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46호 (8. 29)	무디스,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8월 24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2002년 이후 9년 3개월 만에 현재 Aa2에서 A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일본경제 등, 8/24 종합)
제147호 (9. 5)	온라인 자동차보험, FY2011 1/4분기 성장 지속 · 일본의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FY2011 1/4분기 온라인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554억 8,700만 엔으로 성장세가 지속됨. (일본경제 등, 8/30)
제148호 (9. 19)	일본 금융청, 지진피해 지방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 결정 · 일본 금융청은 9월14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의 센다이 은행과 이바라키현의 츠클바은행의 공적자금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기능강화법」에 의거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함.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시사통신, 9/15 종합)
제149호 (9. 26)	공무원연금과 직장인연금 통합 추진 계획 · 일본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2012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하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감. (요미우리신문, 9/19)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38호 (7. 4)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단체소송 급증과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승 · 미국에서 우회상장한 중국기업의 회계결합, 회계사기 등의 문제로 2011년 상반기 미국 상장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건수가 전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25%에 달하며, 이에 따라 해외상장하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의 보험료도 급증함. (Wall Street Journal 등 6/20, 텅선 재정 6/27)
제138호 (7. 4)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 국내총생산의 1/4 초과 · 6월27일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4을 초과한 것을 밝혀졌는데, 토지매매 수입에 크게 의지하는 지방 재정은 부동산시장의 부진에 따라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중국 재경보도 등, 6/28)
제139 (7. 11)	손해보험회사 지급보험금 급증 불구, 민영의료보험 판매에 집중 · 2011년 1~5월 중국 건강보험의 누적 지급보험금이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8%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은 민영의료보험 판매에 집중함. (봉황 재정 보도 등, 7/4)
제139 (7. 11)	올 상반기 중국 보험사업 실적 부진과 원인 · 올 상반기 대부분 중국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이 올 목표치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와 투자수익률 하락에 따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와 자동차 매출감소로 인한 자동차보험 실적 부진에 따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증가세 둔화에 기인함. (중국 재경보도 7/1, 텅선 재정 7/5 등)
제140호 (7. 18)	6월 소비자물가지수,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3년래 최고치 기록 ·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해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료품 부문의 가격 급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함. (봉황 재정 보도, Wall Street Journal 등 7/11)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40호 (7. 18)	올 2/4분기 경제지표 양호, 경착륙 우려 해소 · 2/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GDP)이 지난해 2/4분기와 금년 1/4분기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통화당국이 시행한 일련의 긴축정책을 감안할 때 9%대의 양호한 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Wall Street Journal, 화신 재정 등 7/13)
제141호 (7. 25)	2~3급 도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구매 제한정책 적용지역 확대 · 베이징, 상하이 등 1급 도시의 주택구매 제한정책으로 대량의 부동산 투자자금이 2~3급 도시에 유입됨에 따른 2~3급 도시의 부동산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7월 14일 중국 국무원이 1급 도시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주택구매 제한정책을 일부 2~3급 도시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재신망, 봉황 재정보도 등 7/20)
제141호 (7. 25)	중국 사회보험법 실시, 사회복지 수준 향상 · 7월 1일 중국 최초의 종합사회보험법규인 사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회보험 분야에 걸쳐 가입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 통합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사회보장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화신 재정, 인민일보 등 7/13)
제142호 (8. 1)	지준율 인상,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와 해약률 증가 야기 · 올해 들어 지준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보다 자사 금융상품에 더 집중하여 판매하고 투자형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은행 단기 금융상품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유로 방카슈랑스 상품 매출이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해약률도 급등했음. (베이징 상보 7/15, 중국 증권보 등 7/20)
제143호 (8. 8)	보험감독위원회, 보험사기 방지 강화 규정 마련 · 중국 보험감독위원회가 보험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보험사기 급증과 범죄수단 다양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 강화 방안' 및 '보험사기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및 범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임. (중국 재정망 등 8/3)
제144호 (8. 16)	중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 최고치 다시 돌파 · 7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5%로 나타나 6월에 기록된 3년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미국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지속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짐. (신량재경, 텅신 재정 등 8/9)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44호 (8. 16)	2010년, 자동차책임보험 등장 후 최대 적자 기록 · 2010년 중국 자동차책임보험은 72억 위안(약 1.2조 원)에 달하는 적자로 2006년 동 보험이 등장한 후 최악의 적자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무사고 시의 보험료 인하제도에 따른 보험료수입 감소와 주민들의 수입 증가로 인한 보험금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상해금융보, 화신 재정 등 8/7)
제145호 (8. 22)	New China Life Insurance 상장, 아시아시장 회복력 시험대로 작용 ·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악화된 가운데, New China Life Insurance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신청하였으며, 동 회사 기업공개 성공여부는 아시아지역의 회복력을 타진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임. (Wall Street Journal 등 8/17)
제146호 (8. 29)	중국, 5년 내 전국민 통일보장시대 도래 · 8월 21일 중국 사회보장부가 5년 내 사회보장카드 8억 장 발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카드의 발행으로 지역 간 및 농민과 도시주민 간의 기초사회보장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하여 전 국민 통일보장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인민망 8/22, 난방신문망 등 8/23)
제147호 (9. 5)	동영상 채팅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등장 · 중국의 온라인 보험영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모집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여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 우월한 동영상 채팅 보험판매방식이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음. (증권시보 등 8/29)
제148호 (9. 19)	중국 제조업 경쟁우위 하락 논란 · 최근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중국 제조업체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제조원가의 일부를 해외시장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인건비 상승과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제조업의 황금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관점에 대해 반대한 의견을 제기함. (스코틀랜드왕립은행 9/7, Wall Street Journal 등 9/8)
제 149호 (9. 26)	중국 최초 보험거래소, 상하이에 설립 예정 · 9월 15일 상하이 특별시 금융부 부장은 상하이 보험거래소 설립 제안서가 이미 중국 국가 국무원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으며, 동 보험거래소의 설립안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상하이에서 최초의 중국 보험거래소가 설립되는 것임. (경제참고보 8/26, 상하이증권보 등 9/16)

VI.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2.1	1.0	6.3	8.5	7.5	4.4	4.7	4.2
경상수지	11,557	8,613	8,077	263	8,858	9,931	9,161	2,610
수 출	87,038	95,485	102,332	101,355	117,585	118,257	127,090	127,691
수 입	73,485	84,571	91,753	96,569	105,345	105,715	114,754	121,849
실업률	3.8	3.6	3.3	4.7	3.5	3.5	3.3	4.2
금리	국고채(3년)	3.89	4.30	4.34	4.14	3.74	3.70	3.30
	회사채(3년)	5.35	5.59	5.46	5.25	4.61	4.63	4.16
소비자물가지수	112.7	113.3	113.5	114.6	115.6	116.6	117.6	119.7
환율	원/달러	1,284.70	1,188.70	1,167.60	1,130.80	1,210.30	1,142.00	1,138.90
	원/엔화	1,336.28	1,318.80	1,262.82	1,217.68	1,364.56	1,363.34	1,397.08
KOSPI	1,390.1	1,673.1	1,682.8	1,692.9	1,698.3	1,872.8	2,051.0	2,106.70
외환보유고	231,735	254,247	269,995	272,331	274,219	289,775	291,571	298,618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72,569	101,850	100,434	112,581	90,965	113,206	106,839	97,513
- 생 보	52,047	73,533	71,883	84,809	65,558	79,340	80,183	68,578
- 손 보	20,522	28,317	28,551	27,772	25,407	33,866	26,655	28,935
은 행	141,250	218,527	282,694	121,671	217,133	265,044	33,397	274,211
- 일 반	187,727	245,899	282,430	102,900	176,891	247,333	44,878	150,020
- 신 탁	-46,477	-27,372	264	18,771	40,242	17,711	-11,481	124,191
증 권	81,168	37,013	33,892	-44,842	45,027	15,820	-7,803	17,429
투 신	261,799	-115,228	-282,355	-140,750	107,354	-83,616	-78,660	-111,569
총 금	34,826	-64,396	-76,105	-7,191	38,000	-22,687	-13,827	9,480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40,908	153,119	40,313	41,775	44,312	44,496	170,897	40,937
	증가율	14.1	8.8	17.2	12.9	8.6	8.8	11.6	1.5
	구성비	21.4	19.9	21.0	21.7	19.0	21.0	20.6	19.4
사망	보험료	72,330	289,498	71,767	71,868	71,895	71,632	287,162	71,520
	증가율	-0.1	-1.7	-0.2	-1.1	-1.0	-1.0	-0.8	-0.3
	구성비	37.8	37.6	37.3	37.4	30.8	33.8	34.6	34.0
생사 혼합	보험료	23,387	82,052	24,183	24,875	27,370	28,786	105,215	27,350
	증가율	20.1	23.6	33.6	28.7	28.8	23.1	28.2	13.1
	구성비	12.2	10.7	12.6	12.9	11.7	13.6	12.7	13.0
변액 보험	보험료	44,522	171,882	44,983	45,598	50,600	52,949	194,130	52,972
	증가율	10.4	-2.3	10.0	8.3	14.0	18.9	12.9	17.8
	구성비	23.3	22.3	23.4	23.7	21.7	25.0	23.4	25.2
개인계	보험료	181,145	696,551	181,247	184,116	194,177	197,863	757,403	192,778
	증가율	7.8	2.8	9.7	7.6	8.4	9.2	8.7	6.4
	구성비	94.6	90.5	94.2	95.8	83.2	93.3	91.2	91.5
단체	보험료	10,277	73,017	11,156	8,033	39,241	14,242	72,672	17,839
	증가율	23.8	25.7	12.6	-3.1	-11.9	38.6	-0.5	59.9
	구성비	5.4	9.5	5.8	4.2	16.8	6.7	8.8	8.5
합계	보험료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증가율	8.6	4.6	9.8	7.1	4.4	10.8	7.9	9.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2,101	85,090	20,570	21,441	27,107	26,149	95,267	22,312
	증가율	-21.8	-29.0	-1.3	2.7	27.4	18.3	12.0	8.5
	지급률	54.0	55.6	51.0	51.3	61.2	58.8	55.7	54.5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37,182	149,298	36,009	36,698	36,739	37,843	147,289	36,023
	증가율	-10.0	1.6	-3.1	-6.1	2.5	1.8	-1.3	0.0
	지급률	51.4	51.6	50.2	51.1	51.1	52.8	51.3	50.4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19,768	70,557	12,028	12,509	18,789	14,872	58,198	12,250
	증가율	28.8	-1.5	-6.0	-15.7	-18.8	-24.8	-17.5	1.8
	지급률	84.5	86.0	49.7	50.3	68.6	51.7	55.3	44.8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3,385	81,281	25,859	28,701	39,263	35,562	129,385	33,532
	증가율	66.6	36.4	73.3	36.4	79.1	52.1	59.2	29.7
	지급률	52.5	47.3	57.5	62.9	77.6	67.2	66.6	63.3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02,435	386,227	94,466	99,349	121,899	114,425	430,139	104,117
	증가율	3.5	-3.0	10.2	3.6	19.3	11.7	11.4	10.2
	지급률	56.5	55.4	52.1	54.0	62.8	57.8	56.8	54.0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23,430	87,562	18,597	12,617	42,941	32,797	106,952	28,259
	증가율	-7.5	13.2	16.8	8.5	17.4	40.0	22.1	52.0
	지급률	228.0	119.9	166.7	157.1	109.4	230.3	147.2	158.4
전체	지급보험금	125,865	473,789	113,063	111,966	164,841	147,222	537,091	132,376
	증가율	1.3	-0.3	11.2	4.2	18.8	17.0	13.4	17.1
	지급률	65.8	61.6	58.8	58.3	70.6	69.4	64.7	62.9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	사업비	7,620	30,460	7,837	7,797	8,336	8,972	32,942	8,802
	증가율	25.8	-6.6	13.9	1.6	0.6	17.7	8.1	12.3
	사업비율	18.6	19.9	19.4	18.7	18.8	20.2	19.3	21.5
사망 보험	사업비	18,283	73,791	18,672	18,329	18,185	20,460	75,645	19,017
	증가율	11.6	3.9	5.7	0.1	-6.9	11.9	2.5	1.8
	사업비율	25.3	25.5	26.0	25.5	25.3	28.6	26.3	26.6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5,025	20,005	4,779	5,089	5,745	6,232	21,844	6,058
	증가율	6.5	-22.9	-1.9	4.5	9.7	24.0	9.2	26.8
	사업비율	21.5	24.4	19.8	20.5	21.0	21.6	20.8	22.2
개인 보험계	사업비	30,929	124,256	31,288	31,215	32,265	35,663	130,431	33,877
	증가율	13.9	-4.1	6.4	1.2	-2.4	15.3	5.0	8.3
	사업비율	17.1	17.8	17.3	17.0	16.6	18.0	17.2	17.6
단체 보험계	사업비	985	3,729	1,097	955	953	1,212	4,216	979
	증가율	25.9	6.0	25.5	10.8	-5.5	23.0	13.1	-10.7
	사업비율	9.6	5.1	9.8	11.9	2.4	8.5	5.8	5.5
전체	사업비	31,914	127,985	32,385	32,170	33,218	36,875	134,647	34,857
	증가율	14.2	-3.8	6.9	1.4	-2.5	15.5	5.2	7.6
	사업비율	16.7	16.6	16.8	16.7	14.2	17.4	16.2	16.5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	679	2,763	622	602	779	657	2,660	624	
	증가율	4.3	-2.5	-5.0	-4.7	-2.4	-3.2	-3.7	0.4	
	구성비	0.6	0.6	0.5	0.5	0.5	0.5	0.5	0.4	
해상	보험료	1,967	8,049	2,084	1,970	1,939	1,728	7,721	2,393	
	증가율	5.5	-5.4	-5.9	-2.0	4.4	-12.1	-4.1	14.8	
	구성비	1.7	1.8	1.7	1.6	1.3	1.3	1.5	1.7	
자동차	보험료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3	31,977	
	증가율	6.4	2.6	7.6	8.3	12.7	13.8	10.6	9.1	
	구성비	25.0	25.6	24.3	25.0	21.9	24.2	23.8	22.7	
보증	보험료	3,126	12,287	3,194	2,978	3,417	3,483	13,074	3,547	
	증가율	5.4	6.6	0.9	3.1	10.0	11.4	6.4	11.0	
	구성비	2.8	2.8	2.6	2.4	2.3	2.6	2.5	2.5	
특종	보험료	7,606	33,293	9,665	9,030	9,955	8,469	37,120	10,409	
	증가율	12.6	14.3	15.8	7.2	11.6	11.4	11.5	7.7	
	구성비	6.7	7.6	8.0	7.4	6.8	6.4	7.1	7.4	
해외 원보험	보험료	534	2,078	433	568	702	623	2,326	636	
	증가율	-7.9	16.7	13.1	13.6	6.2	16.6	11.9	46.9	
	구성비	0.5	0.5	0.4	0.5	0.5	0.5	0.4	0.5	
장기 손해	보험료	63,158	232,988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76,818	
	증가율	27.0	23.4	25.5	21.2	21.4	16.5	21.0	15.3	
	구성비	55.9	53.2	55.2	56.7	49.3	55.3	53.9	54.6	
개인 연금	보험료	5,169	17,841	5,527	5,818	6,444	6,908	24,697	7,586	
	증가율	49.9	38.8	51.3	43.7	29.6	33.6	38.4	37.2	
	구성비	4.6	4.1	4.6	4.8	4.4	5.2	4.7	5.4	
퇴직 보험	보험료	573	8,680	960	273	3,940	111	5,284	516	
	증가율	-48.4	27.5	26.7	-47.5	-42.3	-80.7	-39.1	-46.3	
	구성비	0.5	2.0	0.8	0.2	2.7	0.1	1.0	0.4	
퇴직 연금	보험료	1,994	8,119	2,385	1,123	14,890	5,218	23,616	6,218	
	증가율	112.4	144.4	346.4	107.4	194.9	161.7	190.9	160.7	
	구성비	1.8	1.9	2.0	0.9	10.2	3.9	4.5	4.4	
계	보험료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증가율	19.4	16.9	20.8	16.5	21.8	17.5	19.2	16.5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 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9.9	21.2	50.1	-7.2	300.2	47.4
	사업비율	36.3	60.0	51.3	49.6	55.1	49.8
	합산비율	76.3	81.2	101.4	42.4	355.3	97.2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81.9	36.1	55.2	143.6	109.6	58.7
	사업비율	36.2	28.7	31.5	37.1	30.8	22.3
	합산비율	118.1	64.8	101.4	180.7	140.4	81.1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88.0	-98.2	70.9	27.8	33.8	43.9
	사업비율	15.5	17.7	20.8	20.7	19.4	8.1
	합산비율	103.4	-80.6	91.8	48.5	53.2	52.0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7.4	52.8	66.4	62.2	66.4	61.6
	사업비율	32.6	24.9	23.1	21.9	27.5	21.1
	합산비율	90.0	77.8	89.5	84.1	93.9	82.7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35.2	42.6	36.1	43.8	41.9	43.5
	사업비율	77.3	59.3	56.9	60.7	70.0	50.0
	합산비율	112.6	102.0	93.0	104.5	111.9	93.5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59.3	71.8	51.1	82.3	69.9	54.4
	사업비율	26.8	25.2	26.5	25.1	26.8	26.7
	합산비율	86.1	97.0	77.6	107.5	96.7	81.1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8.6	75.7	82.5	85.9	77.1	79.6
	사업비율	31.7	30.3	31.1	30.2	30.0	20.7
	합산비율	110.3	106.0	113.6	116.1	107.1	100.2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5	81.3	81.3	81.6	80.5	81.7
	사업비율	17.5	17.6	17.8	17.4	17.8	16.8
	합산비율	99.0	99.0	99.2	99.0	98.4	98.5
전체	경과손해율	78.2	72.8	79.3	80.2	77.8	78.2
	사업비율	22.8	21.9	22.3	21.7	22.3	18.3
	합산비율	100.9	94.6	101.6	101.9	100.1	96.5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 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 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 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 8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1년 가을호 (통권 59호)

발행일 2011년 10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